브라운 신부의 의심

The Incredulity of Father Brown

G.K. 체스터턴 (G.K. Chesterton) (1874–1936)

1926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3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G.K. 체스터턴 (G.K. Chesterton), "The Incredulity of Father Brown" (Cassell & Co. 1926)

저자

G.K. 체스터턴 (G.K. Chesterton) (1874–1936)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Australia #0201021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Qwen3.6-35B-A3B (GB10 로컬) · 검수 Claude Opus 4.8 (검수·교정)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3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체스터턴 특유의 역설적 위트와 아늑한 영국 정서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 브라운 신부의 부활

브라운 신부에게도 잠시, 하지만 그리 달갑지 않은 '명성'의 시기가 있었다. 그는 신문에 단 며칠간 화제였다. 주간 평론지들에서는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의 활약상은 수많은 사교 모임과 거실에서, 특히 미국에서 열정적이면서도 부정확하게 회자되었다.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조화롭게도, 그의 추리 모험은 잡지에 실리는 단편소설의 소재가 되기에 이르렀다.

의외로 이 '초점'은 그가 머무는 수많은 장소들 중 가장 외딴곳, 혹은 가장 낯선 곳에서 그를 향해 빛을 발했다. 그는 선교사이면서 동시에 교구 신부처럼 일하는, 그런 중간 지대의 사제로 파견되어 남미 북부 해안가의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곳은 여전히 유럽 열강의 영향력 아래 불안정하게 붙어 있거나, 혹은 몬로 대통령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독립 공화국이 될 것을 끊임없이 위협하던 지역이었다.

인구는 붉고 갈색이었으며 분홍빛 반점이 섞여 있었다. 즉, 스페인계 미국인이 주류를 이루었고, 스페인계와 원주민의 혼혈도 많았다. 하지만 북방계 미국인들, 즉 영국인이나 독일인 등이 점차 유입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런 방문객 중 한 명이 막 도착해 짐 한 개를 분실한 것에 격분한 순간부터 시작된 듯했다. 그는 시야에 들어온 첫 번째 건물로 향했다. 그곳은 사제관과 그 옆에 붙은 예배당이었다. 건물 앞에는 긴 베란다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옆으로는 검은색으로 뒤틀린 덩굴식물

이 기어오르는 말뚝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가을빛에 잎사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 말뚝들 뒤에도 줄을 맞춰 사람 몇 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말뚝처럼 굳어 있었으며, 색도 덩굴식물과 비슷했다. 넓은 챙의 모자를 쓴 그들의 눈은 깜빡이지 않고 검게 빛났다. 많은 이들의 피부는 대서양 건너 숲의 짙은 붉은 나무를 연상케 했다. 그들은 길고 가느다란 검은 시가를 피우고 있었으며, 그 무리 전체에서 연기가 유일한 움직이는 존재였다.

방문객은 아마도 그들을 원주민이라고 부렀을 것이다. 비록 그들 중 일부는 스페인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는 스페인인과 붉은 피부의 원주민 사이를 미묘하게 구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일단 그들이 그곳의 토착민임을 확인하면, 그는 그들을 무대에서 치워버리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그는 캔자스 시티 출신의 신문 기자였다. 마른 체격에 금발 머리를 한 사내였다. 메러디스가 말하길, 그에게는 모험적인 코가 있다고 했다. 그 코는 마치 만지작거리며 길을 찾는 듯, 개미핥기의 주둥이처럼 움직였다.

그의 이름은 스네이스였다. 부모는 어떤 깊은 묵상에 잠긴 뒤 그를 사울이라고 불렀다. 이 사실을 그는 최대한 감추려 했다. 결국 그는 폴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양보했다. 하지만 이방인의 사도인 사울과 같은 이유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박해자 이름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

다. 그는 조직화된 종교를 경멸했기 때문이다. 볼테르보다 인거솔로부터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경멸이었다.

이것은 그의 성격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부분을 선교지와 베란다 앞의 무리들에게 드러냈다. 그들의 당당함도, 무관심함도 그의 효율성에 대한 격분에 기름을 붓는 듯했다. 첫 질문들에 대한 특별한 대답을 얻지 못하자, 그는 혼자 모든 말을 시작했다.

강렬한 햇살 아래 서 있는 그는 파나마 모자를 쓰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손에 든 가방을 굳게 쥐고 선명한 모습이었다. 그는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그는 그들을 게으르고 더럽다고, 그리고 짐승보다 못한 야만적인 무지렁이라고 큰 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가 그들의 마음을 이미 괴롭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의 생각에는, 사제들의 해로운 영향력이 그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가난하게 만들고, 절망적으로 억압하여, 그늘에서 담배를 피우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너희는 정말로 순진한 무리야. 저기 교만한 신관들이 모자를 쓰고 티아라를 쓰며 금빛 망토를 두른 채, 다른 사람들을 먼지처럼 업신여기며 다닐 때면, 너희는 그들의 위용에 눌려 버려. 왕관과 천막, 성스러운 우산 같은 것들에 아이처럼 속아넘어가지. 마치 마임극을 보는 아이

처럼. 그저 멈보점보의 고리타분한 대제사장이 마치 이 땅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위엄 있게 보이기 때문이지.

그럼 너희는 어때? 너희는 어떤 모습이니, 불쌍한 바보들아. 내가 말해 주마. 바로 그 덕분에 너희는 여전히 야만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고, 읽고 쓰지도 못하는 거야."

그때, 멈보점보의 최고 사제가 사제관 문을 급하게 나섰다. 그는 지상의 군주라기보다는, 짧은 받침대를 감싼 듯 단추로 동여맨 낡은 검은 옷더미, 마치 허수아비 같은 형상처럼 보였다.

그는 티아라를 쓰고 있지 않았다. 만약 그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말이다. 대신 그는 스페인 원주민들이 쓰는 모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초라한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자는 귀찮다는 듯이 그의 머리 뒤로 밀려 있었다.

그가 움직이지 않는 원주민들에게 말을 걸려던 찰나, 낯선 이의 모습을 보고는 재빨리 말했다.

"아, 제가 도와드릴까요?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폴 스네이스 씨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부터 그 기자의 지식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아마도 그의 저널리스트적 본능이 편견보다 더 강했던 듯하다. 실제로 재능 있는 기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는 많은 질문을 던졌고, 그 대답들은 그에게 흥미로움과 놀라움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는 신부가 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인디언들이 읽고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읽거나 쓰지 않았다.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더 선호하는 자연스러운 성향 때문이었다.

그는 베란다에 무더기로 앉아 움직이지도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꽤나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특히 스페인 피가 반 이상 섞인 이들은 더욱 그랬다. 그리고 그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 모두에게 진짜로 자신들의 땅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원주민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든 고집스러운 전통의 일부였다. 하지만 신부도 그 일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록 지역 정치에 국한된 것이었더라도, 그는 아마도 자신의 정치적 역할 중 첫 번째이자 마지막 역할을 수행한 셈이 되었다.

최근 그 지역에는 라틴 문화권 국가들에 주기적으로 불어닥치던, 무신론적이고 거의 아나키즘에 가까운 급진주의 열풍이 휩쓸고 지나갔다. 보통은 비밀 결사에서 시작해 내전으로 끝나는, 그 외에는 별다른 성과 없는 그런 열풍이었다.

이콘 파괴파의 지역 지도자는 알바레스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포르투갈 출신의 다소 이색적인 모험가였으나, 적들 말에 따르면 흑인 혈통이 섞여 있었다고 한다. 그는 신비로운 의식을 치르는 수많은 로지나 신전들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는 무신론조차도 어느덧 신비주의적인 옷을 입곤 한다.

반면 보수 진영의 지도자는 훨씬 평범한 인물이었다. 멘도사라는 매우 부유한 남자였는데, 공장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 신망도 두터웠지만, 흥미로운 점은 없었다.

법과 질서를 수호하려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뻔했던 것은, 만약 그들이 농민들에게 토지를 보장해 주는 등 좀 더 인기 있는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말이다. 그리고 이 운동의 주된 동력은 브라운 신부의 작은 선교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가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보수당 지도자 멘도자가 들어왔다. 그는 살이 찐 검은 피부의 남자로, 배처럼 생긴 대머리가 특징이었다. 몸매도 배처럼 둥글었다. 그는 향긋한 시가를 피우고 있었지만, 신부의 앞에 서는 순간, 마치 교회에 들어가는 양 연극적으로 시가를 던져 버렸다. 그의 몸무게 때문에 그의 절은 매우 이상해 보였다. 그는 항상 사회적 예절에 매우 진지했으며, 특히 종교 기관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다. 그는 평신도 중에서도 사제들보다 더 교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는 브라운 신부를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다. 특히 이런 행동이 사적인 상황에서도 이어질 때였다.

"저는 아마 반성직자주의자일 거예요." 브라운 신부는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성직자들에게 일을 맡긴다면, 성직주의는 절반도 되지 않을 텐데 말이지요."

"멘도자 씨," 기자가 새로운 활기를 띠며 외쳤다. "저, 우리가 전에 만난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멕시코에서 열린 무역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나요?"

멘도자 씨의 무거웠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며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느린 속도로 미소 지었다. "기억납니다."

“한두 시간 사이에 장사가 꽤나 번창했군요.” 스네이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 같군요.”

“저는 정말 행운을 많이 누려 왔습니다.” 멘도자가 겸손하게 말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스네이스는 열정적으로 외쳤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법이죠. 당신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단단히 붙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당신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전혀 아닙니다." 다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신부님을 자주 찾아뵙곤 합니다.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요. 정말 짧은 대화일 뿐입니다."

브라운 신부와 성공한, 심지어 유명한 사업가 사이의 친밀감이 신부와 실용주의자 스네이시 씨 사이의 화해를 완성한 듯했다. 스네이시 씨에게 교회와 선교 사업이 새로운 품위를 얻은 듯 느껴졌고, 그는 예배당이나 사제관처럼 종교의 존재를 가끔씩 상기시키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스네이시 씨는 신부의 계획, 특히 그 세속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 열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언제든지 이 계획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실시간 연결고리’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

다고 선언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브라운 신부는, 그 기자가 적대적일 때보다 호의적일 때 오히려 더 골치 아프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폴 스네이트 씨는 브라운 신부를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는 대륙을 건너 미국 중서부의 신문사에 길고도 거창한 찬사를 보내왔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불쌍한 성직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거대한 일요일 신문지면에 큼직하게 실었다. 신부의 말은 곧 구호로 바뀌었고, 남미의 존경받는 신부로부터 온 '메시지'가 끊임없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미국인들만큼 끈기와 열정이 강한 민족이라면 모를까, 다른 민족이었다면 브라운 신부 이야기에 이미 지겨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오히려 그를 강연 투어에 초청하며 호의적인 제안을 쏟아냈다. 신부가 이를 거절하자, 제안 조건은 더 높아졌고, 그 뒤에는 경외감 어린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셜록 홈즈 이야기처럼, 스네이트 씨의 주선으로 신부에 대한 일련의 이야기가 기획되어 주인공에게 전달되었다. 그들은 신부의 도움과 격려를 요청했다. 신부는 이야기가 이미 시작된 것을 보고는 단 한 가지 제안밖에 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멈추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스네이트 씨에게는 하나의 화제로 받아들여졌다. 브라운 신부가 왓슨 박사의 주인공처럼 절벽 너머로 잠시 사라져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모든 요구에 신부는 서면으로 인내심 있게 답해야 했다. 그는 이야기의 중단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다시 시작하기 전에 상당한 공백기가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그가 쓴 편지는 점점 짧아졌다. 마지막 편지를 쓸 때, 그는 한숨을 쉬었다.

물론, 북쪽에서 일어난 이 기이한 열기는 그가 그토록 고독한 유배 생활을 기대했던 남쪽의 작은 전초기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미 그곳에 정착한 상당수의 영국인과 미국인들은 이렇게 널리 알려진 인물을 자신들의 지역이 자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요구하며 거침없이 내리는 미국 관광객들은, 그 먼 해안가에서도 브라운 신부를 만나고자 큰 소리로 요구하며 도착했다. 그들은 브라운 신부 이름을 딴 전세 열차를 운행하고, 그를 하나의 공공 기념물이라도 된 양 군중을 끌어들일 지경에까지 거의 이르렀다.

특히 그를 괴롭힌 것은 그 곳의 활발하고 야심 찬 상인들이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에게 자신의 상품을 시험해 보라고 조르고, 추천사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비록 추천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들은 사인을 모으기 위해 서신을 계속 연장했다. 그는 성미가 온순한 사람이었기에, 상인들은 그가 원하는 바를 많이 얻어냈다.

그가 인생에서 끔찍한 전환점이 될 몇 마디를 급히 카드에 적게 된 것은, 에크슈타인이라는 이름의 프랑크푸르트 와인 상인의 특별한 요청에 대한 답장이었다.

에크슈타인은 꼼꼼하고 작은 체구의 남자로,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코안경을 끼고 있었다. 그는 신부가 자신의 명성 높은 약용 포트 포도주를 시식할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언제 어디서 마실지까지 알려주길 간절히 바랐다.

신부는 그 요청에 특별히 놀라지 않았다. 광고계의 미친 짓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놀랄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무언가를 급히 적어 내려가며 다른, 좀 더 상식적인 업무로 돌아섰다.

그때 다시 방해받았다. 그의 정치적 적대자인 알바레스로부터의 편지였다. 알바레스는 미해결 쟁점에 대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작은 마을 성벽 바로 바깥의 한 카페에서 그날 저녁 회동을 제안했다. 신부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다소 과장되고 군인 같은 전령을 통해 수락 의사를 전달했다.

그리고 한두 시간의 여유가 생긴 신부는 앉아 자신의 정당한 업무를 조금씩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차자, 신부는 에크슈타인의 놀라운 포도주를 잔에 따랐다. 유머러스한 표정으로 시계를 힐끔 본 뒤,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밤거리로 나섰다.

강렬한 달빛이 작은 스페인 마을을 덮고 있었다. 그가 그림 같은 성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 성문은 약간 로코코 양식의 아치와 그 너머로 우뚝 선 기이한 야자수 숲을 품고 있어, 마치 스페인 오페라의 한 장면처럼 보였다.

성문 너머로 보이는 한 장의 긴 야자수 잎은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갈라져 있었고, 달을 배경으로 검게 보이며 아치 너머로 늘어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검은 악어의 턱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기이한 형상은 그의 상상 속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다만, 그의 날카로운 눈에는 다른 것이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공기는

죽을 듯이 고요했고, 바람 한 점 일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그 늘어져 있던 야자수 잎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혼자였다.

그는 이미 마지막 집들을 뒤로했다. 집들은 대부분 문이 닫혀 있고 창문 판자가 내려져 있었다. 그는 거대하고 형체는 불분명하지만 납작하게 다져진 돌들로 쌓인 길게 뻗은 두 담장 사이를 걷고 있었다. 담장 여기저기에는 그 지방 특유의 기이하고 가시 많은 잡초들이 무성했다. 이 담장들은 문까지 평행하게 이어져 있었다.

그는 문 바깥에 있는 카페의 불빛은 볼 수 없었다. 아마도 거리가 너무 멀었을 것이다. 아치형 문 아래로는 넓게 깔린 큰 돌 포장도로만 보였다. 달빛에 희미하게 빛나던 그 도로 여기저기에는 기이한 가시선인장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악취가 풍기는 듯한 강한 불쾌감을 느꼈다. 몸이 무겁게 눌리는 기이한 압박감도 들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용기는 상당했지만, 아마도 그의 호기심만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평생 사소한 것들의 진실을 향한 지적 갈망에 이끌려 살아왔다. 그는 때때로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억누르기도 했지만, 그 갈망은 항상 그 안에 존재했다.

그는 정면으로 문턱을 넘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원숭이처럼 나무 꼭대기에서 튀어나와 칼로 그를 내리쳤다. 동시에 다른 한

남자가 담장을 따라 빠르게 기어와서, 손에 쥔 곤봉을 머리 위로 휘두르며 내려쳤다.

브라운 신부는 몸을 틀고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그러나 쓰러지는 순간, 그의 동그란 얼굴에는 부드러우면서도 한없이 큰 놀라움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때 그 작은 마을에는 폴 스네이트 씨와는 사뭇 다른 또 다른 젊은 미국인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존 애덤스 레이스. 그는 멘도사에게 고용되어 낡은 마을에 최신 편의 시설을 갖춰 넣는 전기 기술자였다.

그는 풍자나 국제적 수다거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미국 기자와는 달리 덜 알려진 존재였다. 하지만 사실 미국에는 스네이트 씨 같은 성격의 인간 한 명을 두고 레이스 씨 같은 성격의 인간 백만 명이 있다. 그는 직장에서 유달리 뛰어난 재능을 보였을 뿐, 다른 모든 면에서는 매우 소박한 사람이었다.

그는 서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약국 점원의 보조로 일생을 시작해, 오직 성실한 노동과 실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향 마을을 사람 사는 세상의 자연스러운 심장이라고 여겼다. 그는 어머니 무릎 옆에서 가족 성경을 통해 매우 청교도적이고 순수한 복음주의적 기독교 교육을 받았다. 그가 종교를 가질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곧 그의 종교였다.

가장 최신이고 가장 과감한 발견들의 눈부신 빛들 속에서, 그는 마치 신이 새로운 별과 태양계를 창조하듯 빛과 소리의 기적을 일구어 내는 실험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단 한 순간도 '집'에서 온 것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임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 어머니와 가족 성경, 그리고 마을의 고요하고 기묘한 도덕성이 바로 최고였다.

그는 어머니의 신성함에 대해 경박한 프랑스인이라도 가질 법한 진지하고 고귀한 경외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성경의 종교가 정말로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했다. 다만 현대 세계를 돌아다닐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그 종교가 빠져 있는 것을 느끼곤 했다. 그는 가톨릭 국가들의 종교적 외형에 공감하기 어려웠고, 주교관과 지팡이를 싫어하는 점에서 스네이트 씨와 공명했지만, 그 확신만큼은 덜 강고했다.

그는 멘도사의 공적인 절과 아첨을 좋아하지 않았고, 무신론자 알바레즈의 프리메이슨적 신비주의에 끌릴 유혹도 없었다. 아마도 그 반열대성 생활은 그에게 너무 채도가 높았을 것이다. 인디안 레드와 스페인 골드 빛깔로 가득 찼으니까. 어쨌든 그가 고향 마을에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자랑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평범하고 겸손하며 감동적인 무언가가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것이 세상에서 그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것임을 진심으로 말한 것이었다.

남미의 한 역에서 존 애덤스 레이스가 가진 이러한 정신적 태도 때문에, 그는 얼마 전부터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감정은 그의 편견에 정면으로 위배되었고, 그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진상

은 이랬다. 그가 여행 중에 접한 것들 중, 그의 고향의 나무 더미나 지방의 예의, 어머니 무릎 옆의 성경을 조금이라도 떠올리게 한 유일한 존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브라운 신부의 동그란 얼굴과 검은색 투박한 우산이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평범하기 그지없고 심지어 코믹하기까지 한 그 검은 인물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걷는 수수께끼이자 모순 그 자체인 양, 그는 거의 병적인 매혹감에 사로잡혀 그것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혐오하는 모든 것의 한복판에서, 어쩔 수 없이 좋아져 버리는 무언가를 발견한 셈이었다. 그것은 마치 작은 악마들에게 끔찍하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막상 사탄이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일 뿐임을 알게 된 것과 같은 기분이었다.

그 달빛이 쏟아지던 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악마를 목격했다. 이유 없이 순결해 보이는, 그야말로 악마 같은 존재가 그의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넓은 검은 모자에 긴 검은 코트를 걸친 그 인물은 거리를 따라 게걸음으로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신부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궁금해하며, 작은 검은 실루엣이 지나간 뒤에도 그는 달빛 비친 거리로 시선을 고정해 두었다.

그때 또 다른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두 명의 남자가 마치 밝게 비춰진 무대 위를 걷듯 그의 창문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달빛이 만들어낸 푸른 형광등 같은 빛이 포도주 상인인 작은 에크슈타인의 머리 위에 우뚝 선 굵은 머리카락 주변을 유령 같은 고리로 감쌌다. 그 빛

은 더 키가 크고 어두운 실루엣을 드러냈는데, 그 인물은 독수리 같은 콧날과 기묘하게 오래되고 매우 무거운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 모자는 전체적인 윤곽을 그림자 희곡 속 형상처럼 더욱 기이하게 만들었다.

레이스는 달빛이 자신의 상상에 이런 장난을 부린다고 스스로를 책망했다. 두 번째로 자세히 보니, 그는 칼데론 박사의 검은 스페인식 수염과 높은 얼굴 구조를 알아볼 수 있었다. 칼데론 박사는 마을의 정직한 의사였으며, 레이스는 한때 그가 멘도사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남자가 서로 속삭이며 거리를 내려다보는 태도는 그에게 묘한 기이함을 안겨주었다.

갑작스런 충동이 일어난 그는 낮은 창턱을 넘어 모자를 벗은 채 그대로 도로로 뛰어나가 그들의 발자취를 쫓았다. 그는 두 남자가 어두운 아치형 입구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잠시 뒤 너머에서 끔찍한 비명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유난히 크고 날카로웠으며, 레이스에게는 더없이 피를 얼리는 듯했다. 왜냐하면 그 비명은 그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언어로 매우 명확하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순간,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비명 소리도 섞여 나왔다. 그러자 분노와 비탄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성채와 높은 야자수들을 진동시켰다. 군중들이 문지방 너머로 물러나는 듯 움직였다. 그러자 어두운 아치형 문간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다. 파멸의 음조가 실려 있었다. 누군가 문간을 통해 외쳤다.

"브라운 신부님이 돌아가셨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지주가 무너졌는지, 혹은 자신이 의지해 왔던 어떤 것이 갑자기 왜 그를 버렸는지를 결코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대문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둠 속의 입구에서 빠져나오던 동포인 기자 스네이스를 딱 그 순간에 마주쳤다. 스네이스는 죽은 자처럼 창백했고, 불안하게 손가락을 튕기고 있었다.

"사실입니다." 스네이스는 평소와 달리 경외심에 가까운 어조로 말했다. "그는 이미 끝장 났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해봤지만, 희망은 없습니다. 문턱을 지나 들어오던 중, 저주받은 다고들이 그를 몽둥이로 구타한 거죠. 하느님만이 그 이유를 아시겠지요. 이곳에 큰 손실입니다."

레이스는 대답하지도, 어쩌면 대답할 수도 없었다. 그는 아치 아래로 달려가, 너머 광경이 펼쳐진 곳으로 향했다.

작은 검은 그림자는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여기저기 푸른 가시가 돋아 있는 넓은 돌밭 위였다. 거대한 군중은 거의 한 사람의 거구한 몸짓에 의해 뒤로 물러서게 되어 있었다. 그 전경에 서 있던 거대한 인물이었다.

그의 손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저절로 흔들리며 이리저리 움직였다. 마치 그가 마법사라도 된 듯했다.

알바레스는 독재자이자 선동가였다. 그는 키가 크고 거만하게 걷는 인물로, 늘 화려한 차림새를 즐겨 했다. 이날 그는 은빛 뱀이 기어 다니

듯 자수된 녹색 제복을 입고 있었다. 목에는 진한 마르롱색 리본에 매달린 훈장을 걸치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곱슬거리며 이미 회색으로 변해 있었지만, 그의 피부는 친구들이 올리브색이라 부르고 적들이 오크루론이라 부르는 색조였다. 그러나 그 피부는 마치 금으로 주조된 가면을 쓴 듯, 금빛을 띠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크고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으며, 힘차고 유머러스한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의 표정은 진지하고 엄숙했다.

그는 브라운 신부를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소리가 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밖으로 나가보니 돌바닥에 시체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가 자랑스러운 듯 고개를 돌려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 중 일부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소.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구려. 그렇다면 그 마음을 대신 말해주마. 나는 무신론자다. 내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불러줄 신도 없다.

하지만 나는 군인이자 인간으로서 남아 있는 명예의 뿌리 하나를 건져 올리는 이름으로 말하노라. 나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그 일을 저지른 자들을 지금 여기 데려올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들을 저 나무에 매달아 주겠노라."

"물론 그 말씀 들으니 기쁘습니다." 멘도사는 쓰러진 동료의 시체 곁에 서서, 딱딱하고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이 끔찍한 타격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친구의 시체를 치우고 이 불규칙한 회의를 해산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예의 바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는 의사를 향해 진지하게 덧붙였다. "불행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 이해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칼데론 박사가 말했다.

존 레이스는 우울한 마음으로, 그리고 묘한 허전함으로 자신의 하숙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과 인연이 없던 남자의 죽음을 그리워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장례식은 다음 날 치러질 예정이었다. 폭동이 매시간 더 빈번해질까 봐 두려워했기에, 모든 사람은 이 위기가 가능한 한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다.

스네이스가 베란다에 앉아 있는 붉은 인디언들 일행을 보았을 때, 그들은 마치 붉은 나무로 조각된 고대 아즈텍 신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들의 모습은 달랐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종교 지도자의 관에 대한 존경을 표해야 한다는 절박한 의무에 막혀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확실히 반란을 일으켜 공화당 지도자를 린치했을 것이다. 실제로 린치당하기 가장 마땅했던 살인자들은 공중으로 사라진 듯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죽어가는 남자가 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지조

차 영원히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아마도 그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놀란 표정은 바로 그들을 알아본 순간의 표정이었을지도 모른다. 알바레스는 그것이 자신의 소행이 아님을 격정적으로 부인하며 장례식에 참석했고, 화려한 은색과 초록색 제복을 입고 관 뒤를 따라 걸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경외감을 가장한 과감함이 서려 있었다.

베란다 뒤쪽에는 가파른 초록빛 언덕을 오르는 돌계단이 있었다. 선인장으로 만든 울타리가 계단을 따라 이어져 있었다. 관은 그 계단을 힘겹게 올라 위쪽 땅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도로를 지배하며 성지를 지키는 거대한 앙상한 십자가 아래에 잠시 놓였다.

아래쪽 도로에는 슬픔에 잠겨 염주를 돌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결처럼 넘쳐났다. 아버지를 잃은 고아들처럼 보였다.

알바레즈는 이런 상징들이 그에게 충분히 자극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와 존중을 잃지 않았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그를 내버려 두었더라면 모든 것이 잘 흘러갔을 것이다. 레이스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레이스는 씁쓸하게 속으로 생각했다. 멘도자 노인은 늘 바보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그 바보스러움을 여과 없이, 그리고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었으니까.

간단한 사회에서는 흔히 관습처럼 관을 열어두고 시신의 얼굴을 드러내곤 했다. 그 모습은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애절함으로, 심지어 고통스러울 정도로 강렬하게 다가왔다. 전통에 부합하는

그 관습 자체는 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간섭쟁이가 프랑스 자유주의자들의 습관을 덧붙여 무덤 옆에서 연설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멘도자가 연설을 시작했다. 꽤 긴 연설이었다. 연설이 길어질수록, 존 레이스의 기운과 그 종교 의식에 대한 동정심은 더욱더 가라앉았다.

성자들의 덕목이라 불리는 것들이 나열되었다. 아마도 가장 구식인 종류일 것이다. 그 나열은 만찬 후 연설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늘어놓는 듯한 느리고 둔중한 리듬으로 이어졌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나빴다. 하지만 멘도자는 더할 나위 없이 멍청한 짓을 저질렀다. 그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비난하고,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한 것이다.

삼 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한 장면을 연출해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특이한 장면이었다.

"우리는 분명히 묻고 싶다." 그가 장중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런 미덕이 어디에서 찾아질 수 있겠는가. 조상들의 믿음을 미친 듯이 저버린 자들 사이에서 말이다. 우리 가운데 무신론자가 있고, 무신론자 지도자가 있으며, 때로는 무신론자 통치자까지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추악한 철학이 이런 범죄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거룩한 남자를 죽인 자가 누구인지 묻는다면, 우리는 확실히 그 답을 찾을 것이다—"

혼혈 모험가 알바레스의 눈에는 숲이 우거진 아프리카가 비쳤다. 레이스는 그제야 비로소 그 남자가 결국 통제력을 잃고 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결국 야만인이었다. 그가 지닌 모든 '계몽된' 초월주의에도 부두교의 냄새가 배어 있는 것이 분명했다.

어쨌든 멘도자는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알바레스가 벌떡 일어나서 그에게 소리쳤고, 멘도자의 목소리를 압도할 만큼 거대한 성량으로 그를 잠재웠기 때문이다.

"누가 그를 죽였는가?" 그가 포효했다. "당신의 신이 죽였다! 그의 신이 죽였다! 당신들의 말대로라면, 그는 충실하고 어리석은 종들을 모두 죽인다. 바로 그 한 명을 죽인 것처럼 말이다."

그가 관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격렬하게 손을 휘둘렀다. 잠시 자신을 통제하는 듯하던 그는, 여전히 분노가 섞여 있지만 더 논리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나는 믿지 않지만, 당신들은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에게서 빼앗는 신보다는, 신이 없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적어도 나는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눈멀고 지각 없는 우주에는, 당신의 기도를 들을 수도, 당신의 친구를 돌려줄 수도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천국에 그를 일으켜 달라고 빌든, 내가 천국을 도발해 일으켜 달라고 하든, 그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그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그 신에게, 영원히 잠든 이 사람을 깨워 보라 도전하겠습니다!"

침묵이 엄습했다. 그리고 그 선동가는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우리가 당신 같은 자들을 풀어준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알았어야 했소." 멘도자가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말에 새 목소리가 끼어 들었다. 높고 날카로운, 양키 억양이 섞인 목소리였다.

"멈춰! 멈춰!" 기자 스네이스가 외쳤다. "뭔가 이상해! 내가 분명히 그가 움직이는 것을 봤어."

그는 계단을 뛰어올라 관으로 달려갔다. 아래에서는 군중이 설명할 수 없는 광기 속에 요동쳤다.

다음 순간, 그는 놀란 얼굴을 뒤로 돌렸고, 손가락으로 칼데론 박사를 불렀다. 박사는 재촉하듯 다가와 그와 상의했다. 두 사람이 다시 관에서 물러나자, 모두의 시선이 고정되었다. 관 속 시신의 머리가 제자리를 벗어난 것이었다.

군중에서 감탄의 비명이 터져 올랐으나, 이내 공중에서 끊긴 듯 갑자기 멈췄다. 관 속의 사제가 신음을 내며 한 팔을 짚고 몸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는 흐릿하고 깜빡이는 눈으로 군중을 바라보았다.

존 애덤스 레이스는 지금까지 과학의 기적들만 믿어 왔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후 수년간 그는 그 며칠간의 뒤집힌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결코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벗어나 버린 듯했고, 불가능한 세계에 살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단 반 시

간 만에 그 마을과 주변 지역은 천 년 동안 알려지지 않던 무엇으로 변해 있었다. 중세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에 의해 수도자들의 군중으로 변했고, 신이 인간들 가운데로 내려온 그리스 도시가 되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길바닥에 엎드렸고, 수백 명이 그 자리에서 서원을 했다. 심지어 두 명의 미국인 같은 외부인들조차 그 기적에 대한 생각과 말 외에는 할 수 없었다. 알바레스 자신도 크게 흔들렸고, 당연하게도 그는 머리를 손에 얹고 앉아 있었다.

행복이라는 폭풍이 몰아치는 한복판에서 한 사내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가늘었지만, 주변의 소음은 귀를 찢을 듯 시끄러웠다. 그는 짜증 섞인 듯한 작은 제스처를 반복했다. 그는 군중이 있는 담장 가장자리로 다가가, 펭귄의 짧은 날개가 퍼덕이듯 팔을 휘저으며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다. 소음이 잠시 주춤했다. 그리고 브라운 신부는 처음으로, 자신의 양을 향해 낼 수 있는 분노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다.

"아,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그는 떨리는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그러자 그는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했다. 평소 걸음걸이로 계단 쪽으로 돌진하더니, 서둘러 내려가기 시작했다.

"신부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멘도자가 평소보다 더 깊은 존경심을 담아 물었다.

"전보국으로 갑시다." 브라운 신부가 재촉하듯 말했다.

"뭐라고요? 아니요, 물론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왜 하필 기적이어야 하죠? 기적이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왔다. 사람들은 그의 발치로 달려가 그를 향해 축복을 빌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브라운 신부가 재촉하듯 말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지혜도 더 주시기를."

그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전보국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주교의 비서에게 전보를 쳤다.

"여기 기적에 관한 미친 소동이 있습니다. 주교님께서 승인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는 그 일을 마치고 돌아섰다. 그 순간, 힘이 빠진 듯 몸이 흔들렸다. 존 레이스가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았다.

"집까지 모시죠. 당신은 이 사람들이 주는 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존 레이스와 신부는 사제관 안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전날 신부가 씨름하다시피 했던 서류들이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가 놓아둔 자리에 그대로 있던 와인병과 비어 있는 와인잔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브라운 신부가 거의 냉담한 어조로 말했다. “생각을 시작할 수 있겠군.”

"아직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걸세," 미국인이 말했다. "당신도 쉬어야 해. 게다가, 대체 뭘 생각하려고?"

“사실 저는 살인 사건을 조사해 본 적이 꽤 많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제 살인 사건을 조사해야 하니까요.”

“내가 너라면,” 레이스가 말했다. “먼저 와인 한 잔 마실 텐데.”

브라운 신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 한 잔을 따랐다. 잔을 들어 공허한 곳을 응시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러곤 다시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아나?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내 느낌은 압도적인 경이로움이었지.”

“글쎄,” 레이스가 대답했다. “당신이 머리를 맞고 기절했다는 사실에 놀랐을 줄 알았네.”

브라운 신부는 그에게 몸을 기울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게는 오히려 머리를 얻어맞지 않은 것이 더 놀라웠습니다.”

레이스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머리를 얻어맞은 효과가 너무 컸나 보다 싶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다.

"무슨 뜻이야?"

"그 남자가 몽둥이를 힘껏 내리쳤을 때, 그건 내 머리 위에서 멈췄어요. 심지어 닿지도 않았죠. 다른 한 놈도 칼로 내게 찌르는 시늉을 했지만, 제게는 상처 하나 내지 못했어요. 마치 연극 같았어요. 정말 연극 같았죠. 하지만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는 잠시 동안 책상 위의 서류들을 진지하게 바라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칼이나 지팡이 한 번 맞지 않았건만, 나는 갑자기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고, 생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무언가에 의해 쓰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칼이나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내가 그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테이블 위의 와인을 가리켰다.

레이스가 와인 잔을 들어 올려, 잔을 바라본 뒤 코를 가까이 대어 향을 맡았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약제사로 일을 시작했고, 화학도 공부했습니다. 정밀한 분석을 해보지 않은 이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물질에는 뭔가 매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일시적인 잠, 즉 죽음처럼 보이는 잠을 들게 하는 약을 쓰기도 하죠."

"그렇군요." 신부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 기적은 어떤 이유에서든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장례식 장면은 연출됐고, 타이밍도 계산된 거죠. 스네이스가 사로잡힌 그 광기 어린 홍보 열풍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가 단지 그것만을 위해 그 정도까지 갔으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요. 어쨌든 저를 이용해 기사를 쓰고, 가짜 셜록 홈즈처럼 내세우는 것과 그 정도는 다르니까요."

신부가 말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깜빡이던 눈꺼풀이 갑자기 굳어 닫혔고, 그는 숨이 막힌 사람처럼 벌떡 일어섰다. 그러고는 흔들리는 손을 내밀어,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듯 문 쪽을 향해 더듬거렸다.

"당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른 한 사람이 놀란 듯 물었다.

"제가 말하자면," 브라운 신부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했다. "저는 기도하려고 했어요. 아니, 찬양하려고 했죠."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부님,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나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려 했다. 나를 그렇게 기이하게, 그리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구원해 주셨기에. 단 한 치의 차이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물론이지." 레이스가 말했다. "나는 당신의 종교를 믿지 않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도는 알겠소. 당신도 죽음을 면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지."

"아닙니다." 신부가 말했다. "죽음 때문이 아닙니다. 치욕 때문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자 신부의 다음 말이 마치 비명처럼 터져 나왔다.

"만약 그것이 단지 나의 치욕으로 그쳤다면 어땠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내가 서 있는 모든 것의 치욕이었습니다. 그들이 꾀했던 신앙 자체의 치욕이었죠. 만약에나 그랬다면요! 티투스 오츠의 거짓말이 목에 걸려 숨 막히던 그 이후, 우리들에게 던져진 가장 거대하고 끔찍한 스캔들이었으니까요."

"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동료가 소리쳤다.

"그럼, 바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군요." 신부가 말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조금 더 차분한 어조로 계속했다.

"스네이스와 셜록 홈스를 언급했을 때,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남자의 터무니없는 계획에 대해 썼던 내용을 기억해 냈죠.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지만, 생각해보니 그들은 기교를 부려 제가 정확히 그 단어들을 쓰도록 유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은 대략 이런 식이었습니다. '만약 그게 최선이라면, 저는 셜록 홈스처럼 죽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 문장을 생각하자마자,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의도치 않게 비슷한 내용들을 연이어 써내려갔다는 것을. 모든 글귀가 같은 아이디어를 향해 뻗어 있었다.

"저는 동조자에게 쓰는 것처럼, 특정 시간에 마약이 든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적었습니다. 지금, 이해가 가시나요?"

레이스는 여전히 눈을 크게 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 맞아요." 그가 말했다.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 기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을 것이다. 그리고는 기적을 파괴해 버렸을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내가 음모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버렸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만의 가짜 기적이 되고 말았을 테니까. 그게 다야. 내 희망으로는, 우리 둘이 지옥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으면 좋겠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분명히 저에 대해 꽤나 흥미로운 기사를 써냈겠죠.”

레이스는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어둡게 물었다. "이 악당들 중 몇 명이나 가담했나?"

브라운 신부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하기 싫은 일들이 더 많소. 하지만 그중 일부는 그저 도구일 뿐이길 바라요. 알바레스는 전쟁터라면 무슨 짓도 용납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녀석의 머리는 좀 이상하죠. 멘도사라는 놈은 오래된 위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는 처음부터 그를 믿지 않았고, 그는 제가 산업 문제로 내린 처분에 대해 저를 미워했죠. 하지만 그런 건 나중에 두고 볼 일입니다. 지금은 그저 탈출한 것에 감사할 일뿐이죠. 특히 제가 즉시 주교에게 전보를 보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존 레이스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내가 몰랐던 이야기를 많이 들었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리고 당신도 아직 모르는, 유일한 사실을 하나 말해주고 싶군."

그는 그 무리들의 계산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짐작이 갔다. 그들은 살아있는 인간이 관 속에서 깨어나, 성도처럼 시성(敍聖)되고 모든 이가 찬양하는 살아 있는 기적이 된다면, 당연히 숭배자들의 물결에 휩쓸려 하늘에서 내려온 영광의 관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보통 그러하듯, 그들의 계산은 꽤나 실용적인 심리학에 기반한 것이었다.

"나는 온갖 곳에서 온갖 사람들을 봐왔소. 솔직히 말해, 그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이 천 명 중 한 명도 될지 의문이라오. 더욱이 아직 잠꼬대하듯 어눌한 상태에서도, 그 지혜와 단순함, 그리고 겸손함을 잃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는 자신이 감동받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사실에 큰 놀람을 느꼈다.

브라운 신부는 탁자 위의 병을 멍하니, 그리고 다소 어긋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자, 보시오. 진짜 와인 한 병은 어때요?"

두 번째 이야기: 하늘의 화살

거의 백 편에 달하는 추리 소설이 미국 재벌이 살해당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은 마치 큰 재앙이라도 난 것처럼 취급받곤 한다. 다행히도 이 이야기는 살해당한 재벌로 시작해야 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 명의 재벌이 살해당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는 어떤 이에게는 과잉의 기쁨, 즉 '풍요의 부담'으로 비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사건이 평범한 범죄 사건들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한 난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우연이자 연속성, 즉 범죄자들의 일관된 정책 때문이었다.

대다수 사람은 그들이 모두 어떤 복수나 저주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 저주는 본래의 가치와 역사적 중요성 모두에서 뛰어난 유물, 즉 보석으로 장식된 일종의 성배, 즉 흔히 ‘콥트 컵’이라 불리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잔의 기원은 불분명했지만, 종교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이 잔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손길을 거쳐 갔다는 것에 혐오감을 느꼈던 어떤 동방 기독교 신자들의 광신적 태도 때문에 그 잔을 소유한 사람들이 불운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신비한 살인자가 정말로 그러한 광신도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는 이미 언론과 소문들의 세계에서 극적이고 선정적인 관심을 끌고 있었다. 이름 없는 존재에게 이름이나 별명이 붙여졌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세 번째 희생자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서만 브라운 신부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브라운 신부가 처음으로 대서양 여객선에서 내려 미국 땅을 밟았을 때, 그는 다른 많은 영국인들처럼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임을 깨달았다.

키가 작고, 시력이 나빠서 얼굴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평범한 외모를 가진 그는 영국에서는 군중 속을 지나가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무미건조해서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미국은 명성을 부추기는 재주가 남달랐다.

그가 몇 가지 흥미진진한 범죄 사건에 관여했다는 소문, 그리고 전직 범죄자이자 탐정이 된 플랑보와의 긴밀한 관계는 영국에서는 그저 수군거림에 불과했던 것이 미국에서는 확실한 평판으로 굳어졌다.

그가 선창에서 기자들의 무리에게 둘러싸여 발걸음을 멈추고 있을 때, 그의 둥근 얼굴은 놀라움으로 하얗게 질렸다. 마치 강도떼에게 습격당한 것처럼 그들은 그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그는 자신이 그 어느 분야에서도 권위자가 될 수 없는 주제들, 예를 들어 여성의 의상 디테일이나, 방금 발을 디딘 이 나라의 범죄 통계 등에 대해 묻는 것이었다.

그 검은색의 견고한 기자들의 무리와 대비되어, 또 다른 인물이 그들 틈바구니에서 떨어져 서 있었다. 그 인물도 역시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빛나는 낮과 계절의 하얀 햇살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기자들이 질문을 마쳤을 때, 안경을 크게 낀 키가 크고 얼굴이 누르스름한 남자가 제스처로 그를 멈춰 세우며 말했다.

"실례합니다만, 웨인 대위를 찾고 계신가요?"

브라운 신부에게 사과의 뜻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신부 본인이 진심으로 사과했을 것이다. 그는 미국을 처음 방문했고, 무엇보다 그토록 기이한 거북등 안경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영국에는 아직 그런 유행이 퍼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처음 느낀 감정은 기묘한 바다 괴물을 바라보는 것과 같았다. 안경테는 잠수부의 헬멧을 연상케 했다. 그 외의 모습은 매우 정교하게 차려입었다. 순진한 브라운에게 그 안경은 세련된 멋쟁이의 가장 기괴한 결함처럼 보였다. 마치 멋쟁이가 우아함을 더하기 위해 나무 다리를 단 것처럼 말이다.

그 질문은 그를 당황하게 했다. 프랑스의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웨인이라는 이름의 미국인 비행사가 그에게 만날 희망을 가진 인물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빨리 웨인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실례합니다." 그가 의아한 듯 물었다. "당신은 웨인 대위입니까? 혹시 그분을 아십니까?"

안경 낀 남자는 나무로 깎인 듯한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저는 분명히 웨인 선장이 아닙니다."

그는 차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웨인을 보고 나서부터는 그 점을 확신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질문은 좀 더 복잡했다.

"저는 웨인과 그의 삼촌, 그리고 머턴 노인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머턴 노인을 알지만, 정작 머턴 노인은 저를 모르죠. 그는 자신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브라운 신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는 반짝이는 바다와 도시의 첨탑을 바라보다가, 안경을 낀 남자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남자의 눈을 가린 것만이 그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보이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누런 얼굴에는 거의 아시아인, 아니 중국인 같은 인상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대화는 층층이 쌓인 아이러니로 이루어져 있는 듯했다. 그는 이 활달하고 사교적인 주민들 사이에서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이었다. 그는 바로 그 이해할 수 없는 미국인이었다.

"제 이름은 드레이지입니다. 노먼 드레이지라고 하지요. 저는 미국 시민이고, 그 사실이 모든 걸 설명해 주죠. 적어도 제 친구 웨인이 나머지 이야기를 풀어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7월 4일 기념일은 다른 날로 미루는 게 좋겠군요."

브라운 신부는 어지러운 상태로 끌려나와,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자동차 쪽으로 이끌려 갔다. 차 안에는 어지럽게 솟은 누런 머리카락과 초조하고 피로한 표정을 지닌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 그는 멀리서 신부를 부르며 자신을 피터 웨인이라고 소개했다. 신부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전에, 그는 이미 차에 실려 있었고, 도심을 지나 밖으로 나가는 길을 상당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는 이런 미국식 과감하고 실용적인 행동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다. 마치 용이 끄는 전차가 그를 동화 속 나라로 데려간 것 같아, 그는 완전히 당황한 기분에 휩싸였다.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는 웨인의 긴 독백과 드레이지의 짧은 말들을 통해, 코프틱 컵과 이미 그와 연결되어 있던 두 가지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다.

웨인에게는 크레이크라는 삼촌이 있었다. 크레이크의 파트너는 머턴이라는 사람이었다. 머턴은 컵을 소유해 온 부유한 사업가들 세 명 중 셋째였다.

첫 번째 소유자는 '구리왕' 타이투스 P. 트랜트였다. 그는 '대니얼 두움'이라는 이름으로 서명한 협박 편지를 받았다. 이 이름은 가명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리 인기 있는 인물은 아닐지언정 매우 유명한 인물이 된 듯했다. 로빈 후드와 잭 더 리퍼를 합친 듯한 존재였다.

그 편지 쓴 사람이 협박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곧 드러났다. 어느 날 아침, 트랜트 노인이 자신의 백합 연못에서 머리를 담그고 있는 채로 발견된 것이다. 단서라곤 전혀 없었다.

다행히 컵은 은행에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었다. 트랜트의 재산과 함께 컵도 그의 사촌 브라이언 호더에게 넘어갔다. 호더 역시 막대한 부를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익명의 적으로부터 또다시 협박을 받았다.

호더는 해안가 별장 근처 절벽 아래에서 죽어 있었다. 그 별장에서는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규모가 컸다. 컵은 다시금 도난을

피한 듯했지만, 충분한 양의 채권과 증권이 훔쳐져 호더의 재정 상황은 혼란에 빠졌다.

"브라이언 호더의 과부가 그의 귀중품 대부분을 팔아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브랜더 머턴은 그때 그 컵을 샀겠죠. 제가 그를 처음 알았을 때부터 그 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컵을 간직하는 게 그리 편한 일은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짐작 가시겠죠."

브라운 신부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머턴 씨가 그런 협박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럴 것 같군요." 드레이지 씨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신부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러자 안경을 낀 남자가 소리 없이 웃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 웃음은 새로 온 이에게 소름 끼치는 한기를 안겨주었다.

"확실합니다." 피터 웨인이 찡그리며 말했다. "그 편지들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오직 비서만이 그의 편지를 봅니다. 그가 사업 문제에는 매우 신중하고 입을 닫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큰 사업가라면 누구나 그래야 하죠. 하지만 저는 그가 편지를 보고 몹시 상심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심지어 비서가 보기 전에 이미 그 편지를 찢어 버리기도 했죠. 비서 자신도 이제 불안해하며, 누군가 노인을 노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요컨대, 이 일에 대해 약간의 조언을 구하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브라운 신부님의 명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

다. 비서가 저에게 즉시 머턴 저택으로 오셔서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마침내 이 겉보기에 일어난 납치의 실마리가 그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신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은 현장에 계시고,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나 같은 길손보다 백 배는 많으실 테니까요."

"네, 그렇군요." 드레이지 씨가 건조하게 말했다. "우리의 결론은 너무 과학적이어서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타이투스 P. 트랜트처럼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과학적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 하늘에서 그대로 떨어졌을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것이죠."

"당신은 도대체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웨인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하지만 드레이지 씨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언제든 쉽게 알아맞히기는 불가능했다. 다만 그가 누군가를 '정말 똑똑한 놈'이라고 칭찬하면, 그건 대체로 '바보'라는 뜻일 가능성이 높았다.

드레이지 씨는 동양인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차가 분명히 목적지에 도착해 멈췄다. 그곳은 묘한 곳이었다.

그들은 나무가 드문드문 있는 시골길을 달려 넓은 평원으로 나왔다. 바로 앞에는 원형의 건물이 서 있었는데, 마치 로마의 군사 캠프처럼 둥글게 둘러쳐진 높은 울타리 하나뿐이었다. 외형은 비행장과도 비슷해 보였다.

울타리는 나무나 돌로 된 것 같지 않았다.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그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들은 모두 차에서 내려, 금고 열 듯 조심스럽게 벽의 작은 문을 열었다. 하지만 브라운 신부는 깜짝 놀랐다. 노먼 드레이지라는 남자는 들어갈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는 불길한 웃음을 지으며 그들과 작별을 고했다.

"저는 안 들어갈 테요." 그가 말했다. "그것은 노년기의 머턴 씨에게 너무 큰 기쁨의 충격이 될 테니까요. 그는 저를 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기쁨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해 사라졌다. 브라운 신부는 점점 커지는 의심을 안고, 그 뒤를 따라갔다. 강철로 된 문이 그의 등 뒤에서 즉시 '딸깍' 하며 닫혔다.

안으로 들어서자 눈앞에는 넓고 정교하게 가꾼 정원이 펼쳐졌다. 형형색색으로 화려했지만, 나무도 키 큰 관목도 꽃도 전혀 없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단아하면서도 눈길을 끄는 건축 양식의 건물이 우뚝 서 있었다. 하지만 건물이 너무 높고 가늘어서, 오히려 탑처럼 보였다.

건물 상단에는 유리 지붕에서 햇살이 번쩍이는 곳이 여기저기 보였다. 하지만 하층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는 듯했다. 모든 것이 미국 특유의 맑은 공기와 어울릴 듯이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 빛나고 있었다.

그들이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눈부신 대리석과 금속, 그리고 찬란한 색상의 에나멜로 둘러싸인 공간에 섰다. 하지만 계단은 없었다. 단단한 벽 사이에 한 줄기 승강기 샤프트만 중앙을 따라 위로 올라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 승강기 앞에는 평범한 옷을 입은 형사처럼 보이는 거구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보호 체계가 꽤 정교하죠." 웨인이 말했다. "브라운 신부님, 머턴이 정원에 숨을 나무 하나 없는 요새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살짝 웃으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나라에서 우리가 맞서고 있는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브랜더 머턴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이어갔다.

"그는 외관상으로는 매우 평범한 사내입니다. 거리에서 지나가다 보면 누구든 그를 그냥 지나칠 수 있을 정도죠. 다만 요즘은 그가 외부로 나가는 일이 드물어, 자주 마주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는 폐쇄된 차량으로만 간간이 외출할 뿐이니까요."

웨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만약 브랜더 머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알래스카부터 식인도들까지 전 세계가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칠 것입니다. 저는 그가 그토록 강

력한 국가적 영향력을 가진 군주나 황제보다 더 큰 힘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차르나 영국 국왕을 방문하라는 제안을 받았다면, 호기심에라도 그들을 만나러 갔을 것입니다. 신부님께서는 차르나 백만장자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런 막대한 권력 자체는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머턴 같은 현대적 군주를 방문하는 것이 신부님의 신념에 위배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전혀 아닙니다." 브라운 신부는 고요하게 말했다. "저는 수감자와 포로가 된 불쌍한 모든 이들을 방문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젊은이의 마른 얼굴에 기이하고 거의 떳떳지 못한 듯한 표정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에게 적대적인 건 평범한 악당이나 블랙 핸드 같은 조직만은 아닙니다. 이 대니얼 두움은 마귀와도 같습니다. 트랜트를 자신의 정원에서, 호더를 그의 집 밖에서 처치해 버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도망친 걸 보십시오."

저택의 최상층은 두꺼운 벽 안에 두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들이 들어온 바깥방과, 거대한 재벌의 성역인 안방이 그곳이었다.

그들이 바깥방으로 들어서던 순간, 안방에서 두 명의 손님이 나오고 있었다. 한 명은 피터 웨인이 삼촌이라고 부르는 인물이었다. 머리를

깎아 대머리처럼 보이지만 몸은 작고 건장하며 활동적이었다. 얼굴은 갈색이었고, 하얗게 변할 일이 없을 정도로 짙은 색이었다.

그는 늙은 크레이크였다. 흔히 '히코리 크레이크'라고 불렸다. 더 유명한 '올드 히코리'를 떠올리게 하기 위한 이름이었다. 마지막 인디언 전쟁에서의 명성 때문이었다.

그의 동반자는 사뭇 달랐다. 매우 단정한 신사의 모습이었다. 머리는 검은 광택이 났고, 단안경에는 넓은 검은 리본이 달려 있었다. 바나드 블레이크였다. 그는 머턴 영감의 변호사였으며, 파트너들과 회사의 일을 논의 중이었다.

네 남자는 바깥방 중간에서 마주쳤다. 잠시 예의 바른 대화를 나누며 서로 오가는 행동을 멈췄다.

그런 오가는 사람들 틈새에서, 또 다른 인물이 안문 근처 방 뒤쪽에 앉아 있었다. 안창문에서 들어오는 반쯤 어두운 빛 속에, 그는 거구로 움직이지 않았다. 검은 피부에 거대한 어깨를 가진 남자였다.

그는 유머러스한 미국의 자기 비판이 장난스럽게 '나쁜 놈'이라 부르는 존재였다. 친구들은 그를 호위병이라 부르고, 적들은 그를 자객이라 불렀다.

그 남자는 누구를 만나도 움직이거나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외실(outer room)에 나타난 모습을 본 순간, 피터 웨인은 처음부터 신경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있나?” 그가 물었다.

“겁내지 마라, 피터.” 삼촌이 킥킥 웃으며 말했다. “비서 윌턴이 함께 있으니, 그 정도면 누구에게나 충분할 거야. 나는 윌턴이 머턴을 감시하다 보니 잠을 거의 안 자는 것 같아. 그는 경호원 스무 명보다 낫지. 게다가 인디언처럼 민첩하고 조용하니까.”

“자네는 잘 알겠지.” 조카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어릴 적, 자네가 내게 가르쳐 주던 레드 인디언의 요령을 잊지 못했어. 그 시절 나는 레드 인디언 이야기책을 좋아했거든. 하지만 내 이야기 속의 레드 인디언들은 늘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지.”

"실제론 그렇지 않았지." 늙은 개척자가 차갑게 말했다.

“정말요?” 평범해 보이는 블레이크 씨가 물었다. “우리 총기 앞에서는 그들이 별다른 짓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인디언 한 명이 성채 꼭대기에 서 있는 백인 한 명을 죽인 적이 있어요.” 크레이크가 말했다. “그때는 총백발을 겨누고 있었지만, 인디언은 작은 스컬핑 나이프 하나만 들고 있었죠.”

“아니, 그걸로 뭘 했죠?” 다른 한 사람이 물었다.

“던졌습니다,” 크레이크가 대답했다. “총알이 발사되기 전에, 순식간에 던져버렸죠. 그 요령을 어디서 배웠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음, 네가 그걸 배운 건 아니겠지?" 조카가 웃으며 말했다.

브라운 신부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이 이야기에는 교훈이 하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나누는 사이, 내실(inner room)에서 윌턴 비서가 나와 서 있었다. 그는 창백하고 금발의 사내로, 각진 턱과 단호한 눈매를 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개처럼 날카로웠다. 경비견이 가진 그 특유의 한눈팔지 않는 태도를 지녔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지 않았다.

"머튼 씨가 10분 정도 후에 뵙겠습니다."

그 말만 들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수군거림을 나누던 무리는 흩어졌다.

오래된 크레이크 씨는 이제 가야겠다고 말했다. 그의 조카는 법률 고문과 함께 그를 모시고 나갔다. 잠시 동안 브라운 신부는 비서와 둘이 남게 되었다. 방 끝쪽에 있는 흑인 거인은 인간이나 살아 있는 존재로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넓은 등을 그들에게로 향한 채, 안쪽 방을 응시한 채 움직이지도 않았다.

"조치가 좀 과잉인 것 같습니다." 비서가 말했다. "다니엘 두움에 대해선 다들 들으셨겠지요. 보스를 혼자 두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 거예요."

"지금 그분은 혼자이시죠?" 브라운 신부가 물었다.

비서에게서 진지한 회색 눈빛이 그를 향했다.

"열다섯 분입니다."

비서가 말했다.

"하루 스물네 시간 중 단 열다섯 분. 그가 누리는 진정한 고독은 그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간을 고수합니다. 꽤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문자가 물었다.

비서 윌턴은 여전히 차분한 시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의 입매는 단순히 진지했던 것을 넘어, 차갑게 굳어 있었다.

"코프틱 컵 말입니다. 아마 그건 잊으셨겠지만,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건 물론이고 다른 어떤 것도요. 그는 우리 누구도 코프틱 컵을 믿지 않습니다. 그 컵은 방 안 어딘가, 어떤 방식으로든 잠겨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찾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물러날 때까지는 꺼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가 그 컵을 받들고 경배하는 그 15분 동안, 우리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 그게 그가 하는 유일한 경배일 겁니다.

사실 큰 위험은 없습니다. 제가 이 곳 전체를 함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악마 자신도 들어갈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빠져나갈 수는 없겠죠. 만약 그 지옥 같은 다니엘 두움이 찾아온다면, 그는 저녁식사와 그 이후의 시간까지 머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두고 말입니다. 저는 이 뜨거운 벽돌 위에서 15분을 기다립니다. 총성이나 몸부림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이 버튼을 누를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 충격

전류가 정원 벽을 따라 고리처럼 흐를 테니까요. 그러면 그 벽을 넘거나 오르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물론 총성이 날 리 없습니다. 이곳은 유일한 진입로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앉아 있는 유일한 창문은 매끄러운 기름칠한 기둥처럼 매끄러운 탑 꼭대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두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움이 그 방에 들어간다면,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죽게 될 테니까요."

브라운 신부는 카펫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마치 무언가에 찔린 듯 몸을 움찔하며 말했다.

"말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방금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윌턴이 말했다. "그럼 저는요?"

"당신은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힌 분인 것 같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생각이 브랜더 머튼을 방어하는 것보다, 다니엘 두움을 잡는 데 더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윌턴이 살짝 놀라며 동료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점점 느리게, 그의 굳은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당신은 어떻게…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물었다.

"총소리가 들리면 도망치는 상대를 즉각 전기로 제압할 수 있다고 하셨죠." 사제가 말했다. "그런데 그 총격이 적을 감전사시키기 전에, 오히려 당신의 고용주를 죽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셨나요? 당신이 머턴 씨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보호가 당신의 생각에서는 조금 뒤로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장치는 매우 정교하게 꾸며져 있고,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더 세밀하게 다듬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장치는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살인자를 잡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브라운 신부," 비서가 다시 차분한 어조를 되찾으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영리하십니다. 하지만 영리함 너머의 무언가가 더 있군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당신이라면 진실을 말하고 싶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게다가 어쨌든 곧 들으실 테니까요. 이미 제게는 한 가지 장난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이 거물 사기범을 잡는 데 집착하는 광신자라고들 말합니다. 아마도 맞겠죠. 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 풀네임은 존 윌턴 보더입니다."

브라운 신부는 모든 것이 명백해진 듯 고개를 끄덕였으나, 상대방은 계속 말을 이었다.

"두움이라고 자칭하는 놈이 내 아버지와 삼촌을 죽이고, 어머니를 망쳤어."

“머턴이 비서를 구할 때, 나는 그 일을 맡았지. 컵이 있는 곳에는 범죄자도 언젠가 나타날 테니까. 하지만 내가 범인이 누군지 알 리 없었다. 그저 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뿐이었어. 그리고 나는 머턴에게 성실히 봉사할 생각이었지.”

“알겠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런데, 이제 그분께 다녀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윌턴이 대답했다. 그는 골똘한 생각에서 깨어난 듯 몸을 움찔했다. 그 모습에 신부는 그의 악의가 다시 그를 집어삼켰다고 생각했다. “지금 들어가십시오.”

브라운 신부는 망설임 없이 안방으로 들어섰다. 인사 소리도, 대답도 없었다. 오직 죽은 듯한 고요함만이 그를 맞았다. 잠시 후, 신부는 다시 문턱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문가에 묵묵히 앉아 있던 호위 요원이 갑자기 움직였다. 마치 거대한 가구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신부의 자세 어딘가가 신호인 듯했다. 그의 머리는 안쪽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을 등지고 있었고, 얼굴은 그림자에 잠겨 있었다.

“그 버튼 누르시겠군요.” 그는 한숨 섞인 어조로 말했다.

윌턴은 맹수처럼 깊은 사색에 잠겨 있다가, 갑자기 눈을 뜨며 벌떡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총격은 없었어." 그가 외쳤다.

"글쎄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총격'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에 달려 있죠."

윌튼이 앞장서서 달려나갔다. 두 사람은 안방으로 함께 들어섰다. 방은 크지 않았지만, 소박하면서도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다. 그들 정면에는 넓은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정원과 나무가 우거진 평야가 내려다보였다. 창문 바로 앞에는 의자와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다. 마치 그 포로가 잠시 누린 고독의 사치 동안, 자신에게 허용된 최대한의 공기와 빛을 원했던 것처럼 보였다.

창문 아래 작은 탁자 위에는 콥트 컵이 놓여 있었다. 주인은 분명히 가장 빛이 좋은 곳에서 그것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컵은 충분히 볼 만했다. 하얗고 선명한 낮빛이 보석들을 다채로운 불꽃으로 물들였기 때문이다. 마치 성배의 모형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하지만 브랜더 머턴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리는 의자 등받이 위로 뒤로 젖혀졌고, 하얀 머리카락은 바닥을 향해 늘어졌다. 회색이 섞인 수염 끝은 천장을 향해 뾰족하게 솟아올랐다. 그의 목구멍에서는 긴 갈색의 화살이 삐져나와 있었다. 화살의 반대쪽 끝에는 붉은 가죽 끈이 달려 있었다.

"고요한 총성이군요." 브라운 신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총기 소음을 줄이는 최신 발명품들을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오래된 발명품이지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조용합니다."

잠시 후, 그가 덧붙였다. “안타깝지만, 그는 죽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창백한 비서에게서 갑작스러운 결의가 피어올랐다.

“물론 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만약 그걸로 다니얼 둠을 잡지 못한다 해도, 저는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 말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소.”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들 역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을 테니, 부르는 게 좋겠소.”

“그 애들은 벽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윌턴이 말했다. “누구도 그 벽을 넘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한 명이라도…… 정말 급한 사람이 아니라면요.”

브라운 신부는 화살이 분명히 들어왔을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평평한 화단들이 있는 정원은 멀리 아래에 펼쳐져 있어 마치 세상의 섬세하게 색칠된 지도처럼 보였다. 전체적인 풍경은 너무 넓고 공허해 보였고, 탑은 하늘에 너무 멀리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이상한 구절이 그의 기억 속에서 떠올랐다.

"하늘이 갈라지며 떨어지는 번개와도 같군." 그가 말했다. "하늘에서 죽음이 내려온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이었지? 사방으로 사물이 멀리 떨어져 보이는 걸 봐라. 하늘에서 내려온 화살이 아니라면, 어찌 저토록 먼 거리에서 날아올 수 있겠는가?"

윌턴은 돌아왔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신부는 혼자 중얼거리듯 말을 이었다.

"사람은 항공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젊은 웨인에게 항공에 대해 물어봐야겠군요."

"주변에 그런 게 많아요." 비서가 말했다.

"매우 오래되거나 매우 새로운 무기 사건이군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의 늙은 삼촌이라면 익숙한 것도 있겠지요. 활에 대해서는 꼭 물어봐야 합니다. 이건 좀 레드 인디언의 화살처럼 보이네요. 레드 인디언이 어디서 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이야기에는 교훈이 있다고 말했죠."

"만약 이 이야기에 교훈이 있다면," 윌턴이 열을 올리며 말했다. "그건 진짜 인디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사물을 쏠 수 있다는 정도일 뿐이야. 둘을 같은 일로 엮으려는 건 터무니없는 소리야."

"그 교훈을 정확히 이해하신 것 같지는 않군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다음 날, 작은 신부는 뉴욕의 수백만 인파 속에 스며든 듯했다. 번호가 매겨진 거리에서 그저 한 숫자에 불과한 것처럼, 겉으로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이보름 동안 주어진 임무에 조용히 몰두하고 있었다. 부당한 재판이 이뤄질까 봐 깊은 두려움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새 친구들처럼 그들을 특별히 지목하는 기색은 없었지만, 최근 미스터리 사건에 연루된 두세 명의 남성과 쉽게 수다를 떨 수 있었다. 특히 늙은 히코리 크레이크와의 대화는 묘하고 흥미로웠다.

대화는 센트럴 파크의 벤치에서 열렸다. 노인은 짙은 붉은색 지팡이 머리 위에 뼈처럼 앙상한 손과 도끼 모양의 얼굴을 괴고 앉아 있었다. 그 지팡이 머리는 아마도 토마호크를 본뜬 모양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먼 길일 테지만,"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인디언 화살이 얼마나 멀리 날아갈지, 너무 단정 짓지는 말기를 권한다. 나는 총알보다 더 똑바로 날아가는 활쏘기를 본 적이 있다. 멀리 날아갈수록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과녁을 맞추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요즘은 활과 화살을 든 레드 인디언을 거의 볼 수 없다. 더구나 이런 근처에 레드 인디언이 배회한다는 이야기는 더욱 드물다. 하지만 만약에, 머튼 외벽 너머 수백 야드 떨어진 나무들 뒤에 숨어 있는, 옛날의 명사수 인디언이 옛날의 활을 들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고귀한 야만인이 벽을 넘어 머튼의 집 꼭대기 창문으로 화살을 보내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아니, 머튼 본인에게도 날릴 수 있다. 나는 옛날에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본 적이 있다."

"물론이죠." 사제가 말했다. "당신도 그런 놀라운 일을 직접 해보셨을 뿐 아니라, 목격하신 적도 있으실 테니까."

늙은 크레이크는 낮게 낄낄 웃더니,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건 다 옛날 이야기야."

"어떤 이들은 그 옛날 이야기를 곧잘 파헤치곤 하지요." 사제가 말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의 그 오래된 기록이,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불쾌한 소문을 퍼뜨리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건 아니겠지요?"

"무슨 뜻이오?" 크레이크가 물었다. 그의 붉고 나무결 같은 얼굴에서 눈동자가 처음으로 날카롭게 움직였다. 그의 얼굴은 마치 도끼 머리처럼 생겼다.

"자, 당신이 인디언의 모든 재주와 기술에 그렇게 정통하시다면……" 브라운 신부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크레이크는 턱을 이상하게 생긴 지팡이에 기대어 앉았다. 그 모습은 굽어 있고, 거의 위축되어 보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길 위에 곧게 서 있었다. 지팡이를 몽둥이처럼 꽉 쥐고선, 싸움에 익숙한 난폭한 자처럼 보였다.

"뭐?" 그는 거친 비명 같은 소리로 외쳤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내 앞에 서서, 내가 내 매부를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거냐?"

길가에 흩어진 열두어 곳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논쟁 중인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길 한가운데서 마주 선 두 사람. 대머리에 활기찬 작은 남자는 기이한 지팡이를 몽둥이처럼 휘두르고 있었고, 검은색 옷을 입은 뚱뚱한 신부는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눈꺼풀만 깜빡일 뿐이었다.

잠시 후, 그 검은색 뚱뚱한 형상이 머리를 맞고 쓰러질 것처럼 보였다. 마치 정통 레드 인디언처럼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멀리서 아일랜드인 경찰의 거대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는 무리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러나 사제는 단지 평정심을 잃지 않은 채, 마치 일상적인 질문에 답하듯 말했다.

"저는 이에 대해 몇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경찰의 발소리든, 신부의 시선 때문이든, 노신사 히코리는 주저하며 지팡이를 팔에 끼고는 다시 모자를 쓰며 중얼거렸다. 신부는 평온하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는 걸음으로 공원을 빠져나갔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호텔 라운지로 향했다. 그곳에서 젊은 웨인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젊은 남자는 인사를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모습은 이전보다 더 피로하고 초췌해 보였다. 어떤 근심이 그를 갉아먹고 있는 듯했다. 신부는 젊은 친구가 최근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중 마지막 것에

대한 회피에 성공했으리라는 의심을 품었다. 그 성공은 너무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취미이자 가장 좋아하는 과학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는 즉시 경계심을 세우고 집중했다.

브라운 신부는 가볍고 대화하듯 물었다. 그 지역에서 비행기가 많이 오가느냐고. 그리고 머턴 씨의 원형 벽을 처음에는 비행장으로 착각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거기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못하신 게 신기할 따름이군요." 웨인 대위가 말했다. "때때로 그들은 파리와 같이 많이 날아다닙니다. 그 넓은 평원은 새들이 아주 좋아하는 곳이지요. 내 생각엔 그곳이 앞으로 제 같은 조류들의 주요 번식지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저도 그곳에서 많이 날아다녔고, 이곳 근처에서 전쟁 때 날았던 동료들의 대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서는 제가 평생 동안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비행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곧 자동차 운전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모든 남자가 하나씩 가질 날이 올 것입니다."

"창조주가 그에게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자동차 운전과 항공기 조종까지 추구할 권리를 부여하셨으니," 브라운 신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 특정 시간에 그 집 위를 지나가는 이상한 비행기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추론은 어렵지 않겠소."

"아니요." 젊은이가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졌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이어 말했다. "자신 것이 아닌 비행기를 구해 탈 수 있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평소처럼 날아간다면 머턴 씨와 그의 친구들은 기체의 모양을 보고 당신을 알아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비행기를 타고 그 창문 근처를 지나간다면요. 실용적인 목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충분히 가까울 수 있습니다."

"글쎄, 맞긴 하지만요." 젊은이가 거의 본능적으로 입을 열었다가, 이내 말을 멈췄다. 그는 신부를 향해 입을 벌린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주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주님!"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신부를 응시하고 있었다.

"당신 미친 거요? 정말 미친 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그가 다시 말을 잇는다. 속삭이듯, 그러나 날카롭게.

"당신은 정녕 여기까지 와서 이런 제안을 하러 온 겁니까—"

"아니요, 그저 제안을 모으기 위해요." 브라운 신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잠정적으로 몇 가지 결론을 내렸지만, 지금은 그것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다른 이에게도 같은 딱딱한 예의를 표하며, 호텔을 나서 그의 기이한 유람을 계속했다.

노먼 드레이지 씨는 여전히 거대한 안경 너머로 냉정하게 세상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안경은 마치 어두운 유리 안개처럼 그의 얼굴을 온전히 감싸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안경만 빼면, 살인 사건 이후 한 달이 흐르는 사이 그의 외모는 기이하게 변해 있었다.

브라운 신부가 기억하기로는, 그때의 드레이지 씨는 말 그대로 '옷을 단장'했다. 그 정도면 정장 가게 창문에 걸린 인형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외관이 묘하게도 나빠졌다. 마치 정장 가게 인형이 허수아비로 변해버린 듯했다.

그의 탑햇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찌그러지고 낡아 있었다. 옷은 초라해졌고, 시계 사슬과 작은 장신구들도 모두 사라졌다.

브라운 신부는 마치 어제라도 만난 사람처럼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가 목적지로 향하던 값싼 식당 벤치에 함께 앉는 것도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화를 시작한 쪽은 드레이지 씨가 아니었다.

"그래?" 드레이지가 으르렁거렸다. "네가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백만장자의 원수를 갚았다는 말이야? 우리는 백만장자들이 모두 거룩하고 성스럽다는 걸 알고 있어. 다음 날 신문에서 그들의 생애를 보면, 어머니 무릎에 앉아 가족성경을 읽으며 살았다고 나오거든. 음, 만약 그들이 가족성경에 적힌 그 어떤 것들을 소리 내어 읽었더라면, 어머니는 깜짝 놀랐을지도 몰라. 백만장자도 마찬가지였겠지. 그 오래된 성경에

는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힘든 위엄 있고 거친 옛 개념들이 가득하니까. 마치 석기 시대의 지혜처럼, 피라미드 아래에 묻혀버린 것처럼."

"누군가 노인 머턴을 그 탑 꼭대기에서 밀어 떨어뜨려, 바닥에서 개들에게 뜯겨 먹게 했다면, 그것은 이세벨이 당한 일보다 나쁘지 않았을 거야. 아가그가 우아하게 걷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은 조각들로 찢겨졌잖아. 머턴은 평생을 우아하게 걸었지. 빌어먹을, 결국엔 너무 연약해져 아예 걷지도 못하게 될 때까지 말이야. 하지만 주님의 화살이 그를 찾아냈어. 오래된 성경에 적힌 것처럼, 그는 탑 꼭대기에서 즉사했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표적이 되었지."

"적어도 그 화살은 실재하는 것이었지." 동료가 말했다.

안경 낀 남자가 비웃듯 웃었다.

"피라미드는 정말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졌지. 죽은 왕들을 제대로 눌러두고 있어. 나는 이런 오래된 물질 중심의 종교에도 장점이 있다고 봐. 수천 년을 버틴 오래된 조각들이 있거든. 신들과 황제들이 활을 당긴 모습을, 그리고 돌로 된 활도 당길 수 있을 것 같은 손을 새겨 놓았지. 물질적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 재료들이 무엇이길래! 가끔 그 오래된 동양의 문양들을 멍하니 바라보다 보면, 옛 주님이 여전히 어둠의 아폴로처럼 조종하고, 죽음의 검은 빛살을 쏘아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렇다면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겠군요." 브라운 신부가 답했다. "하지만 머턴이 검은 빛에 죽은 것도, 돌화살에 맞은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가 성 세바스티아노라고 생각하나 보군." 드레이지가 비웃듯 말했다. "화살을 맞아 죽다니. 백만장자라면 순교자쯤 돼야 할까."

"그가 그 죽음을 마땅히 받을 만했는지, 당신은 정말 잘 모르는 모양이군."

드레이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자, 내가 말해 주마. 그는 그 죽음을 백 번은 더 받을 만한 자였어."

"브라운 신부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런데 왜 그를 죽이지 않았소?'"

"왜 안 했느냐고 묻는 거야?" 다른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참, 좋은 신부군."

"전혀 아닙니다." 다른 한 사람이 겸손한 듯 손을 저으며 말했다.

"내가 그랬다는 거지?" 드레이지가 이를 갈며 말했다. "좋아, 증명해 봐. 그게 다야. 저자에 대해서는, 내가 봐도 그는 사라진 게 손해랄 게 없었어."

"맞아요." 브라운 신부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는 당신에게 큰 손실이었죠. 그래서 당신이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는 방을 나섰다. 안경을 낀 남자는 그가 나간 쪽을 향해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브라운 신부가 다니엘 두의 복수로 인해 세 번째 백만장자가 희생된 집을 다시 찾은 것은 거의 한 달 뒤였다. 가장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 모여 소위 '회의'를 열었다.

테이블 맨 앞에는 올드 크레이크가 앉아 있었고, 그의 오른쪽에는 조카가, 왼쪽에는 변호사가 자리했다. 아프리카계 특징을 가진 큰 키의 남자 해리스는, 비록 단지 물증으로서만 참석했을 뿐이지만 무겁고 장중한 모습으로 자리에 있었다. 붉은 머리에 날카로운 코를 가진 디크슨이라는 남자는 핑커튼이나 이와 유사한 민간 기관의 대표자로 보였다. 브라운 신부는 그 옆의 빈자리에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전 세계의 모든 신문이 거대한 금융의 괴수, 현대 세계를 장악한 거대 기업들의 조직자였던 그의 최후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가 죽음을 맞던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그 사건의 실체에 대해 별다른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의 삼촌과 조카, 그리고 동행했던 변호사는 경보가 울리기 전에 이미 외벽 바깥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두 개의 관문에서 근무하던 공식 경비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답변은 다소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고려해 볼 만한 또 다른 복잡한 요소가 하나 있었다. 사망 시간과 맞물려, 그 전후 어느 시점에 낯선 한 남자가 입구 근처에서 기묘하

게 서성이다가 미스터 머턴을 만나고 싶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인들은 그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의 말이 매우 난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한 마디의 말에 의해 악한 자가 파괴되었다는 식의 말을 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간주되었다.

피터 웨인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쇠약해진 얼굴에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어쨌든 그건 내 승부야. 노먼 드레이지.”

"도대체 노먼 드레이지가 누구란 말인가?" 삼촌이 물었다.

“그게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젊은이가 대답했다. “사실 저는 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질문도 비틀어 돌려버리는 묘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마치 펜싱 선수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그의 말은 곧은 질문을 꺾어버렸죠. 그는 미래의 비행선에 대한 암시를 던지며 저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그리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대체 어떤 성격이죠?” 크레이크가 물었다.

"그는 신비주의자입니다." 브라운 신부는 순진한 듯 즉답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파리의 카페나 카바레에서 당신에게 이시스 신비의 베일을 벗겨냈다고 암시하거나, 스톤헨지의 비밀을 안다고 떠드는, 도시의 그런 남성들을 말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그들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신비로운 설명을 늘어놓기 마련입니다."

법률가 바나드 블레이크의 매끄럽고 어두운 머리가 화자에게 정중하게 기울어졌다. 그러나 그의 미소는 미묘하게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신부님, 설마 신비주의적 설명과 무슨 원한이 있으시리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브라운 신부가 다정하게 눈을 굴리며 말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저는 그들과 논쟁할 수 있습니다. 가짜 변호사라면 누구나 저를 속일 수 있겠지만, 당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당신도 변호사이니까요. 바보라면 누구나 붉은 피부의 인디언 분장을 할 수 있고, 저는 유일한 하위와타로 그를 믿고 말았겠지만, 크레이크 씨는 그 속임수를 단번에 간파했을 겁니다. 사기꾼은 저에게 비행기에 대해 잘 안다고 거짓말할 수 있겠지만, 웨인 선장에게는 그럴 수 없죠.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제가 신비주의자에 대해 조금 알아두었기 때문에,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비주의자들은 신비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냅니다. 그들은 사물을 햇빛 아래 드러내어, 당신이 그것을 본 뒤에도 여전히 그것은 신비로 남게 만듭니다. 반면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자들은 사물을 어둠과 비밀 속에 숨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찾아냈을 때, 그것은 평범한 상식에 불과합니다."

브라운 신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덧붙였다. "하지만 드레이지의 경우,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나 번개 같은 말을 할 때 또 다른, 더 실용적인 의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했단 말인가?” 웨인이 물었다. “어쨌든 그건 주시해야 해. 그게 무엇이든.”

"그는 살인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게 하려 했소," 신부가 천천히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오."

“아,” 웨인이 쉭쉭거리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 “그걸 기다리고 있었네. 평범한 말로 하자면, 그자가 범인이야.”

“간단히 말해, 그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범인인 자입니다.” 브라운 신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게 평범한 단어란 말씀이오?” 블레이크가 정중하게 물었다.

“이제 제가 신비주의자라 하시는군요.” 브라운 신부가 약간 당황한 듯하면서도 넓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정말 우연이었어요. 드레이지가 이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니에요. 그가 저지른 유일한 죄는 누군가를 협박한 것뿐이죠. 그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거나, 자신의 생이 죽음으로 갑자기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일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죠. 지금 당장은 그가 여기서 사라지길 바랄 뿐이에요.”

“무엇을 피하라는 말씀이오?” 다른 한 사람이 물었다.

"진리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죠." 신부는 차분하게, 눈꺼풀을 평평하게 내려뜨린 채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 당신이 진실을 아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겸손하게 말했다.

순간 정적이 찾아왔다. 그러자 크레이크가 갑자기, 그리고 전혀 관련 없는 말을 쉰 목소리로 외쳤다.

"왜, 그 비서 아저씨는 어디 갔지? 윌턴! 그는 여기 있어야 해."

"저는 윌턴 씨와 연락 중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진지하게 말했다. "사실, 제가 그에게 몇 분 안에 이리로 전화를 걸라고 부탁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 일을 함께 풀어낸 셈이지요."

"너희가 함께 일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이 괜찮겠지." 크레이크가 투덜거렸다. "그는 사라진 도둑을 쫓는 데 있어 늘 추적견처럼 집요하게 쫓았으니까. 아마도 그와 함께 쌍으로 사냥하는 게 더 나았을 거야. 하지만 만약 네가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다면, 대체 어디서 그걸 얻어낸 거지?"

"그건 당신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신부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베테랑을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제가 말하려는 건, 당신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속의 한 단서에서 첫 추리를 시

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서는 한 인디언이 칼을 던져 요새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맞혔죠."

"그 말씀 여러 번 하셨네요." 웨인이 의아한 듯 말했다. "하지만 추론은 뭘까요? 이 살인자가 화살을 던져 성채처럼 생긴 집 지붕 위에 있는 남자를 맞혔다는 거죠. 물론 화살은 던진 게 아니라 쏜 거고,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멀리 날아갔죠.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어떤 단서가 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셨군요, 신부님."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무언가가 한쪽 방향으로 멀리 갈 수 있다고 해서, 다른 무언가가 그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도구를 잘못 쓰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다.

"크레이크의 요새에 있던 병사들은 칼을 손에 쥐고 싸우는 무기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처럼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었죠. 반면 제게 알려진 어떤 이들은 어떤 물건을 창처럼 던지는 무기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손에 쥐고 창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은 거죠."

"요약하자면,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단도가 화살이 될 수 있듯, 화살도 단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담담하고 무심한 어조를 유지했다.

"창문을 뚫고 들어온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멀리서 날아온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처음에 많이 궁금해하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화살을 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화살은 창문을 통해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거기까지 갔죠?" 가무잡잡한 변호사가 다소 험상궂은 표정으로 물었다.

"누군가 그것을 가져왔겠죠. 들고 숨기기 어렵지 않은 크기였을 테니까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누군가 머턴이 자신의 방에 서 있을 때, 그걸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포인야드처럼 머턴의 목구멍에 밀어 넣었죠. 그러고는 아주 영리한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어요. 전체 장치를 아주 특정한 위치와 각도로 배치해, 우리가 순식간에 그것이 새처럼 창문을 통해 날아들어왔다고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누군가," 노년 크레이크의 목소리는 돌처럼 무거웠다.

전화기가 날카롭고도 끔찍할 정도로 강요하는 소리로 울려 퍼졌다. 전화기는 옆 방에 있었는데, 브라운 신부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그곳으로 달려갔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피터 웨인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그는 완전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윌턴 비서가 전화를 걸 거라고 했지." 삼촌은 여전히 죽은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윌턴이겠지?" 변호사가 침묵을 깨기 위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브라운 신부가 갑자기,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나타나 대답을 대신했다.

"신사 여러분," 그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여러분이 이 수수께끼의 진실을 파헤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제 진실을 찾았으니, 충격이 덜하도록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런 일에 코를 집어넣는 사람은 누구든, 사람을 가리지 않는 냉혹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 중 누군가가 죄를 뒤집어쓰거나, 의심받고 있다는 뜻이겠지." 크레이크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우리 모두 의심받는 상태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대답했다. "제가 시신을 발견했으니 저 자신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심받는 거지." 웨인이 날카롭게 잘라 말했다. "브라운 신부가 제게 비행기로 탑을 포위할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아닙니다." 신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그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셨죠. 바로 그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내가 직접 붉은 인디언 화살로 그자를 죽였을 거라고 여기는 듯했단 말이야." 크레이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가장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약간 찡그린 얼굴로 말했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 일을 검증할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살해가 자행되던 바로 그 순간, 웨인 대위가 거대한 기계에 몸을 싣고 창문 앞을 지나갔는데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생각보다 더 터무니없는 상상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수풀 뒤에서 활과 화살을 들고 레드 인디언 놀이를 하며, 스무 가지나 되는 훨씬 간단한 방법으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존경할 만한 노인의 모습일까요. 하지만 그들이 이 일에 연루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그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죄라는 걸 어떻게 증명했소?" 법조인 블레이크가 몸을 기울이며 재촉하듯 물었다.

“그들이 혐의를 받았을 때 보인 동요 때문이지요.” 다른 한 사람이 대답했다.

“정확히 무슨 뜻이십니까?”

“허락하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의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레이크 씨나 웨인 대위,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을요. 저는 그분들이 범인일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드린 적 있지요? 이제 그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무죄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의심받는다는 자각이 없던 상태에서 분노로 넘어가는 그 방식과 시기가 그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비난받는 줄 모른 채, 오히려 저를 비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계속 제공했습니다. 거의 직접적으로 어떻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셨죠.

그런데 갑자기, 분노의 외침과 함께 자신이 비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난받을 만도 한 시점보다 훨씬 늦게, 하지만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기 훨씬 전에 말입니다.

죄인이라면 절대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날카롭고 의심 많았을 수도 있고, 끝까지 의식을 잃은 척 무죄를 연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암시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먼저 상황을 악화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격렬하게 반박하는 행위는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오직 자신이 암시한 바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만 나올 수 있습니다. 살인자의 자의식은 항상 병적일 정도로 선명해서, 먼저 자신의 관계를 잊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부인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을 제외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각기 다른 이유로 제외했죠.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서라는 분이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 방금 윌턴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에게서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당신들에게 알려도 좋다는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쯤이면 모두 윌턴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노렸는지 알고 있겠죠.”

“그는 대니얼 두움을 쫓고 있었어요. 두움을 잡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요.” 피터 웨인이 대답했다. “그가 올드 호더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의 복수자가 된 거죠. 어쨌든 그는 분명히 두움이라는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음,"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가 그를 찾았군."

피터 웨인이 흥분한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살인자!’ 그가 외쳤다. ‘살인자는 이미 구치소에 들어갔나?’

“아닙니다.” 브라운 신부가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그 소식이 심각하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입니다. 불쌍한 윌턴이 끔찍한 책임을 짊어졌군요. 그리고 이제 그 끔찍한 책임을 우리 모두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그는 범죄자를 끝까지 쫓아붙였고, 마침내 그를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법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대니얼 두움을 말씀하시는군요.” 변호사가 말을 시작했다.

"대니얼 두움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사제가 말했다. "어떤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고, 윌턴이 그를 죽인 거죠."

"그는 마땅히 그런 대우를 받아." 히코리 크레이크 씨가 낮게 중얼거렸다.

웨인이 동의했다. "윌턴을 탓할 수는 없지. 그런 악당과 대립하고 있었으니, 마치 뱀을 밟는 것과 다름없었겠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우리는 모두 린치와 법의 공백을 옹호하는 변명으로 낭만적인 말을 무작위로 늘어놓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과 자유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게다가, 윌턴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론에 설득력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두움이 그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론에는 어떤 설득력이 있는지조차 조사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저는 두움이 단지 저속한 암살자였을 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는 성배에 대한 광기를 지닌 일종의 법외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협박으로 성배를 요구했고, 오직 싸움 끝에야 살인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두 피해자는 집 바로 바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윌턴의 방식에 대한 우리의 반대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두움의 변론을 결코 들어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런 감정적인 변명은 정말 견딜 수가 없소.” 웨인이 격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무가치하고 살인적인 악당들을 하얗게 칠하려는 이 모든 시도는 말이 안 되오. 윌턴이 범인을 처형했다면, 그는 훌륭한 하루를 보낸 셈이지. 그건 끝난 일이오.”

"그렇지, 그렇소." 삼촌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브라운 신부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진중함이 감돌았다. 그는 천천히 반원형으로 늘어선 얼굴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정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가 그렇게 묻는 순간, 그는 자신이 영국인이자 망명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비록 친구들 사이였지만, 그는 여전히 외국인들 속에 있었다.

그들을 둘러싼 고리에는 그의 혈통에는 없던, 그러나 격렬한 불꽃이 타올랐다. 반역하고, 린치를 가하고, 무엇보다도 단결할 수 있는 서구 민족의 더 거친 정신이었다.

그는 그들이 이미 단결해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음,” 브라운 신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불행한 남자의 죄, 혹은 사적 정의의 행위라든가, 당신이 부르는 다른 어떤 이름이든, 분명히 용인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제가 이것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려도 그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그의 동작에 어떤 의미도 읽지 못했지만,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언가 변하거나, 차갑게 얼어붙은 듯했다.

“윌턴은 좀 특이한 방식으로 둠을 죽였소.” 그가 입을 열었다.

“윌턴이 어떻게 그를 죽였습니까?” 크레이크가 갑자기 물었다.

"화살로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긴 방에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안방에 있는 커다란 창문 너머로만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 안방에서 부호는 죽었다.

모두의 시선이 거의 자동적으로, 그러나 천천히 그 창문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때 크레이크의 목소리가 쉰 채, 높고 노쇠한 닭 울음소리 같은 잡담으로 터져 나왔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죠? 브랜더 머턴이 화살에 맞아 죽었다니요. 이 도둑놈이 화살에 맞아 죽었다니—”

"같은 화살에, 같은 순간에." 신부가 말했다.

다시 한번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마치 목이 조여오르면서도, 동시에 부풀어 오르고 터질 듯이 무거웠다. 젊은 웨인이 입을 열었다.

“당신이 뜻하는 바는—”

“내 말은, 당신의 친구 머턴이 바로 다니엘 둠이라는 거요.” 브라운 신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다니엘 둠도 바로 그 사람이지요. 머턴은 늘 그 콥트 컵에 미쳐 있었어요. 그는 매일 그 컵을 우상처럼 숭배했죠. 그리고 젊은 날의 그는 그 컵을 얻기 위해 두 명의 남자를 죽이기도 했어요. 비록 나는 그 죽음들이 강도 행위의 과정에서 우연히 일어난 사고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그는 그 컵을 손에 넣었고, 드래그라는 남자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으며 그를 협박하고 있었죠. 하지만 윌턴은 아주 다른 목적으로 그를 쫓았어요. 나는 윌턴이 이 집에 들어와서야 진실을 깨달았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이 집, 그리고 그 방에서 이 사냥은 끝이 났고, 그는 아버지의 살인자를 죽였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테이블 위에서 손가락을 두드리며 중얼거리는 늙은 크레이크의 목소리가 들렸다.

“브랜더는 미쳤어. 그는 분명히 미쳤지.”

“세상에!” 피터 웨인이 소리쳤다. “우리가 뭘 해야 한다는 말인가? 뭐라고 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신문이나 대기업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브랜더 머턴은 대통령이나 로마 교황 같은 존재야.”

"확실히 꽤 다르다고 봅니다." 변호사 버나드 블레이크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 차이는 전부를 - "

브라운 신부가 탁자를 내리쳤다. 탁자 위의 잔들이 땡그랑 울렸다. 방 안 깊은 곳, 여전히 자리한 신비한 잔에서 귀신 같은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다.

“안 됩니다!” 그는 권총이 터지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차별은 없습니다. 그가 평범한 악당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당신에게 그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길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신은 사적인 복수만을 원했습니다. 그는 공정한 심문도, 공개 재판도 없이 야수처럼 도살당해도 마땅하다고 말하며, 그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 했습니다.

좋습니다. 만약 다니엘 둠이 응당한 대가를 치렀다면, 브랜더 머턴도 응당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것이 둠에게 충분했다면, 거룩한 것들의 이름으로 그것이 머턴에게도 충분해야 합니다. 당신의 야만적인 정의든, 우리의 지루한 합법성이든 취하십시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등한 불법주의든 동등한 법치든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법률가 외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으르렁거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범죄를 용서하려 한다고 경찰에게 말하면, 경찰은 뭐라고 할까?"

“내가 당신도 그걸 용인했다고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버나드 블레이크 씨, 당신의 법에 대한 존중은 좀 늦은 감이 있군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어조를 조금 누그러뜨리며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적어도, 적절한 당국이 묻는다면 진실을 말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 자유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윌턴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그의 자백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자유가 생겼다고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을 들으신 뒤에는, 그를 더 이상 쫓아갈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그는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섰다. 백만장자가 숨을 거둔 작은 탁자 곁에 서서, 잠시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콥트 잔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는 무지개빛이 어우러진 잔의 색채를 응시하다가, 그 너머로 푸른 하늘의 심연까지 시선을 보냈다.

세 번째 이야기: 개의 신탁

"네, 저는 개를 좋아합니다. 다만, 거꾸로 철자를 쓰지 않는다면요."

말은 빠르지만 귀는 느린 이들이 있다. 때로는 그 재치가 오히려 멍청함을 부른다. 브라운 신부의 친구이자 동행자는 젊은 남자였다. 그는 아이디어와 이야기를 쏟아내는 열정적인 청년, 피엔스였다. 그는 푸른 눈빛을 지녔고, 금발 머리는 빗으로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바람에 밀려난 듯 뒤로 넘겨져 있었다. 그는 세상 속을 질주하듯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잠시 동안 혼란스러워하며 말의 폭포수를 멈췄다. 그는 신부의 매우 단순한 의미를 보았을 때였다.

"사람들이 그걸 지나치게 과장한다고요?" 그가 물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들은 정말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가끔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브라운 신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거대한 리트리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어디선가 멀어진 듯했지만, 분명히 그 개를 달래주는 것이었다.

"아, 제가 오늘 뵈러 온 사건, 기억나시죠? '보이지 않는 살인 사건'이라 불리는 그 말입니다. 그 사건에는 개 한 마리가 등장했죠. 이야기 자체는 기이하지만, 제 눈에는 그 개가 가장 기묘한 존재로 보입니다. 물론 범행 자체의 미스터리, 특히 정자에 홀로 있던 늙은 드루스가 어떻게 다른 이에게 살해당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손이 강아지를 쓰다듬던 동작이 잠시 멈췄다. 브라운 신부는 차분하게 물었다. "아, 정자였군요?"

"신문에 다 실렸을 줄 알았소." 피엔스가 대답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가 관련 기사를 잘라둔 게 있을 것 같소."

그는 주머니에서 신문 기사 일부를 꺼내 신부에게 건넸다. 신부는 한 손으로 기사를 깜빡이는 눈 가까이 들고 읽기 시작했다. 다른 한 손으로는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개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른손이 왼손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비유 같았다.

요크셔 해안가 크랜스턴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들 속에서, 수많은 추리소설 속의 일들이 현실이 되었다. 문과 창문이 모두 잠긴 방 안에서 살해된 남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출입구가 전혀 없는 곳으로 범인이 사라지는 사건들 말이다.

드루스 대령이 등 뒤에서 칼에 찔려 죽은 채 발견된 곳. 그 칼은 사건 현장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그가 숨진 정자에는 실제로 한 곳의 출입구가 있었다. 정원의 중앙 길을 따라 집 쪽을 바라보는 평범한 정문이었다. 하지만 거의 우연이라 부를 만한 일련의 사건들이 겹쳐, 결정적인 시간 동안 그 길과 출입구는 감시되고 있었다. 서로를 확인시켜 주는 증인들도 줄지어 있다.

정자는 정원의 가장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그곳에는 어떤 출입구도 없다. 중앙 정원은 두 줄로 심은 키 큰 델피니움 사이에 놓인 좁은 길이었다. 식물이 너무 가까이 붙어 심겨 있어, 길에서 벗어난 발자국 하나라도 남기면 그 흔적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길과 식물은 정자의 입구 바로 앞까지 이어져 있었다. 따라서 그 직선 길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반드시 목격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진입 경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살해당한 남자의 비서 패트릭 플로이드는 진술했다. 드루스 대령이 마지막으로 생생한 모습으로 현관문에 모습을 보인 순간부터 그가 시체로 발견될 때까지, 그는 온 정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는 것이다. 플로이드는 그 시간 동안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 정원의 생울타리를 다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죽은 남자의 딸 재닛 드루스도 이를 뒷받침했다. 그녀는 그 내내 집 테라스에 앉아 있었고, 플로이드가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이 증언은 그녀의 오빠 도널드 드루스의 말과도 일치한다. 도널드는 늦게까지 자고 있어 늦게 일어났고, 드레스 가운 차림으로 침실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웃 의사 발랑탱과 대령의 변호사 오브리 트레일 씨의 진술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발랑탱 의사는 잠시 테라스에 들러 미스 드루스와 이야기를 나눴다. 트레일 씨는 대령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으로, 아마도 범인을 제외하고는 가장 마지막에 대령을 목격한 자일 것이다.

모두가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의했다. 오후 세 시 삼십 분쯤, 드루스 양이 아버지께 차를 언제 드릴지 여쭈러 다림길로 내려갔다. 하지만 아버지는 차는 원치 않는다고 했고, 여름 별장으로 보내질 예정인 자신의 변호사 트레일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 후 양은 되돌아 나왔고, 다림길을 내려오던 트레일과 마주쳤다. 양은 아버지를 찾아갈 방향을 알려주었고, 트레일은 그 대로 따라 들어갔다. 약 삼십 분 후, 트레일이 다시 나왔다. 대령도 함께 나와 문앞까지 배웅했다. 대령의 모습은 건강해 보였고, 심지어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다.

그날 이른 시간에 아들의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다소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이내 평범한 방식으로 기분을 회복한 듯했다. 다른 방문객들을 맞이할 때도 평소보다 유달리 친절했다. 그중에는 하루 종일 놀러 온 조카 두 명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 조카들은 비극이 발생한 전체 기간 동안 산책 중이었기에, 증언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 사실, 대령이 발랑탱 박사와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았다고는 한다. 하지만 발랑탱 신사는 집안 딸과 짧은 면담만 가졌을 뿐이었다. 그는 이 딸에게 진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트레일 변호사는 그날 오후, 대령이 여름 별장에 혼자 있었다고 증언했다. 플로이드가 정원을 위에서 내려다본 시선도 이 증언을 뒷받침했다. 유일한 출입구로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십 분 뒤, 드루스 양이 다시 정원으로 내려갔다. 길 끝까지 다다르기도 전에 그녀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흰 리넨 코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눈에 띄었다.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드루스 양은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로 달려왔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섰을 때, 대령은 뒤집어진 바구니 의자 곁에 죽어 누워 있었다.

당시 근처에 있던 발랑탱 박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상처는 스틸레토 같은 날카로운 무기로 입혀진 것이었다. 날이 어깨뼈 아래로 파고들어 심장을 관통했다고 한다.

경찰은 그 무기를 찾아 근방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단서 하나 찾지 못했다.

"드루스 대령이 하얀 코트를 입었단 말이오?" 브라운 신부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열대 지방에서 배운 술수였군요." 피네스가 신기한 듯 대답했다.

그는 그곳에서 묘한 모험을 겪었다고 스스로 말하곤 했다. 그리고 나는 그와 발랑탱 사이의 불화가, 발랑탱 역시 열대 지방 출신의 의사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 일은 정말 미궁 속의 일이다.

현장 기록은 꽤 정확하다. 나는 비극의 발견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젊은 조카들과 개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개에 대해 말씀드리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비극이 펼쳐질 무대가 어떻게 차려졌는지를 보았다. 파란 꽃들 사이로 곧게 뻗은 길, 그리고 어두운 입구까지 이어진 그 길. 검은 복장에 실크 모자를 쓴 변호사가 그 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녹색 울타리 위에서 가위를 들고 일하는 비서의 붉은 머리가 높이 솟아 보였다.

그 붉은 머리는 먼 거리에서도 누구든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만약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 머리가 항상 있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보았다고 믿어도 좋다.

빨간 머리의 비서 플로이드는 제법 특이한 인물이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경쾌하게 뛰어다니는 타입이었다. 그는 정원사의 일까지도 마치 자신의 일인 양 바쁘게 처리하고 있었다. 그는 아마도 미국인일 것이다. 확실히 그는 미국 특유의 인생관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이 부르는 그 관점, 축복받은 그 관점 말이다.

"변호사는 어땠소?" 브라운 신부가 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피네스가 평소보다 느리게 말을 이었다.

"트레일이라는 그 변호사는 묘한 인상을 줬소. 단정하게 입은 검은 옷차림은 조금 지나칠 정도로 사치스럽기까지 했지만, 그렇다고 유행을 따르는 스타일이라고는 볼 수 없었지. 그는 빅토리아 시대 이후로 보기 드문, 길고 풍성한 검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거든.

그는 꽤 위엄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 태도 또한 진지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가끔씩 웃음을 잊고 있었다는 듯, 문득 미소를 띠곤 했지.

그가 하얀 이를 드러내면 위엄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아부하는 기색이 스쳤어. 아마도 당황스러웠기 때문일 거야. 그는 자신의 크라바트와 타이핀을 만지작거렸거든. 그 둘은 모두 그의 성격처럼 단아하면서도 이례적인 디자인이었지.

만약 내가 누군가를 꼽을 수 있다면…… 하지만 무슨 소용이겠소. 이 사건은 불가능한 일일 뿐이니까.

누구도 범인이 누군지 모른다. 누구도 그 일이 어떻게 자행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예외는 있소. 바로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이기도 하지.

개는 알고 있다."

브라운 신부는 한숨을 쉬며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당신은 젊은 도널드의 친구로서 그곳에 있었죠? 도널드가 당신과 산책을 함께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피네스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 젊은 악당은 그날 아침에 잠자리에 들고 오후에 일어났소. 나는 그의 사촌들, 즉 인도에서 온 두 젊은 장교와 함께 산책했지. 우리의 대화는 아주 평범했소. 기억하기로는, 아마도 허버트 드루스라고 했던지, 말 사육에 정통한 형이 자신이 산 암말과 그 암말을 판 남자의 도덕적 성격에 관해 말하지 않고서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소. 반면 동생 해리는 몬테카를로에서의 불운을 혼자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지. 나는 단지 우리 산책 후에 일어난 일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사이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것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오. 우리 일행에서 유일한 신비주의자는 개뿐이었소."

"그 개가 어떤 종류였소?" 사제가 물었다.

"저 개와 같은 종류죠." 피네스가 대답했다. "당신이 개를 믿는다는 것조차 믿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말이 제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그 개는 검은색 리트리버로, 이름이 '녹스(Nox)'예요. 아주 의미심장한 이름이죠. 왜냐하면 그가 저지른 일이 살인 사건보다 더 어두운 수수께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드루스의 집과 정원은 바다 옆에 있어요. 우리는 모래사장을 따라 집으로부터 마일 정도를 걸어가다가, 다시 다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운명의 바위'라는 좀 특이한 바위를 지나쳤는데, 이 바위는 인근에서 꽤 유명했어요. 바위 하나를 다른 바위 위에 거의 균형을 잡은 채 얹어 놓은 사례 중 하나였거든요. 살짝 건드려도 넘어질 정도였죠. 높이는 그리 높지 않았지만, 그 기묘한 윤곽선은 다소 야생적이고 불길해 보였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제 쾌활한 젊은 동료들은 그런 풍경미를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마 저는 이미 어떤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쯤 차를 마시러 돌아가야 할 시간인지 논의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때쯤이면 저는 이 일에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감하고 있었어요. 허버트 드루스나 저 모두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수풀 아래에서 파이프에 불을 붙이느라 잠시 멈춰 섰던 그의 동생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커다란 목소리로 황혼이 짙어지는 가운데 네 시 이십 분이라고 외친 거죠. 그 소리의 크기가 뭔가 위대한 일이 선포되는 것처럼 들리게 만들었어요. 그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었기에, 오히려 더 큰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징조란 원래 그런 법이죠. 그리고 그 오후, 시계의 특정 순간들은 정말로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습니

다. 발랑탱 박사의 증언에 따르면, 불행한 드루스는 실제로 네 시 삼십 분쯤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십 분쯤은 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우리는 모래사장을 조금 더 따라 걸었어요. 별일 없이 지내다가, 개에게 돌을 던져주고 개가 따라오게 나무 막대를 바다에 던져줬죠. 그런데 해가 지면서 공기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운명의 바위'라는 그 거대한 바위의 그림자까지도 제게 짐처럼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녹스가 바다에서 허버트의 지팡이를 건져 올렸고, 그의 형제 역시 자신의 지팡이를 던졌죠. 개는 다시 바다로 헤엄쳐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반시각이 되었을 때쯤, 개는 헤엄을 멈췄습니다. 개는 다시 해변으로 돌아와 우리 앞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고,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비통한 울음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개놈이 대체 뭐가 그렇게 안달이냐?" 허버트가 물었지만, 우리 중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다.

황량한 해안가에서 그 짐승의 비명 소리가 사라진 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이 깨졌다.

내 생명이 증명하건대, 그 침묵은 희미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에 의해 깨졌다. 마치 육지 너머 울타리 뒤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비명 같았다.

우리는 그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되었다. 바로 그 소녀가 아버지의 시체를 처음 봤을 때 지른 비명이었다.

"다시 돌아가셨겠지요?" 브라운 신부가 인내심 있게 물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마." 피네스는 차갑고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정원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처음 본 사람은 트레일 변호사였다. 지금도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푸른 꽃들이 여름 별장까지 이어지는 풍경 앞에, 검은 모자와 검은 수염을 한 그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멀리에는 행운의 바위 기묘한 윤곽이 석양빛에 떠 있었다.

석양을 배경으로 그의 얼굴과 몸은 그림자 속에 묻혔지만, 나는 확신한다. 그의 이마 너머로 하얀 이빨이 드러나 있었고,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녹스가 그 남자를 본 순간, 개는 돌진하듯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길 한가운데서 그 남자를 향해 미친 듯이 짖어댔다. 살기를 띤 짖음이었다. 그 증오의 명확함이 거의 말처럼 선명하게 저주처럼 터져 나왔다.

그 남자는 몸을 웅크리더니, 꽃들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도망쳤다."

브라운 신부가 놀랄 만큼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개가 그를 고발했단 말인가?”

그가 외쳤다.

“개라는 신탁이 그를 심판했나? 자네는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았는가? 그 새들이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갔는지 확신하는가? 제사를 두고 점쟁이들에게 물어보았는가? 설마 개를 해부해서 내장을 살피는 일을 잊지는 않았겠지? 바로 그런 식의 ‘과학적 검증’을, 너희 이교도 인문주의자들이 한 남자의 생명과 명예를 빼앗으려 할 때 믿는다고 보는구나.”

피엔스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해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겨우 숨을 고르며 물었다.

“왜, 무슨 일이야? 내가 또 뭘 잘못했어?”

사제의 눈에는 다시금 불안이 스쳤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기둥에 부딪힌 남자가, 잠시 후 기둥이 다쳤나 하고 걱정하는 듯한 불안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으로 말했다. "그렇게 무례하게 굴어 용서를 구합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피엔스는 그를 신기한 듯이 바라보며 말했다.

“때때로 생각하건대, 당신이야말로 그 어떤 수수께끼보다도 더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개가 남긴 수수께끼를 믿지 않더라도, 남자가 사라진 수수께끼만큼은 부정할 수 없지 않소?"

피엔스는 계속했다.

"짐승이 바다에서 돌아와 울부짖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주인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의 타격에 영혼을 빼앗겼소. 그런 힘은 인간이 추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지."

"변호사 이야기는 개 이야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야. 다른 기묘한 정황들도 있어."

"그는 매끄럽고, 미소 짓고, 모호한 인물로 보였소. 그리고 그가 보여준 한 가지 행동은 마치 어떤 암시처럼 느껴졌지."

"의사와 경찰은 매우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고, 발랑탱은 집에서 걸어 나가던 중에 불려 돌아왔소.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지."

"이것과 함께 고립된 집, 적은 인원, 그리고 폐쇄된 공간은 근처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철저히 수색할 가능성을 높여주었소.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람이 철저히 수색되었지. 무기를 찾기 위해."

"온 집안, 정원, 그리고 해안선까지 무기를 찾아 뒤졌소."

"단검이 사라진 일은 거의 남자가 사라진 일만큼이나 미친 듯이 기이하오."

"그 단검이 사라졌다는 거요." 브라운 신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는 갑자기 경계하는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렇지," 피엔스가 말을 이었다. "나 앞서 말했지, 트레일이라는 남자가 넥타이와 넥타이 핀을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있다고. 특히 넥타이 핀에 그랬어. 그 핀은 그 사람 자신처럼, 번지르르하면서도 구식이었다. 눈처럼 보이는, 동심원 무늬의 알맹이가 박혀 있었지. 그가 그 핀에 쏟는 집중력이 내 신경을 긁적거렸어. 마치 몸 한가운데에 눈이 하나 달린 사이클롭스처럼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그 핀은 크기도 크지만 길었다. 그리고 문득 그의 불안이 핀의 실제 길이가 겉보기보다 훨씬 길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그 길이는 스틸레토 칼만큼이나 길었다."

브라운 신부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어떤 도구가 제안된 적도 없었나요?"

"다른 제안도 있었소." 피엔스가 대답했다. "드루스 가문의 젊은이들 중 한 명, 즉 사촌들 이야기야. 허버트나 해리 드루스 중 처음에는 누구도 과학적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지. 허버트는 전형적인 중기병대원처럼 생겼고, 말과 말 이외의 것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기마 근위대의 자랑거리였거든. 하지만 막내 동생 해리는 인도 경찰에서 일한 적이 있어 그런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 사실 그는 제법 똑똑했지. 오히려 너무 똑똑해서, 관료적 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위험과 책임을 감수하다 경찰을 그만뒀어. 어쨌든 그는 실직한 형사나 다름없었고, 이 일에 아마추어 이상의 열정으로 뛰어들었지. 그리고

그와 나는 무기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였어. 그 논쟁은 새로운 단서로 이어졌지. 논쟁은 내가 트레일 옆에서 개가 짖는다고 설명한 데서 시작됐어. 해리는 개가 가장 사나울 때에도 짖지 않고 으르렁거린다고 반박했지."

"그 말씀이 옳습니다." 신부가 말했다.

그 젊은이는 이렇게 이어 말했다. 만약 그 정도로 간주한다면, 녹스가 그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으르렁거리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 중 한 명은 비서인 플로이드였다. 나는 그의 주장이 스스로를 반박한다고 반박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두세 사람에게까지 확대될 수 없으며, 특히 플로이드에게는 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 플로이드는 마치 장난꾸러기 학생처럼 순진무구했으며, 그의 붉은 머리카락은 마치 붉은 앵무새처럼 눈에 띄어, 그가 항상 정원의 담장 위에 앉아 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어쨌든 난감한 일임은 나도 잘 압니다." 내 동료가 말했다. "하지만 잠시 정원으로 함께 내려가 주게나. 다른 이가 보지 못했을 만한 것을 하나 보여주고 싶어서."

그것은 사건이 발견된 바로 그날이었다. 정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덤불 가에는 사다리가 그대로 서 있었고, 덤불 바로 아래에서 내 안내자는 깊은 풀숲에서 무엇인가를 풀어나갔다. 그것은 덤불을 다듬는 가위였다. 그 날카로운 끝부분 중 하나에는 피 얼룩이 번져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브라운 신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 변호사는 왜 거기 있었소?"

"대령이 유언장을 바꾸라고 그 사람을 불렀다고 했죠." 피엔스가 대답했다.

"그런데 유언장 건과 관련해 하나 더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 여름 별장에서는 유언장에 실제로 서명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아닐 거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증인이 두 명은 필요하니까."

변호사는 실제로 전날 내려와 그날 서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소환되었는데, 노인이 증인 중 한 명에 대해 의심을 품었고, 그 의심을 불식시켜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누구였습니까?" 브라운 신부가 물었다.

"그게 바로 핵심이죠." 소식통이 재촉하듯 말했다. "증인은 비서인 플로이드와, 외과 의사라든가 하는 그 발랑탱이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다투었죠.

저는 부인할 수 없이, 비서가 간섭쟁이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는 성미가 급하고 앞뒤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그의 열정은 공격성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변질됐죠. 사람들을 믿기보다 의심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런 붉은 머리의 성미 타는 녀석은 보통 모든 것을 믿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때로는 둘 다 하기도 하죠. 그는 만능 재주꾼이면서 동시에 모든 전문가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경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발랑탱에 대한 그의 의심에는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특정 사건 뒤에는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었어요. 그는 발랑탱이라는 이름이 진짜 발랑탱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를 다른 곳에서 드 빌롱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죠. 그는 유언장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는 변호사에게 그 부분에 대한 법률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격분한 상태였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웃었다.

"유언장 증인으로 서게 되면 사람들은 대개 그러하죠. 우선 그 유언장에 자신이 상속자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렇고요."

"하지만 발랑탱 박사는 뭐라고 했소?"

"물론 만능 비서라면 의사의 이름에 대해 의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겠지. 하지만 의사라도 자기 이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야."

피엔스는 잠시 대답을 미뤘다.

"발랑탱 박사는 그 말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더군요. 발랑탱 박사는 묘한 사람입니다. 외모가 꽤 인상적이지만, 어딘지 낯설어요. 나이는 젊지만 턱수염을 사각형으로 깎았고, 얼굴은 몹시 창백했습니다. 정말로, 끔찍할 정도로 창백하고 진지했죠. 그의 눈에는 일종의 피로가 서려 있어, 안경을 써야 할 것 같거나, 생각하다가 두통이 생겼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꽤 잘생겼고,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탑햇과 다크 코트, 그리고 작은 붉은 장미를 달고 있었죠.

그의 태도는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사람들을 응시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눈빛이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더군요. 제가 그의 성을 바꿨다고 추궁하자, 그는 스핑크스처럼 멍하니 바라보다가, 작은 웃음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바꿀 이름이 없나 봅니다.'

그때 대령도 격분해서, 의사에게 화가 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의사가 자신의 가족 중 한 명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 주제넘은 야심 때문에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일 자체에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비극이 있던 날 오후, 내가 우연히 들은 몇 마디 때문에 생각이 달라졌죠.

그 말들은 제가 보통 엿듣고 싶은 종류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친구와 개를 데리고 정문 쪽으로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러자 집 그림자, 꽃줄기 뒤쪽 모서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랑탱 박사와 드루스 양이 잠시 숨어서 속삭이고 있는 것이었죠. 때로는 거의 파르르 떨리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연인들의 다툼이자, 연인들의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런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행한 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말해야 합니다. 그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죽인다'는 말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사실 그 소녀는 그에게 누군가를 죽이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고 있거나, 어떤 이유도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차 한 잔 하러 들른 신사에게 그런 말을 건네는 것은 보통 경우라면 매우 이례적인 대화죠."

"신부님, 그 일 이후로 발랑탱 박사가 얼마나 화가 나 있었는지 아시나요?" 사제가 물었다. "비서와 대령 사이의 그 소동, 그러니까 유언장 입회 건 말입니다."

"소문으로는, 그다지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비서가 더 격분했죠. 비서는 유언장에 입회한 후 분노에 찬 채 자리에 떠났으니까요."

"이제,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유언장 자체는 어떻습니까?'"

"대령은 매우 부유한 분이었지. 유언장 문제도 중요했고. 트레일은 그 단계에서는 유언장 변경 내용을 알려주려 하지 않았어. 하지만 오늘 아침, 드디어 그 사실을 들었네. 대부분의 재산이 아들에서 딸로 넘어갔다는 거야. 드루스가 내 친구 도널드와 그의 방탕한 생활 때문에 얼마나 격분했었는지, 너도 알고 있지."

"동기 문제는 방법론의 그림자에 가려 다소 흐릿해졌군요." 브라운 신부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 순간, 분명히 드루스 양이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쪽이었습니다."

"세상에나! 얼마나 냉정하고도 잔인한 말투인가." 피엔스는 그를 노려보며 외쳤다. "당신은 정말로, 그녀가—"

"그녀가 그 발랑탱 박사와 결혼할 건가요?" 다른 한 사람이 물었다.

"어떤 이들은 반대하지만," 친구가 답했다. "그는 이 마을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숙련된 외과 의사로 헌신적이기까지 하죠."

"정말 헌신적인 외과 의사였군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는 차를 마시러 젊은 아가씨를 방문할 때에도 수술 기구들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는 랜싯 같은 무언가를 사용했을 테고, 그 후 집으로 돌아간 적이 없었으니까요."

피엔스는 벌떡 일어나 그를 노려보며 재촉했다. "당신은 그자가 바로 그 랜싯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건가요?"

브라운 신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모든 추측은 공상에 불과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누가, 혹은 무엇이 범인인지가 아닙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범인이 될 수 있고, 핀이나 가위, 랜싯 같은 수많은 도구들이 사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남자가 어떻게 방에 들어갔는가? 심지어 핀 하나조차 어떻게 방 안으로 들어갔는가?

그는 말하면서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말을 꺼내자마자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마치 갑자기 천장 위에 기이한 파리가 날아와 앉은 것을 본 것처럼, 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럼,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젊은이가 물었다. "당신은 경험이 풍부하시죠. 지금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별 도움이 못 될 것 같네요." 브라운 신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기나 사람들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제가 무슨 좋은 조언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당분간은 현지 조사에 매달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들은 바로는, 인도 경찰에서 오신 친구분이 그곳에서 조사를 총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분께 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amateur detection, 즉 아마추어적 수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이죠. 이미 단서가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족보행자도 사족보행자도 모두 자취를 감추자, 브라운 신부는 펜을 들어 다시 손이 멈춰 있던 일로 돌아갔다. 교황의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에 대한 강연 계획을 세우는 일이었다. 주제가 방대해서 그는 한두 번은 다시 구성을 다듬어야 했다. 그래서 이틀쯤 뒤, 또다시 큰 검은 개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열정적으로 그에게 달라붙을 때, 신부는 비슷한 일로 한창 바빴다.

개를 따라온 주인도 개만큼은 아니지만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덜 유쾌한 방식으로 흥분하고 있었다. 푸른 눈이 눈구멍에서 튀어나올 듯했고, 열의에 찬 얼굴은 조금 창백해져 있었다.

"당신이 저에게 말씀하셨죠. 해리 드루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라고."

그가 갑자기, 서론 없이 말을 시작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제는 대답하지 않았다. 젊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말씀드리죠. 그가 한 일은 자살입니다."

브라운 신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실용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 이야기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었다.

"당신은 때때로 저를 소름 끼치게 합니다," 피엔스가 말했다. "당신은 - 당신은 이것을 예상했나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늦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피네스는 다소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겪은 가장 추하고 불길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낡은 정원으로 내려갔고, 살인 외에도 뭔가 새롭고 부자연스러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꽃들은 여전히 검은 입구 양쪽으로 푸른 덩어리를 이루며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푸른 꽃들은 저승의 어두운 동굴 앞을 춤추는 푸른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두루 살펴보았지만,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모양 자체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기이한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행운의 바위는 항상 정원 담 너머 바다를 배경으로 우뚝 솟아 있었지만, 행운의 바위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였다.

산이 풍경 속을 걸어가고 있는 듯했다. 하늘에서 떨어진 달처럼. 물론 나는 알았다. 언제든 손끝 하나로 그 바위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어딘가에 사로잡힌 듯했다. 바람처럼 정원을 가로질러 달렸다. 거미줄이라도 되는 양 그 산울타리를 부수며 지나쳤다. 사실 얇은 산울타리였다. 하지만 흐트러짐 없는 단정함이 마치 벽처럼 기능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해안가에서 나는 받침대에서 떨어져 나온 그 헐거운 바위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불쌍한 해리 드루스가 난파선 잔해처럼 누워 있었다.

그는 마치 안아주려는 듯 한 팔로 바위를 감싸 쥐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그 바위를 끌어내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옆의 넓은 갈색 모래사장에는, 굵고 거친 글씨로 그가 이렇게 적어 놓았다.

'운명의 바위는 바보에게 떨어진다.'

"그건 대령의 유언장 때문이었소."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 젊은이는 도널드의 치욕을 이용해 자신을 이롭게 하려 모든 것을 걸었지. 특히 변호사가 방문한 바로 그날, 삼촌이 그를 불러들여 뜨거운 환대를 보냈을 때의 상황은 그에게 결정적인 유혹이었어. 그러지 못하면 그는 끝장이었으니까. 경찰 직도 잃었고, 몬테카를로에서는 파산했으니까. 결국 자신이 아무런 보람도 없이 친족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살한 거야."

"잠깐만요!" 피엔스가 놀란 눈으로 소리쳤다.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참, 유언 이야기 말인데,” 브라운 신부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잊어버리기 전에, 아니면 더 큰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다. 의사 이름에 얽힌 그 일의 간단한 해법이 있다. 나는 그 두 이름이 어디서든 들어본 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의사는 사실 드 빌롱 후작이라는 작위를 가진 프랑스 귀족이다. 하지만 그는 열렬한 공화주의자라 작위를 버리고, 잊혀진 가족 성을 다시 사용하게 된 것이다.”

“'당신의 시민 리케티로 당신은 열흘 동안 유럽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게 뭐죠?” 젊은이가 멍하니 물었다.

“괜찮아요.” 신부가 말했다. “대개 이름 바꾸기는 나쁜 짓이지만, 이번 건 특별한 열정이 담긴 행동이었죠. 그 남자가 미국인들은 이름이 없다고 비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작위(작위나 경칭)가 없다는 뜻이죠. 영국에서는 하팅턴 후작을 하팅턴 씨라고 부르지 않지만, 프랑스에서는 빌롱 후작을 드 빌롱 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오해하기 쉬웠던 거예요. 살인 운운한 것도 프랑스의 예의와 관련이 있었을 겁니다. 의사가 플로이드에게 결투를 신청하겠다고 말했고, 소녀가 그를 만류하려던 참이었죠.”

“아, 알겠습니다.” 피엔스가 천천히 말했다. “이제 그녀가 무슨 뜻이었는지 알겠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료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글쎄요," 젊은이가 말했다. "그건 그 불쌍한 이의 시체를 발견하기 직전에 제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 참사가 제 기억에서 밀려나 갔을 뿐이죠. 비극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데, 사소한 로맨스 같은 건 잊기 마련이니까요."

"그럼, 대령의 옛 저택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 분의 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발랑탱 박사와 함께 걷고 있었죠. 물론 그녀는 상복을 입고 있었고, 발랑탱 박사도 장례식에 가는 사람처럼 항상 검은 옷을 입었지만, 그들의 얼굴이 장례 분위기라곤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렇게나 존경스럽고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멈춰 서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결혼해 시가지 외곽의 작은 집에 살고 있으며, 의사는 여전히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다소 놀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유언장을 통해 그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연중에 그 사실을 언급하며, 그녀 아버지의 옛 저택으로 가는 길이라 그녀를 만날 것이라 반쯤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 그런 건 다 버렸어요. 제 남편은 상속녀를 싫어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재산을 가엾은 도널드에게 돌려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가 건강하게 충격을 받고 현명하

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그에게 사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어렸고, 아버지도 그리 현명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일과 관련해 그녀가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타적인 자부심에 찬 듯, 갑작스럽고도 화려한 위엄으로 말했습니다."

"저 빨간 머리의 멍청이가 유언장 때문에 더 이상 시끄럽게 굴지 않길 바랄 뿐이야. 내 남편이 십자군 시대부터 내려온 문장과 후작 작위를 포기할 정도로 신념이 단단한 사람이, 여름 별장에서 노인을 죽이고 그런 유산 따위를 노릴 리가 없잖아?"

그녀는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내 남편은 사업상 필요할 때만 사람을 죽여. 심지어 친구들에게 비서에게 찾아가라고 말조차 하지 않았거든."

이제야 비로소 그녀의 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겠어요.

"그녀가 말하고자 한 부분의 일부를 이해합니다, 물론이죠."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비서가 유언장 문제로 난리를 피운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피넨스는 웃으며 대답했다. "브라운 신부님, 그 비서를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일을 어떻게 돌아가게 하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될 테니까요. 그가 직접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는 장례 집안

까지도 활기차게 만들었어요. 장례식에 가장 화려한 스포츠 경기의 짜릿함과 활력을 가득 채웠죠. 한번 일이 터지면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감독하던 그, 그리고 변호사에게 법률을 가르치던 그 이야기를 이미 드렸죠. 당연히 외과 의사의 수술법도 가르쳤습니다. 그 의사가 발랑탱 박사였으니, 결과론적으로 나쁜 수술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무언가를 저질렀다고 그를 비난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비서는 자신의 붉은 머릿속에 그 의사가 범인이라고 단단히 박아두었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의 태도는 완벽할 정도로 위엄 있었습니다. 굳이 말해볼까요? 그는 그 자리에서 모든 아마추어 탐정 중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으니까요.

셜록 홈즈가 스코틀랜드 야드를 압도하며 보여준 거대한 지적 자만심과 경멸보다, 드루스 대령의 사적인 비서가 드루스 대령의 죽음을 조사하는 경찰을 바라보며 보인 태도가 더 위대했습니다.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는 멍한 듯한 표정으로 거리를 누비며, 붉은 빛깔의 머리카락을 흔들고 짧고 성급한 대답을 했죠.

물론 그날들의 그의 태도가 드루스 대령의 딸을 그에게 대해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었죠. 책 속에 나올 법한 그런 이론이었어요. 그리고 플로이드는 책 속에 있어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책 속에 있었다면 더 재미있고 덜 귀찮았을 테니까요.”

"그의 이론이 뭐였습니까?" 다른 한 사람이 물었다.

"음, 그건 정말 활기찼죠." 피넨스가 우울하게 대답했다. "만약 그 이론이 십 분만 더 버텨주었더라면, 정말 멋진 기사거리가 되었을 텐데."

그는 말했다. 여름 별장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대령은 아직 살아 있었다고. 그리고 의사는 옷을 자른다는 구실로 외과용 기구를 사용해 그를 죽였다고.

"알겠습니다." 사제가 말했다. "그가 진흙 바닥에 엎드려 낮잠을 잤다고요?"

"사람의 의욕이 얼마나 위대한지 놀랍기만 합니다." 정보원은 계속 말했다. "만약 그 죽은 시체가 운명의 바위 아래서 발견되지 않았다면, 플로이드는 자신의 위대한 이론을 어쨌든 신문 기사로 내보냈을 겁니다. 어쩌면 의사를 체포시키기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체가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마치 다이너마이트에 날려버린 것처럼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살은 거의 자백과 다름없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그 사건의 전모를 아는 사람은 영원히 없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신부는 겸손하게 말했다.

"전체 사연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피넨스는 경악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잠깐만요. 도대체 어떻게 그 모든 사정을 아시는 건가요? 설마 그 이야기가 진짜라고 확신하시는 건가요? 당신은 여기서 백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설교문을 쓰고 계셨잖아요.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다 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 정말로 결말까지 다 아신다면,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처음에 무엇 때문에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까?"

브라운 신부는 평소와는 달리 매우 흥분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첫 마디는 마치 폭발처럼 터져 나왔다.

"개다!" 그가 외쳤다. "당연히 개가 핵심이었지! 해변의 개 사건에서 당신은 이미 모든 진실을 손에 쥐고 있었어. 다만 개를 제대로 살펴보기만 했더라면 말이야."

피넨스는 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전에 개에 대한 제 감정이 모두 헛소리이며, 개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개와 이 일은 떼려야 뗄 수 없었소."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만약 당신이 개를, 하느님이 인간의 영혼을 심판하는 도구로 보지 않고, 그냥 개로만 대했다면 그 진실을 금세 알아차렸을 텐데."

그는 잠시 어색하게 멈칫하더니, 다소 애처로운 듯 사과하는 어조로 말했다.

"사실은, 저는 개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섬뜩한 개 관련 미신들 속에서, 정작 그 불쌍한 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작은 점부터 시작해 볼게요. 변호사에게 짖거나 비서에게 으르렁거린다는 점 말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런 추리를 했는지 궁금했는데," 그가 이어졌다. "솔직히 말해, 그것은 대부분 당신의 공로예요. 당신이 사람들을 아주 잘 묘사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 유형을 잘 알고 있거든요."

"보통은 찡그리다가 갑자기 미소 짓는 트레일 같은 사람, 즉 자꾸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특히 목 주변을 만지는 사람은 신경이 예민하고 쉽게 당황하는 성향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비서인 플로이드도 신경이 날카롭고 초조한 성향일 거예요. 그런 미국인들은 종종 그러하죠. 그렇지 않았다면 재닛 드루스의 비명을 듣고 가위에 손가락을 베이거나 그것을 떨어뜨리지도 않았겠죠."

"개들은 불안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개들이 그 사람 때문에 불안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짐승이니 약간 약자를 괴롭히는 기질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개 특유의 자존심(그건 엄청납니다)이 싫어받아서 상처받았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녹스는 그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매우 똑똑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든 똑똑함을 비웃지 않죠. 하지만 가끔 저는 당신이 동물들을 이해하기엔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그들이 동물처럼

단순하게 행동할 때 말입니다. 동물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그들은 상식만으로 사는 세계에 살죠.

이 사례를 보세요. 개가 사람에게 짖고, 사람이 개를 피해서 도망칩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충분히 단순하게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개가 사람을 싫어해서 짖었고, 사람이 개를 두려워해서 도망쳤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다른 동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심리적 미스터리처럼 읽으려 합니다. 개가 초자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파멸의 신비로운 메신저라고 생각하죠.

사람이 개를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형집행을 피해서 도망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심리학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만약 개가 정말로 자신의 주인을 죽인 살인자를 완전히 의식적으로 알았다면, 그는 차려진 차 한 잔을 마시는 신부에게 짖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목을 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반면에, 당신은 정말로 옛 친구의 가족 앞에서 미소 짓고, 옛 친구의 딸과 검시 의사의 눈앞에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죄책감에 짓눌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그 비극적 아이러니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말하지 못할 유일한 증인인 개를 피하기 위해 정원을 뛰어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공황 상태를 경험합니다. 비극적 아이러니가 아니라, 이빨 때문에 두려울 때 말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당신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하지만 바다 근처에서 벌어진 일을 따져보면 사정은 훨씬 흥미로워집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일은 오히려 더 수수께끼 같았죠. 개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이야기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위는 개다운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녹스가 다른 일로 매우 당황했다면, 아예 지팡이를 쫓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의심 가는 방향으로 코를 킁킁대며 냄새를 맡고 다녔을 테니까요. 하지만 일단 개가 돌이나 지팡이, 토끼 같은 무언가를 쫓기 시작하면, 제 경험상 개는 가장 단호한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설령 그런 명령이 내려져도 때로는 멈추지 않죠.

그런데 기분이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개를 돌려 방향을 바꾸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돌아섰습니다." 피넨스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지팡이 없이 돌아왔어요."

"가장 훌륭한 이유 때문에 지팡이를 들고 돌아오지 않았소." 사제가 말했다. "지팡이를 찾을 수 없어서 돌아온 거요. 낑낑댄 것도 지팡이를 못 찾아서였지. 개는 정말 그런 일 때문에 낑낑대는 법이오. 개는 의례에 집착하는 악마 같은 존재요. 아이가 동화를 똑같이 반복해 듣길 원하는 것처럼, 개도 게임의 정확한 절차에 매우 민감하오. 이번 경우엔 그 게임의 무언가가 어긋났던 거죠. 그는 지팡이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

게 불평하러 돌아온 거요. 그런 일은 결코 없었소. 위엄 있고 존경받는 개가 썩은 낡은 지팡이에게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은 결코 없었소."

"그런데, 지팡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젊은이가 물었다.

"그게 가라앉은 거죠."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피넨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빤히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자 신부가 말을 이었다.

"그것이 가라앉은 이유는, 그 지팡이가 진짜 지팡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속은 강철 막대이고 겉은 아주 얇은 대나무 껍질로 감싸져 있었으며, 끝은 날카로웠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검 지팡이였죠.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가 피 묻은 흉기를 그렇게 기묘하면서도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개가 물어오라고 바다에 던지는 거죠."

"이제 당신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군요." 피넨스가 인정했다. "하지만 검 지팡이가 사용되었다 해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여름 별장'이라는 말을 하셨을 때부터 저는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드루스가 흰 코트를 입었다는 말씀도 하셨죠. 모두들 짧은 단도를 찾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레이피어처럼 날이 좀 긴 칼이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는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며, 다시금 자신의 첫 번째 생각과 근본적인 문제들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옐로우 룸이나 밀실 살인 같은 추리소설의 논리는 이번 사건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견된 시체 사건이죠. 하지만 이곳은 여름 별장입니다. 옐로우 룸, 혹은 어떤 방을 논할 때 우리는 그 벽이 균일하고 뚫을 수 없는 것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여름 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처럼 가지를 촘촘하게 엮어 만든 구조라면, 여기저기 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드루스가 벽에 기대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그의 등 뒤에도 바로 그런 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이 여름 별장인 것처럼, 의자도 바구니 의자였습니다. 그 역시 구멍이 숭숭 뚫린 격자 구조였죠. 마지막으로 이 여름 별장은 생울타리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울타리는 매우 얇았습니다. 밖에서 서 있는 사람이 가지와 나뭇가지, 대나무가 얽힌 그물망 사이로 대령 코트의 흰색 한 점—마치 표적의 흰 부분처럼 또렷이—볼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지리학적인 부분은 조금 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사실을 합치면 넷이 되는 법입니다. '행운의 바위'는 실제로 높지 않다고 하셨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정원 위에 산봉우리처럼 우뚝 솟아 보인다고도 하셨어요. 즉, 정원의 끝자락에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바위까지 가는 길에 꽤나 먼 우회로를 걸으셨죠.

또한, 그 젊은 여자가 반 마일 밖에서도 들릴 만큼 크게 비명을 지른 것은 있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통제할 수 없는 비명을 지른 것이었고, 당신은 그 소리를 해변에서 들으셨죠.

그리고 당신이 들려준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해리 드루스가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덤불 아래로 뒤처졌다고 하셨잖아요."

피네스가 몸을 살짝 떨었다.

"당신은 그가 칼을 빼서 그 흰 점 쪽으로 수풀을 뚫고 꽂았다는 뜻이오. 하지만 정말 기묘한 우연이고, 너무 갑작스러운 선택이었소. 게다가 그는 노인의 돈이 자기 것이 됐다고 확신할 수 없었소. 실제로도 돈은 그에게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브라운 신부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당신은 그 사람의 성격을 오해하고 있군요."

그가 말했을 때, 마치 평생 그 사람을 알아온 사람처럼 보였다.

"특이하지만 전혀 낯선 성격은 아닙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그 돈이 자신에게 돌아올 줄 알았다면, 저는 그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일인지 분명히 보았을 테니까요."

"그건 좀 역설적이지 않나요?" 다른 한 사람이 물었다.

"이 남자는 도박꾼이었소.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상사의 명령을 앞질러 행동하다 실각한 자였지. 아마도 아주 무책임한 일을 저질렀을 거야. 제국 경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러시아 비밀경찰과 더 닮았으니까. 하지만 그는 선을 넘었고, 실패했어. 이제 그런 타입의 남자에게 유혹이 찾아오면, 그 위험이 훗날 얼마나 경이로울지 알기에 미친 짓을 저지르려 하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할 거야. '나만이 그 기회를 잡았거나, 그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 그 모든 것—실각한 도널드, 소환된 변호사, 그리고 나와 허버트가 동시에 불린 일—그리고 노인이 나를 향해 웃으며 악수한 그 순간—을 하나로 엮어낸 그 거칠고 경이로운 추측은 어땠나? 누구나 내가 그것을 감수한 것을 미친 짓이라고 말할 거야. 하지만 바로 그 미친 기질, 약간의 선견지명을 가진 자만이 부를 이룬다는 게 아니겠나.'

간단히 말해, 그것은 추측의 허영심일세. 도박꾼의 과대망상이지. 우연의 불일치가 클수록, 결정이 빠를수록, 그는 그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커져. 우연, 그리고 하얀 점과 덤불 구멍이라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 그를 술에 취한 사람처럼, 세상의 욕망을 본 것처럼 도취시켰어. 그런 우연의 조합을 볼 만큼 똑똑한 자라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만큼 비겁할 리가 없지! 그것이 마귀가 도박꾼에게 속삭이는 말이야. 하지만 마귀 자신도 그 불쌍한 남자를, 그가 늘 기대를 걸었던 늙은 삼촌을 죽이기 위해 둔중하고도 고의적으로 내려가게 하지는 못했을 거야. 그것은 너무 정숙한 일이니까."

그는 잠시 멈춰 섰다. 그러고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제 그 장면을 떠올려 보라. 당신이 직접 목격한 그대로 말이다. 그는 마귀 같은 기회를 앞둔 채 어지러움에 휩싸인 채 서 있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흔들리는 영혼을 그대로 닮은 기이한 형상을 올려다보았다. 한 바위가 다른 바위 위에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 마치 피라미드가 뾰족한 끝부분 위에 서 있는 듯한 형상이었다. 그는 그것이 '행운의 바위'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그런 남자가 그런 순간에 그런 신호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당신은 짐작할 수 있는가? 나는 그것이 그를 행동으로, 나아가 경계심까지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 탑이 되려 한다면, 무너지는 탑이 될까 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그는 움직였다. 다음 난관은 발자국을 지우는 일이었다. 칼집이 든 지팡이, 더구나 피로 얼룩진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색에서 치명적인 단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팡이를 어딘가에 두어두면 곧 발견되어 추적될 가능성이 컸다. 바다에 던져 버린다 해도 그 행위가 눈에 띌 수 있고, 눈치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니 그 행위를 덮을 수 있는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 필요했다.

당신이 알다시피, 그는 그 방법을 생각해 냈다. 아주 훌륭한 방법이었다. 당신 중 유일하게 시계를 가진 그는, 아직 돌아갈 시간이 아니라고 말하며 조금 더 산책하듯 걸어나갔다. 그리고는 개에게 지팡이를 던

져 주워오게 하는 놀이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눈이 그 황량한 해안선을 어둡게 스치며 결국 그 개에게 고정되기 전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곳을 살펴봐야 했을까!

피네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공허한 곳을 응시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더 이상 실용적이지 않은 이야기의 어딘가로 흘러가 버린 듯했다.

"참 이상하군. 그 개가 이야기 속에 정말로 등장했다는 게."

"개는 말만 할 줄 알았더라면 그 이야기를 다 해줬을 겁니다." 신부가 말했다. "제가 불평하는 건, 개가 말을 못 한다는 이유로 그 개 대신 이야기를 꾸며내고, 인간과 천사의 언어로 개를 말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제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자주 목격하는 현상의 일부입니다. 온갖 신문에 실리는 루머나 일상 속 입버릇처럼 나타나죠. 권위는 없는데도 제멋대로인 것들 말입니다.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면 무엇이든 쉽게 받아들이죠.

이것은 여러분의 오래된 합리주의와 회의주의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처럼 밀려들어오죠. 그리고 그 이름은 바로 '미신'입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에는 특유의 찡그림이 가득했다. 그는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계속 말을 이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첫 번째 효과는 상식이라는 것을 잃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하고, 그 안에 진실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악몽의 풍경처럼 끝없이 확장됩니다.

개는 징조이고, 고양이는 신비이며, 돼지는 행운의 부적입니다. 딱정벌레는 스카라베가 되어, 이집트와 고대 인도에서 온 다신교의 동물원들을 불러옵니다. 개 모양의 아누비스, 초록 눈의 거대한 파슈트, 그리고 바산의 거룩한 울부짖는 황소들까지.

우리는 시작의 야수신들로 돌아가고, 코끼리와 뱀, 악어로 도망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단지 네 단어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이 되셨다.

젊은 남자는 약간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독백을 엿들은 듯했다. 그는 개를 부르며 방을 나섰다. 작별 인사는 어물쩍했지만 경쾌했다.

하지만 개를 두 번이나 불러야 했다. 개는 잠시 동안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리고 브라운 신부를 올려다보았다. 늑대가 성 프란치스코를 바라보던 것처럼.

네 번째 이야기: 초승달의 기적

문월(Moon Crescent)은 이름만큼이나 낭만적인 곳으로 여겨졌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도 제법 낭만적이었다. 적어도 문월은 미국 동부

구도시에 상업주의와 병존하며 살아남은, 역사적이고 거의 영웅적인 감정의 진정한 표현이었다. 그것은 고전적 건축의 곡선으로, 워싱턴이나 제퍼슨 같은 인물들이 귀족적 자질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공화주의자가 된 것처럼 보이는 18세기 분위기를 떠올리게 했다. 여행자들은 우리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곤 했는데, 그들은 특히 문월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더 신중하게 답해야 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원래의 조화를 어지럽히는 그 대조들이야말로 문월이 살아남은 특징이었다. 초승달의 한쪽 끝, 즉 뿔 부분에서는 마지막 창문들이 신사의 정원을 연상시키는 울타리 너머를 내려다보았다. 나무와 수풀은 퀸 앤 양식 정원의 것처럼 단정하게 가꾸어져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코너를 돌면, 같은 방의 창문들조차 거대한 창고의 단조롭고 보기 흉한 벽을 바라보았다. 그 창고는 추잡한 공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문월의 아파트들은 그 끝부분에서 미국식 호텔의 단조로운 양식으로 개조되었고, 높이는 거대한 창고보다는 낮았지만 런던이라면 초고층 빌딩이라 불렸을 것이다. 거리 전체를 감싸고 있는 기둥들은 회색빛과 풍화 자국으로 인해 위엄을 풍겼고, 공화국의 아버지들이 여전히 그곳을 오가며 걷고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방 내부들은 뉴욕의 최신 설비로 가능한 한 깔끔하고 새것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특히 북쪽 끝, 단정하게 가꾼 정원과 단조로운 창고 벽 사이에 위치한 곳들은 더욱 그랬다. 그곳은 영국식으로 말하자면 아주 작은 원룸들의 체계였다. 각각 거실, 침실,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벌집의 백 개의 칸처럼 서로 똑같았다. 이 중 한 방에서 유명한 워런 윈드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분류하고 명령을 흩뿌리고 있었다. 그는 놀라운 속도

와 정확도로 일을 처리했다. 그는 깔끔한 회오리바람에 비유할 수 있었다.

워렌 윈드는 키가 아주 작은 남자였다. 흐트러진 회색 머리와 뾰족한 수염을 가졌지만, 겉보기에는 약해 보였을 뿐 실제로는 매우 날카롭게 활동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눈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다. 별보다 더 밝고, 자석보다 더 강한 눈빛이었다. 한 번이라도 그 눈을 본 사람은 쉽게 잊지 못했다.

그가 수많은 자선 단체를 개혁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며 보여준 것만 보아도, 그가 제법 눈이 밝은 사람임은 분명했다. 그는 특히 인간의 성품을 판단하는 속도가 기적처럼 빨랐다고 한다. 이런 일화는 심지어 전설이 되기도 했다.

어떤 이야기로는 그가 공식 행사 때 행진하는 여성들을 한 줄로 늘어선 군대처럼 보았을 때, 그중 한 명을 골라 평생 함께 일할 아내로 선택했다고 한다. 어떤 이는 그녀가 걸가이드(Girl Guides) 소속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여성 경찰 소속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일화는 세 명의 거지 이야기였다. 그들은 모두 더럽고 헐벗은 옷을 입고 있어 서로 구별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나 자선을 청하자, 그는 주저 없이 한 명을 특정 신경 질환 전문 병원으로 보냈다. 두 번째에게는 알코올 중독자 치료 시설을 권했고, 세 번째는 자신의 개인 하인으로 거액의 월급을 주며 고용했다. 그 하인은 이후 수년간 그 직분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물론 그는 루스벨트, 헨리 포드, 아스퀴스 부인 등 미국 공인이면 반드시 만나야 할 인물들과 접촉했을 때 날카로운 비판과 간결한 응수를 남기기도 했다. 적어도 신문 기사에는 그렇게 실렸을 것이다.

그는 이런 위인들 앞에 쉽게 눌리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차분하게 서류 더미를 돌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와 마주 선 남자는 거의 동급의 중요성을 지닌 인물이었다.

백만장자이자 석유 재벌인 사일러스 T. 반담은 가냘픈 체구에 길고 누런 얼굴, 그리고 남빛이 도는 검은 머리를 가졌다. 그의 얼굴과 몸매는 창문 너머 하얀 창고 벽과 어둠을 배경으로 드러나, 오히려 그 색조가 덜 눈에 띄면서도 어딘지 더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는 아스트라한 털이 달린 우아한 코트를 꼭 여미고 있었다.

반면에, 윈드의 얼굴과 눈빛은 열정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책상과 의자는 작은 정원을 내려다보는 다른 창문을 향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은 무언가에 몰두한 듯했지만, 그 몰두가 백만장자를 향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윈드의 하인, 혹은 개인 보좌관이라 할 만한 큰 키의 사나이는 평평한 금발을 하고 단단한 체격을 지녔으며, 주인 책상 뒤에서 편지 더미를 들고 서 있었다. 윈드의 비서인, 날카로운 얼굴에 단정하게 붉은 머리를 한 젊은이는 이미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마치 어떤 의도를 읽었거나, 혹은 상사의 손짓에 순종하려는 듯했다.

방은 깔끔했을 뿐만 아니라, 공허할 정도로 검소했다. 윈드는 특유의 철저함으로 위층 전체를 빌려, 다른 모든 서류와 소지품을 상자와 밧줄로 단단히 묶은 다발로 쌓아 둔 다락방이나 창고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윈드는 편지를 들고 선 하인을 향해 말했다.

"이것들을 층 서기에게 주게, 윌슨. 그리고 'G'라고 적힌 더미에서 미니애폴리스 나이트클럽 관련 소책자를 찾아주게. 한 시간 뒤면 필요하니까 그때까지 방해하지는 말게."

그리고 반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반담 씨, 당신의 제안은 매우 유망해 보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답변은 보고서를 확인한 후에야 드릴 수 있겠소. 그 보고서는 내일 오후쯤 도착할 거요.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드리겠소. 지금 당장 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서 유감입니다."

반담 씨는 이것이 예의 바른 작별 인사쯤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 창백하고 우울한 그의 얼굴에는, 그 사실이 가진 아이러니를 그는 분명히 느끼고 있는 듯했다.

“그렇군, 이제 가야겠네.” 그가 말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담 씨.” 윈드가 정중하게 말했다. “배웅하러 나가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그는 비서에게 말했다. “페너, 반담 씨를 차까지 모셔다 드리고, 30분 동안은 다시 오지 마십시오. 혼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세 남자는 함께 복도로 나갔다. 그들 뒤로 문이 닫혔다.

큰 키의 하인 윌슨은 복도를 따라 층 서기 쪽으로 걸어갔다. 나머지 두 사람은 반대편,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윈드의 아파트는 14층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닫힌 문에서 겨우 몇 발짝 떨어져 나갔을 때, 복도 전체를 가득 메운 당당하고도 장중한 인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몸집이 큰 데다 하얗거나, 하얗게 보이는 연회색 옷을 입어 그 모습이 더 두드러졌다. 머리에는 아주 넓은 흰색 파나마 모자를 쓰고 있었고, 그 위로는 모자 가장자리와 거의 맞먹을 만큼 넓은 흰색 머리카락의 후광이 감싸고 있었다.

이 빛나는 후광 속에 놓인 그의 얼굴은 강인하고 아름다웠다. 마치 로마 황제와도 같았다. 다만 눈빛의 빛남과 미소의 행복감에는, 소년스러움을 넘어선, 조금은 어린애 같은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그가 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워런 윈드 씨 계십니까?”

“워런 윈드 씨가 약속 중입니다.” 페너가 말했다. “어떤 경우에도 그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의 비서이니, 어떤 메시지든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워런 윈드 씨는 교황이나 왕족도 만나지 않으십니다." 오일 대부인 반담이 시니컬한 어조로 말했다. "워런 윈드 씨는 아주 까다로운 분이죠. 저는 특정 조건 하에 2만 달러를 전달하려고 그분을 찾았지만, 그는 마치 제가 사환이라도 된 양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소년이 된다는 건 멋진 일이야,” 낯선 남자가 말했다. “그리고 부름을 받는다는 건 더 멋진 일이지. 내겐 그가 반드시 들어야 할 부름이 있어. 바로 서쪽 광활한 땅에서 울려 퍼지는 부름이야. 네가 모두 코를 골고 있는 사이, 진짜 미국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으로.”

그는 계속했다. “그냥 그에게 말해 줘. 오클라호마 시티의 아트 알보인이 그를 개종시키러 왔다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분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붉은 머리의 비서가 날카롭게 말했다. “30분 동안은 그분을 방해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셨거든요.”

“동부 사람들은 모두 평온을 지키려 하죠.” 알보인 씨가 활기차게 말했다. “하지만 서쪽에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여러분의 평온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는 계속했다. “저는 이 구시대적인 종교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의 새로운 ‘위대

한 영혼' 운동을 배제한 어떤 계획도, 미래의 종교를 놓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래의 종교라니, 이미 다 살펴봤소." 백만장자는 경멸하는 듯 말했다. "이빨로 빗어댄 듯 꼼꼼히 파고들었지. 결과물은 노란 개처럼 기생충투성이였어.

소피아라는 여자가 있었지. 솔직히 사피라라고 불러야 마땅했어. 그냥 속임수에 불과했으니까. 탁자마다 줄이 연결되어 있고, 탬버린만 두드리는 식이었어.

그다음엔 '보이지 않는 삶' 무리가 있었지. 자기가 원할 때 사라진다고 했어. 정말 사라졌지. 내 돈 십만 달러도 함께 사라졌고.

덴버에서 유피터 예수라는 놈을 알았어. 몇 주 동안 그를 지켜봤지. 하지만 그는 평범한 사기꾼일 뿐이었어. 파타고니아의 예언자도 마찬가졌지. 그는 파타고니아로 도망쳤을 게 틀림없어.

아니, 그런 건 다 끝났소. 이제부터는 내가 보는 것만 믿겠소. 사람들이 그것을 무신론이라고 부르는 걸까?"

"절 오해하신 것 같아요." 오클라호마에서 온 남자가 거의 간절하다 싶을 만큼 열의를 띠고 말했다. "저도 당신만큼 무신론자예요. 우리 운동에는 초자연적이거나 미신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순수한 과학뿐이죠. 진정한 과학이란 결국 건강이고, 진정한 건강이란 숨 쉬는 것뿐이에요. 평원의 넓은 공기로 폐를 채우면, 당신은 동부의 낡은 도시들을 바다에 쓸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인물들조차 엉겅퀴

씨앗처럼 가볍게 날려버릴 수 있죠. 우리가 고향에서 새로 시작하는 운동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숨 쉬는 거죠."

"그래, 아마도 그럴 거야." 비서도 지친 듯 말했다. 날카롭고 총명한 얼굴이었지만, 그 피로는 감추기 어려웠다. 그는 두 사람의 독백을 미국식 관례에 따라, 즉 인내심과 예의를 갖춘 채로 경청하고 있었다. 그 인내와 예의는 미국인이 '조급하고 무례하다'는 통념과는 사뭇 달랐다.

"초자연적인 건 아니에요." 알보인이 이어 말했다. "그건 초자연적인 환상 뒤에 숨어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실일 뿐이죠."

"유대인들이 하느님을 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인간의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서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클라호마에서 그 숨결을 우리 자신의 코에 불어넣죠."

"그렇다면 '영(Spirit)'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호흡 운동을 뜻하는 그리스어일 뿐입니다."

"생명이요, 진보요, 예언이요. 그 모든 것은 숨결입니다."

"어떤 이는 다 허풍일 뿐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반담이 말했다. "하지만 어쨌든 당신은 신학적인 장난을 끝냈으니 다행입니다."

비서의 날카로운 얼굴은 붉은 머리카락과 대비되어 다소 창백해 보였다. 그 표정에는 묘한 감정의 빛이 스쳤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쓴맛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기쁘지 않아요. 그저 확신할 뿐이죠. 당신은 무신론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 당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시길 바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요. 운이 나쁜 거죠."

그 순간, 모두는 소리도 없이, 움직임도 없이, 기이할 정도로 그 사실을 의식했다. 윈드의 문 밖에 멈춰 서 있던 무리가, 삼 명에서 사 명으로 조용히 불어났다는 사실을.

네 번째 인물이 얼마나 오래 그곳에 서 있었는지, 열띤 논쟁을 벌이던 이들 중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급한 일을 전하러 왔다는 듯, 정중하게, 심지어는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경질적인 감각에는, 그가 갑자기, 소리 없이, 버섯이 돋아나듯 솟아오른 것처럼 느껴졌다.

사실 그는 정말 커다란 검은 버섯처럼 보였다. 그는 키가 작았고, 오그라든 작은 몸집은 큼직한 검은 사제모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았다. 버섯들이 초라하고 형체도 없는 우산을 들고 다니는 습성이 있다면, 그 유사성은 더욱 완벽했을 것이다.

비서 페너는 신부의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신부가 둥근 모자 아래 둥글고 순진해 보이는 얼굴을 내밀며 워런 윈드 씨를 찾아왔다고 묻자, 이전보다 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신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정말로 윈드 씨를 뵙고 싶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게 제가 정말로 원하는 바입니다.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그의 모습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가 정말 거기 있어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제 말은 그가 분명히 저기에 있고,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페너가 점점 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는 분명히 저기에 있어요. 우리 모두 5분 전에 그를 저기에 남겨두고, 그 이후로 이 문 밖에 서 있었거든요."

"저는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소." 사제가 말했다.

"왜요?" 비서가 격분하며 물었다.

"나에게는 진지하다 못해 엄숙할 만큼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신부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가 온전한지, 의문이 들어서야 하거든."

"주여!" 반담이 격분한 듯 외쳤다. "또 미신 타령이라니."

"보시다시피, 저는 이유를 설명해야겠군요." 작은 성직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전체 이야기를 다 털어놓기 전에는, 문틈으로 한 번 들여다보게 해달라는 요청조차 받아주지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였다가, 주위를 둘러싼 놀란 얼굴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저는 콜로네이드 앞쪽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크레센트의 끝부분 모퉁이를 급히 돌아오는, 몹시 초췌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보도를 힘차게 달려오며, 뼈가 드러날 듯 마른 큰 체격과 제가 아는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 얼굴은 제가 잠시 도와준 적이 있는, 거친 아일랜드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는 비틀거리며 저를 부르더군요. '맙소사, 브라운 신부님이시군요. 당신 얼굴만큼은 오늘 저를 놀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얼굴이오.'"

"그가 뭔가 무모한 짓을 저질렀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제 얼굴이 그를 크게 놀라게 하지는 못한 것 같았죠. 그는 곧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워런 윈드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가 이 아파트 위층 근처에 산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을 성도라고 생각하는 자요. 하지만 제가 그에게 한 말을 알았다면, 그는 이미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을 거예요.'

그는 히스테리하게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네, 자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거라고요.'

제가 윈드에게 해를 끼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좀 이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권총을 들고 나갔어요. 총알도, 탄환도 넣지 않고 저주만 담았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가 이 건물과 큰 창고 사이의 작은 골목으로 가서 낡은 권총에 공포탄을 장전하고, 벽을 향해 쏘았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 행동 하나만으로 건물이 무너질 것처럼요.

하지만 그가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저는 위대한 저주를 그에게 퍼부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그의 머리카락을 잡고, 지옥의 복수가 그의 발뒤꿈치를 잡으리라. 그는 유다처럼 찢겨져 버리고, 세상은 그를 다시는 알지 못하리라"는 저주였죠.'

"그 후 내가 그 불쌍하고 미친 남자에게 또 뭐라고 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소. 그는 조금 진정된 듯이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떠났고, 나는 건물의 뒷쪽으로 가서 살피러 갔소.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벽 아래 작은 골목길에 녹슨 낡은 권총이 놓여 있었거든. 권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서 알 수 있었소. 총에는 화약만 조금 들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벽면에는 화약과 연기의 검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총구 자국까지 있었지만, 총알이 뚫고 나간 흔적은커녕 찌그러짐 하나 없었소. 그는 파괴의 흔적도 남기지 않았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지. 그 검은 자국들과 하늘을 향해 던진 저 검은 저주 말고는."

"그래서 나는 여기로 와서 워런 윈드를 찾아보고, 그가 무사한지 확인하려 했소."

페너 비서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 걱정, 금방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전혀 괜찮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책상 앞에서 글을 쓰고 계셨어요. 그의 아파트는 거리에서 백 피트나 높이 떨어져 있어, 설령 당신 친구가 공포탄이 아닌 실탄을 쐈다 하더라도 총알이 닿을 리가 없

습니다. 게다가 이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이 문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브라운 신부가 진지하게 말했다. “한 번 들어가서 살펴보고 싶군.”

"글쎄, 그러지 못하죠." 상대가 반박했다. "세상에, 정말 저 저주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신부의 본업이 축복과 저주라는 건 잊으셨습니까?" 백만장자가 미묘한 비웃음을 띠며 말했다. "자, 만약 그가 지옥에 떨어지라는 저주를 받았다면, 왜 다시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의 축복이 아일랜드 건달의 저주조차 이기지 못한다면, 그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서부 출신 남성이 반문했다.

“브라운 신부라면 믿을 만한 것들을 꽤 많이 믿는 모양이군요.” 반담이 말했다. 그의 성미는 앞서 받은 무시와 지금의 말다툼으로 인해 이미 상한 상태였다.

“브라운 신부는 아무데서도 나타나지 않은 악어를 타고 강을 건넌 은수자가, 악어에게 죽으라고 명하자 그것이 정말로 죽었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성인이 죽은 뒤, 그의 시체가 세 개로 나뉘어 그의 고향이라 주장하는 세 교구에 나누어졌다고 믿습니다. 어떤 성인은 햇살에 망토를 걸었고, 또 다른 성인은 그 망토를 배 삼아 대서양을 건넜다고 믿습니다.

성스러운 나귀가 다리가 여섯 개였고, 로레토의 성전이 하늘을 날아다녔다고 믿는 것도 브라운 신부의 일입니다. 그는 온종일 눈물을 흘리며 눈짓하는 수백 개의 돌 성모상들까지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 열쇠 구멍을 통해 탈출하거나, 자물쇠가 채워진 방에서 사라지는 것쯤은 그에게 믿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가 자연법칙이란 것을 별로 믿지 않는 것 같군요."

"어쨌든 저는 워런 윈드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비서에게서 지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가 혼자 있고 싶다고 할 때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이 그의 규칙입니다. 윌슨도 똑같이 말할 겁니다."

그때, 소책자를 가져오라고 불린 거구의 하인이 말없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소책자를 든 채 차분히, 그러나 단호히 그 문 앞을 스쳐 지나갔다.

"윌슨은 층 안내원 옆 벤치에 가서 앉아, 불릴 때까지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기다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집니다. 그 전에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비서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우리 둘 다 어디에 버터가 발려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브라운 신부의 성인들과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와도, 우리가 그 사실을 잊게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성인과 천사라니—" 신부가 말을 시작했다.

"모두 헛소리일 뿐이야." 페너가 되뇌었다. "불쾌한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건 납골당이나 수도원, 혹은 몽환적인 장소에서는 통할지 몰라. 하지만 미국 호텔에서는 유령도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올 수 없지."

"하지만 남자들은 문도 열 수 있습니다. 미국 호텔이라도요." 브라운 신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답했다. "저에게 그것은 가장 간단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문을 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제 직장을 잃기 쉬울 겁니다." 비서가 말했다. "하지만 워런 윈드는 자신의 비서가 그렇게 단순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당신이 믿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을 정도로 단순하지는 않다고요."

"음," 신부가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들이 아마 믿지 않을 많은 것들을 믿는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모든 것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유를 설명하려면 제법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반면, 그 문을 열어보기만 하면 내가 틀렸다는 게 단 2초면 증명되겠지요."

그 말에는 서쪽에서 온 남자의 더 거칠고 안절부절못하는 영혼을 기쁘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듯했다.

"당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는 건 인정합니다." 알보인이 그들을 지나쳐 빠르게 걸어가며 말했다. "그리고 반드시 해 보이겠습니다."

그는 아파트 문을 활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첫눈에 워런 윈드의 의자가 비어 있는 것이 보였다. 두 번째 시선에서는 그의 방 전체가 텅 비어 있음을 확인했다.

페너는 다시금 에너지로 충만해져, 다른 사람을 지나쳐 방 안으로 돌진했다.

"그는 방에 계십니다." 그가 짧게 잘라 말했다. "분명히 거기 계실 겁니다."

그가 안쪽으로 사라지자, 나머지 남자들은 텅 빈 바깥 방에 서서 주위를 빤히 바라보았다. 이미 눈여겨본 그 방의 엄격하고 소박한 장식이, 이제 다시 한 번 냉정하게 그들을 압박했다. 분명히 이 방에서는 생쥐 하나 숨길 수도 없었고, 하물며 사람 한 명을 숨긴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다. 커튼도 없었고, 미국식 구조에서는 드문 일이지만 찬장도 없었다. 책상조차 얕은 서랍과 기울어진 뚜껑이 달린 평범한 탁자에 불과했다. 의자는 등받이가 높고 딱딱한 뼈대 같은 모습이었다.

비서가 두 개의 안방을 뒤져 다시 안쪽 문턱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잠시 후였다. 그의 눈에는 멍하니 응시하는 부정의 빛이 서려 있었고, 입술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날카롭게 물었다.

"그가 이쪽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 부정을 부정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들의 머릿속은 창문 너머로 마주 보는 창고의 벽처럼 빈틈없는 장벽에 부딪

힌 듯했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황혼이 내려앉아 하얀 벽은 점차 회색으로 물들었다.

반담은 반 시간 전 몸을 기댔던 창턱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열린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래로 뚝 떨어지는 작은 골목에는 파이프도, 화재 탈출구도, 선반도, 발 딛을 곳도 없었다. 위를 올려다본 벽면에도 마찬가지였다. 거리 반대편은 더 심했다. 하얗게 칠해진 벽면이 지루하게 이어질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만약 자살이라도 한 듯이 그 길에 쓰러진 자선가가 있다면 보일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작은 검은 물체뿐이었다. 거리가 멀어 작아 보였지만, 신부가 그곳에서 발견했던 권총일 가능성이 충분했다.

한편 페너는 다른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 창문 역시 벽면이 똑같이 빈틈없고 접근이 불가능했지만, 골목이 아닌 작은 장식용 공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무 한 무리가 지면의 시야를 가렸지만, 그 나무들은 거대한 인간 절벽인 건물 벽면으로 올라가기는커녕 바닥에서 조금 높이 솟은 데 그쳤다.

두 사람은 다시 방 안으로 돌아와 마주 섰다. 황혼이 짙어지며 책상과 테이블의 광택 나는 윗면에서 마지막 은빛 빛줄기가 빠르게 회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마치 그 황혼 자체에게 자극이라도 받은 듯 페너는 스위치를 만졌다. 순간, 장면은 전기 조명 아래에서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방금 당신도 말했듯이," 반담이 차갑게 말했다. "저 아래에서 쏜 총알이 그를 명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총에 총알이 들어있다고 해도 말이야. 설령 총알에 맞았다고 해도, 그가 거품처럼 터져 나갔을 리는 없지."

비서에게서 평소보다 더 창백한 빛이 돌았다. 그는 황달이 든 듯한 백만장자의 얼굴을 성가신 듯 힐끗 쳐다보았다.

"그런 음침한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요? 총알이나 거품 따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소? 그가 왜 살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오?"

"왜 안 되겠습니까?" 반담이 매끄럽게 대답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그가 어떻게 거기에 닿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비서가 투덜거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당신이 옳은 것 같군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과 맞닿아 있네요. 당신이나 제가 저주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줄로 생각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누가 여기서 감금된 윈드를 해쳤다는 말인가요?"

오클라호마주 출신의 알보인 씨는 방 한가운데서 다소 불편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하얗고 털이 많은 머리칼과 동그랗게 부릅뜬 눈이 놀라움을 드러내는 듯했다.

그때 그가 중얼거렸다. 마치 '어른아이' 특유의 무례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엉뚱한 태도로, 하지만 정신은 다른 데 있는 듯했다.

“당신도 그 사람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죠, 반담 씨?”

반담 씨의 길고 누런 얼굴이 점점 더 음흉해지자, 마치 더 길어지는 듯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만약 이런 우연의 일치가 문제라면, 서풍이 엉겅퀴 씨앗처럼 큰 남자들을 날려 보낼 거라고 말한 건 당신이었죠.”

“물론 그렇게 말했어요.” 서방의 남자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침묵은 페너의 목소리에 깨졌다. 그는 마치 폭력이라도 행사하듯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할 말은 하나뿐이다. 그냥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아, 네," 구석에서 브라운 신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실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원래 문을 열어주게 만든 그 하찮은 작은 남자를, 그들은 모두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억이 돌아오자 기분은 급반전했다.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가 암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그를 미신에 빠진 몽상가로 치부해 버렸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맙소사!" 서방에서 온 그 남자가 다그치듯 외쳤다. 그는 자신의 말조차 멈출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힌 듯했다. "만약, 정말로 그 안에 무언가가 있는 거라면?"

"신부님의 예상이 근거가 있었던 게 분명하군요." 페너는 식탁을 내려다보며 잔뜩 찌푸린 얼굴로 말했다. " 혹시 더 알려줄 만한 게 있는지, 신부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지금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할지, 그분이 아마도 우리에게 알려주실지도 모릅니다." 반담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작은 신부는 그 제안을 겸손하면서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제가 생각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곳 당국에 먼저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권총을 발사한 제 남자에게 남은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는 사라졌다. 크레센트의 다른 끝, 작은 정원이 있는 쪽으로 말이다. 그곳에는 좌석이 있고, 노숙자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호텔 본부와 직접 상담을 하고, 이어 경찰 당국과 간접적으로 의견을 나누느라 그들은 꽤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이 긴 고전 양식의 기둥 복도를 빠져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초승달 모양의 광장은 그 이름의 유래가 된 달처럼 차갑고 공허해 보였고, 검은 나무 꼭대기 너머로 달이 희미하면서도 유령처럼 떠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작은 공원 옆 모퉁이를 돌아서자, 도시적이고 인공적인 흔적들이 밤의 장막에 가려진 것을 느꼈다. 나무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

자, 그들은 갑자기 고향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으로 여행한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잠시 침묵을 지키며 걷던 중, 본능적인 무언가를 지닌 알보인이 갑자기 폭발하듯 말을 터뜨렸다.

"저는 포기합니다. 두 손 들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내게 닥쳤을 때, 어찌해야 할까요? 브라운 신부님, 죄송합니다. 당신과 그 동화들 앞에서는 제가 물러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동화를 믿겠습니다.

반면, 반담 씨, 당신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대체 무엇을 본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반담이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 달빛과 나무들이 제 신경을 거슬러요.” 페너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달빛 아래서 나무들은 항상 기이하게 보이죠. 가지들이 기어 다니는 것처럼.”

“맞아요.” 브라운 신부는 걸음을 멈추고 나뭇가지 사이로 달을 응시했다. “저 위 가지가 좀 이상하군요.”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뭇가지가 부러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 떨림은 듣는 이들을 알 수 없이 오싹하게 만들었다. 달빛에 어둠으로 선명하게 비친 나무 가지에서, 마치 죽은 나뭇가지처럼 흐느적거리는 무언가가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은 가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무엇이냐고 궁금증을 품고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 그러자 페너가 쩌렁쩌렁한 욕설을 내뱉으며 다시 물러섰다. 그리고는 다시 달려가, 회색 머리카락이 축 처진 채 매달린 더러운 작은 시체의 목에 묶인 밧줄을 풀었다. 그는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놓기 전에도, 그 몸이 이미 죽은 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매달린 가지와 시체를 연결하는 밧줄은 비교적 짧았지만, 가지에는 매우 긴 밧줄이 여러 겹으로 감겨 있었다. 시체 발밑에서 긴 정원용 물통이 1야드쯤 굴러나가 있었다. 자살한 사람이 발밑에서 받침대를 차 버린 것처럼 말이다.

"세상에!" 알보인이 외쳤다. 그 목소리는 저주라기보다 기도처럼 들렸다.

"그 남자가 그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알면, 그는 스스로 목을 매고 싶을 거야.' 그게 그의 말이 맞습니까, 브라운 신부?"

"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저도 이런 말을 듣거나, 이런 광경을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반담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다. "하지만 저주가 제 역할을 한 것 외에는, 다른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페너는 얼굴을 가린 채 서 있었다. 신부가 그의 팔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물었다.

“그 사람을 정말 아끼셨습니까?”

비서는 손을 내렸다. 달빛 아래 그의 하얀 얼굴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창백했다.

“그를 미워했습니다. 정말로, 지옥처럼요. 만약 그에게 저주가 내려져 죽었다면, 그 저주가 바로 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신부의 손이 그의 팔을 더 단단히 쥐었다. 그는 지금까지 보인 적 없는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의 저주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 지역의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네 명의 증인들을 다루는 데 상당한 난관에 부딪혔다. 네 사람 모두 평판이 좋았고, 상식적인 의미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중 한 명은 실로 막강한 권력과 중요성을 지닌 인물이었다. 석유 재벌 실라스 밴담이 바로 그였다.

그의 진술에 의구심을 표시하려던 첫 번째 경찰관은, 그 거물의 마음속 강철에서 불과 몇 초 만에 불꽃을 튀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실 따위에 얽매이지 말라고 내게 말하지 마시오." 백만장자는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나는 수많은 사

실을 고수해 왔고, 그중 몇몇은 지금도 내게 달라붙어 있소. 당신이 제대로 받아적는 안목만 있다면, 내가 사실을 전부 말해 주겠소."

해당 경찰관은 아직 젊고 서열도 낮았다. 그는 백만장자가 정치적으로 너무 영향력이 커서 일반 시민처럼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흐릿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백만장자와 그의 동료를 더 무뚝뚝한 상급자, 즉 콜린스 경감에게 넘겼다. 콜린스 경감은 회색 머리를 한 남자로, 말투는 무뚝뚝하면서도 안락했다. 그는 친근했지만, 장난은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음, 음." 그는 눈동자를 반짝이며 앞에 선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좀 이상한 이야기인 것 같군."

브라운 신부는 이미 평소 하던 일들을 마친 뒤였다. 하지만 실라스 밴담은 그 거대한 시장 사업조차 잠시 멈추고, 자신이 겪은 놀라운 일을 증언하기 위해 시간을 내었다. 페너는 비서로서 직무를 다 했으나, 그 일은 고용주의 죽음과 함께 자연스럽게 끝이 났다. 또한 거대한 예술가 알보인은 뉴욕은 물론 어디에도 할 일이 없었다. 그는 오직 '생명의 숨결' 종교나 '위대한 영혼'을 알리는 일에만 몰두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당장의 이 일에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다른 일이 없었다.

결국 세 사람은 경감의 사무실에 줄지어 서서 서로의 증언을 뒷받침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단 이 말부터 해두는 게 좋겠네," 경감이 쾌활하게 말했다. "기적 같은 이야기는 내게 하지 마라.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고 경찰관이다. 그런 건 사제나 목사들이나 하는 말이다.

네 신부는 끔찍한 죽음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로 너희를 들쑤셔 놓았지만, 나는 그 신부와 그의 종교는 완전히 배제할 것이다. 윈드가 그 방에서 나왔다면, 누군가 그를 내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윈드가 그 나무에 매달려 발견되었다면, 누군가 그를 그곳에 매달았을 것이다."

"맞습니다." 페너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 증거는 아무도 그를 내보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도대체 누가 그를 저기에 매달았느냐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얼굴에 코를 달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형사가 물었다.

"그는 얼굴에 코를 달고 있었고, 목에는 올가미가 감겨 있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이오. 내가 말했듯이, 나는 실용적인 인간이라 사실에 기반해 판단하지. 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으니, 결국은 누군가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일 뿐이오."

알보인은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넓은 몸매는 앞쪽에 선 야위고 활기찬 남자들 뒤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배경처럼 보였다. 그의 흰 머리는 어느 정도 정신이 다른 데에 쏠린 듯 고개 숙여 있었다. 그러나 경감이 마지막 말을 끝내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사자처럼 하얀 갈기를 흔들며, 어리둥절하지만 깨어난 듯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

다. 그는 무리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다. 사람들은 그가 이전보다 더 거대해 보인다는 모호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그를 어리석은 자나 사기꾼으로 여기기 쉬웠다. 하지만 그는 틀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서풍이 힘을 모은 듯한 깊은 숨과 생명이 있었다. 언젠가 그 힘은 가벼운 것들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군, 콜린스 씨. 당신은 실용주의자군요."

그는 부드럽지만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이 짧은 대화 동안 당신이 실용주의자라고 두세 번이나 강조했소. 그래서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니겠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야. 당신의 전기, 서신, 그리고 다섯 살 때의 초상화, 할머니의 다게로타입, 고향 풍경까지 담아낼 작가라면 누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물론 당신의 전기 작가라면 당신이 들창코에 여드름이 있었고, 살이 너무 찐 나머지 걷기조차 어려웠다는 사실도 빼먹지 않겠지.

당신이 실용주의자라면, 한 가지 더 실천해보게. 워런 윈드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실용주의자가 어떻게 단단한 나무 문을 통과하는지 정확히 밝혀보게.

하지만 나는 당신이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오. 당신은 실용주의자가 아니오. 당신은 '실용적인 농담'이오. 바로 그것이 당신의 정체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각해내실 때, 우리를 조금 장난스럽게 여기셨던 모양이오."

그는 특유의 극적인 감각을 발휘해, 놀란 경감의 대답을 기다리기 전에 이미 문 쪽으로 쏜살같이 나아갔다. 그 후로 어떤 비난과 변명도 그의 그 승자 같은 태도를 지워버리지 못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군요." 페너가 말했다. "그들이 실용주의자라면, 저는 신부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당국이 이 사건의 배후와 그것이 함의하는 바를 완전히 파악했을 때, 공식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려는 또 다른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미 이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가장 선정적이고, 심지어 당당할 정도로 초자연적인 형태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반담의 기적 같은 모험에 대한 인터뷰, 브라운 신부와 그의 신비로운 직관에 관한 기사들이 잇따르자, 대중을 이끄는 책임을 느끼는 이들은 대중을 더 현명한 길로 이끌고 싶어 했다. 다음 번에는 불편한 증인들을 더 간접적이고 세심한 방식으로 대했다. 그들은 거의 가벼운 어조로, 바르 교수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경험에 매우 관심이 많으며, 특히 그들의 놀라운 사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바르 교수는 저명한 심리학자였으며, 형사학에 대해 차분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경찰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그들보다 훨씬 나중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바르 교수는 예의 바른 신사였다. 연회색 옷에 예술가적인 넥타이, 그리고 고운 수염을 가진 그는, 특정 유형의 교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풍경화가로 오인할 만했다. 그의 태도에는 예의뿐만 아니라 솔직함도 서려 있었다.

“네, 네, 알아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겪었을 고생을 짐작할 수 있죠. 경찰은 심령적인 조사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죠, 그렇지 않나요? 물론, 친절한 콜린스 씨는 사실만 필요하다고 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실수인지요. 이런 사건에서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상상이 더 절실하죠.”

반담이 진지한 어조로 물었다.

"당신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단지 환상에 불과했다는 말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교수가 말했다. “나는 단지 경찰이 이런 일들에서 심리적 요소를 무시하고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야. 음, 물론 심리적 요소는 모든 것의 핵심이지. 비록 아직 그 중요성이 완전히 이해되기 시작한 단계에 불과하지만 말이야.”

“먼저 ‘개성’이라는 요소부터 생각해 보자. 나는 이미 이 신부, 브라운 신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 그는 우리 시대의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 중 한 명이지. 그런 사람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풍기곤 해.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신경은 물론이고, 심지어 감각까지도 일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어.”

“사람들은 최면에 걸려. 그래, 최면에 걸린다는 거야. 최면도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 그것은 일상적인 대화에도 약간씩 스며들어 있어. 반드시 야회복을 입은 남자가 공공 홀의 연단 위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

"브라운 신부의 종교는 항상 이러한 '분위기의 심리학'을 이해해 왔어. 그리고 모든 감각에 동시에 호소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지. 예를 들어 후각 같은 것도 말이야. 종교는 음악이 동물과 인간에게 미치는 기묘한 효과들을 이해해. 그것은 할 수 있어—"

"젠장." 페너가 반박했다. "네가 그 녀석이 교회 오르간을 들고 복도를 걸어갔다고 믿는다는 거야?"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걸세." 베어 교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모든 영적인 소리들과 빛, 심지어 냄새까지도 몇 가지 절제된 제스처로 응축하는 법을 알고 있네. 예절이나 매너라는 하나의 예술, 혹은 학파처럼 말이야. 그가 단지 그곳에 서 있기만 해도, 우리의 시선을 초자연적인 것에 집중시켜 버릴 수 있어. 그러면 자연스러운 사물들은 좌우로 스르르 사라져, 눈에도 띄지 않게 되지.

자, 이제 알겠지?" 그가 다시 평범한 상식으로 돌아와 말했다. "우리가 그것을 연구할수록, 인간의 증거라는 문제 전체가 점점 더 기이해져 간다는 사실을 말이야. 스무 명 중 한 명도 제대로 무언가를 관찰하지 못해. 백 명 중 한 명도 정확하게 관찰하지 못하지. 더군다나 관찰하고,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은 백 명 중 한 명도 없어.

과학 실험이 반복적으로 증명했잖아. 긴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문이 열려 있는데 닫혀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닫혀 있는데 열려 있다고 착각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는 벽에 문이나 창문이

몇 개 있는지 서로 다르게 기억하기도 해. 환한 대낮에도 시각적 착시를 겪지.

그리고 이런 일은 타인의 인격이 주는 최면 효과조차 없이도 그랬어.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인격이 있지. 그 인격은 오직 한 장면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려 애쓰고 있어. 바로 하늘을 향해 권총을 겨누고 허무한 사격을 가하는, 그 울림이 천둥소리처럼 들렸던 아일랜드 반란군의 모습 말이야."

"교수님, 제 죽는 자리에서 저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다고 맹세하겠습니다."

"최근 실험 결과에 따르면," 교수가 조용히 이어 말했다. "우리의 의식은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화 필름처럼 매우 빠른 인상들의 연속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장막이 내려진 틈을 타 끼어들거나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존재는 오직 장막이 내려진 순간에만 활동합니다. 아마도 마술사들의 손놀림이나 모든 속임수의 핵심에는, 우리가 '시야가 끊기는 검은 섬광'라고 부르는 그 순간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제이자 초월적 사상을 설교하던 남자는, 당신에게 초월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거인처럼 저주를 외치며 탑을 흔드는 켈트족의 모습 말입니다. 그는 아마도 그 말에 맞춰, 당신을 아래쪽 알 수 없는 파괴자를 향해 눈과 마음을 이끌 만한, 작지만 강력한 제스처를 보였을 것입니다.

혹은 다른 일이 일어났거나, 누군가가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인 윌슨이 복도를 지나 벤치에 앉아 기다렸지. 하지만 그는 우리를 크게 방해하지 못한 것 같아." 알보인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정확히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 법이지요." 베어가 대답했다. "그것일 수도 있고, 신부가 마술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손짓을 따라가던 당신의 시선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워런 윈드가 문밖으로 나갔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도 바로 그런 검은 번개의 순간이었죠. 가장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발견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간의 마음은 끊이지 않는 선이 아니라, 점으로 이어진 선과 같은 것입니다."

"선이 아주 끊겨 있군요," 페너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신이 나갔다고까진 안 하겠지만 말이야."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베어가 물었다. "당신의 고용주가 상자처럼 닫힌 방 안에 갇혀 있었다고?"

"저는 제 정신을 차리고 이 padded cell(방음 처리된 감옥 같은 방)에 갇히는 것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페너가 대답했다.

"선생님의 제안들이 바로 그 점을 불만스럽게 만드는군요. 저는 신부가 기적을 믿는다고 해서 믿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사실을 믿을 권리가 있는지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신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가 알지 못하는 더 높은 정의의 법칙에 따라 복수를 간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가난한 패디의 기도나 총성이 더 높은

세계에서 들릴 수 있다면, 그 더 높은 세계는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일 지언정 어떤 방식으로든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제가 가진 오감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사실들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 마음의 맹점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지나갔다면, 블런더버스(나팔총)를 든 아일랜드인 행렬이 이 방을 지나갔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수도사식 기적들, 즉 악어를 현출하거나 햇살에 외투를 걸어두는 것들은 선생님 말씀에 비하면 오히려 매우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음, 알겠소." 베어 교수가 다소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신부와 그 기적적인 아일랜드인을 믿기로 마음먹었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소. 당신에게 심리학을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모양이오."

"아니요." 페너가 건조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심리학자를 연구할 기회가 있었죠."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표단을 이끌고 방을 나섰다. 그리고 거리로 나온 뒤에야 입을 열었다. 그때 그의 말투는 다소 격앙되어 있었다.

"미친 소리를 하는 자들이야!" 페너가 분에 겨워 외쳤다. "누가 그걸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조차 알 수 없는데, 세상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그 바보 같은 머리를 빈 총알로 날려버리고, 그러고 나서 '눈이 멀었던 한순간의 착각 속에서 그랬다'고 설명했어야 했는데."

브라운 신부의 기적이 기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도, 그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이 빌어먹을 괴짜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목격하고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뿐이다.

자, 보라. 우리는 신부님께 자신의 작은 시연에 대한 증언을 해줄 의무가 있다. 우리는 모두 정상적이고 단단한 남자들이다. 우리는 어떤 것도 믿지 않았다. 우리는 술에 취해 있지 않았다. 우리는 경건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일이 일어났을 뿐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백만장자는 말했다. "영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일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길에 서 있는 사람, 즉 브라운 신부님께서는 이 사건에서 분명히 한 수 위를 가고 계십니다."

며칠 후, 브라운 신부는 실라스 T. 반담이 보낸 매우 정중한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소실된 현장을 방문하여 그 기이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정해진 시각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미 그 사건은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고, 초자연 현상에 열광하는 이들에게는 뜨거운 관심사가 되어 있었다. 신부는 문 크레센트 거리로 향하며 '실종된 남자의 자살', '사나이의 저주, 자선가를 목매달다' 같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포스터들을 지나쳤다. 그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랐다.

그곳에는 그가 떠날 때와 똑같은 작은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반담과 알보인, 그리고 비서가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신부를 대

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과는 달리, 그들의 목소리에는 경외감까지 섞여 있었다.

그들은 윈드의 책상 곁에 서 있었다. 책상 위에는 큰 종이와 필기구들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신부의 도착을 반기며 고개를 돌렸다.

화자, 즉 백발의 서부 출신 남자가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책임감에서 오는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브라운 신부, 우리가 당신을 여기 모신 첫 번째 이유는 사과와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그 영적인 현상을 간파한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단단한 껍질을 가진 회의론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껍질을 깨야만 세계 뒤에 숨겨진 위대한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그런 것들을 대변합니다. 당신은 초자연적 설명을 옹호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이어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문서에 당신의 서명이 빠지면 완성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문 기사들이 정확하다고 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심리 연구 협회에 통보하려 합니다. 우리는 저주가 거리에서 발음된 방식, 그 남자가 상자처럼 방 안에 봉인된 방식, 저주가 그를 순식간에 공중으로 흩뜨리고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교수대에 매달린 자살자로 재현해 낸 방식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

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본 모든 것을요. 당신이 이 기적을 믿은 첫 번째 사람이었으니, 서명도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우리는 모두 생각합니다."

"아니요, 정말로요." 브라운 신부는 당황한 듯 말했다.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먼저 서명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뜻이오?"

"전 서명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겸손하게 말했다. "보시다시피, 저 같은 처지의 사람이 기적을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거든요."

"당신이 그걸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알보인이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어딘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적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한 말은 그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 될 테니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당신은 그것이 기적이라고 결론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이라든가 마술, 혹은 그런 종류의 말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부님, 신부님은 기적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서가 갑자기 외쳤다.

"네," 브라운 신부가 대답했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사나운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일도 믿고요. 하지만 그런 호랑이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기적이 필요하면, 저는 어디서 구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브라운 신부님, 그쪽 입장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반담이 간절하게 말했다. "너무나 좁은 시각이요. 비록 신부님이라지만, 당신을 좁은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기적은 모든 유물론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실제로 존재하며, 실제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큰 글자로 알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신부님이라면 누구보다도 종교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부는 몸이 살짝 굳었다. 비쩍 마른 그의 체격과는 달리,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러나 개인적인 색채를 벗어난 위엄을 갖추고 있는 듯했다.

"자, 말해보자. 내가 알기에도 거짓인 것으로 종교를 섬기라고 제안하는 건가?"

"나는 그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소. 솔직히 말해, 당신이 그 뜻을 아는지도 잘 모르겠소. 거짓말이 종교를 섬기는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신을 섬기는 일은 결코 아니오."

당신이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토록 집요하게 캐묻는다면, 오히려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당신이 어떤 개념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백만 달러를 가진 남자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군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브라운 신부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 일이 영적인 힘의 소산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영적인 힘이라는 거죠? 성스러운 천사들이 그를 데려다 정원의 나무에 매달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불경한 천사들로 말하자면, 아니, 아니, 아니. 이 일을 저지른 자들은 악한 일을 했지만, 그들의 악함은 그들 자신의 수준을 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힘을 다룰 만큼 충분히 악하지는 못했던 거죠. 제 죄악 때문에 사탄주의에 대해 조금은 압니다. 강제로 알게 되었죠.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의 항상 어떤 것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하고 간교합니다. 우월함을 좋아하죠. 반쯤 이해된 것들로 순진한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아이들의 소름을 돋게 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미스터리와 입문 의식, 비밀 결사 같은 것들을 유난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것의 시선은 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엄 있고 진지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항상 작은 광기 어린 미소를 숨기고 있죠."

그는 갑자기 추운 바람을 맞은 듯 몸이 떨렸다. "그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들과 이 일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제 그 가엾고 미친 아일랜드인 청년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는 거리를 비명을

지르며 달렸고, 제 얼굴을 처음 본 순간 반쯤은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토해낼까 봐 두려워 도망쳤죠. 사탄이 그에게 어떤 비밀을 털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음모에 가담한 것은 인정합니다. 아마도 자신보다 더 나쁜 두 명의 남성과 함께한 음모였겠죠. 하지만 그가 골목으로 달려가 총을 쏘고 저주를 퍼부을 때, 그는 그저 끝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오?" 반담이 물었다. "장난감 권총을 쏘고 두 페니짜리 저주를 퍼부은 것쯤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소. 기적이라도 없다면 말이오. 윈드가 요정처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소. 목에 밧줄을 맨 채 4분의 1마일 떨어진 곳에서 다시 나타나게 할 수도 없소."

"아니요." 브라운 신부가 날카롭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작용을 할까요?"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백만장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말이야, 그게 대체 무슨 일을 일으키겠느냐?" 신부가 반복했다. 처음 보는 듯한, 짜증에 가까운 흥분 섞인 표정으로.

"너는 빈 총알 한 발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고만 되풀이한다. 만약 그게 전부라면 살인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정작 궁금해해야 할 것을 묻지 않는 것 같구나.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네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봤느냐? 만약 정신나간 놈이 이유도 없이, 네 창문 바로 아래에서 총을 쏜다면?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은 무엇일까?"

반담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창밖을 좀 봐야겠군요."

"네, 창밖을 내다봤겠지요. 그게 전부입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변명할 만한 사정도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내다본다고 해서 어떻게 그를 해칠 수 있단 말인가?" 알보인이 물었다. "만약 창밖으로 떨어졌다면, 이미 골목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을 테니까."

"아니요." 브라운 신부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목소리에 구리 종을 두드린 듯한, 파멸의 기운이 서려 있었지만, 그는 계속 말했다.

"그는 날개를 달고 날아오른 것이 아닙니다. 성스러운 천사든, 악마든, 어떤 날개도 없이 말입니다. 그는 밧줄 끝에 매달려 올랐습니다. 정원에서도 보셨던 바로 그 모습으로요.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자마자, 밧줄의 올가미가 그의 머리를 덮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큰 하인 윌슨을요. 그는 힘이 장사였죠. 반면 윈드는 말 그대로 작은 새우처럼 여리여리했습니다. 윌슨이 위층으로 올라가 팸플릿을 가져왔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방에는 밧줄이 코일처럼 쌓여 있었죠. 그날 이후로 윌슨은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당신은 윌슨이 그 사람을 낚시줄에 낀 송어처럼 자신의 창문으로 깔끔하게 끌고 나갔다는 뜻인가요?" 비서가 물었다.

"네,"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그리고 그를 다른 창문으로 내려보냈지. 공원으로요. 거기서 세 번째 공범이 그를 나무에 걸어뒀어요. 그 골목은 항상 비어 있었다는 점, 맞은편 벽은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벽이었다는 점, 그리고 아일랜드인이 총으로 신호를 보내고 나서 다섯 분도 채 걸리지 않아 모든 일이 끝났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당연히 세 명이 관여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세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 추측할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세 사람은 모두 평범한 사각 창문과 그 너머의 하얗고 빈 벽만 응시하고 있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참고로," 브라운 신부가 말을 이었다. "초자연적인 결론으로 급히 뛰어들었다는 걸 탓하지는 말라.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너희 모두 스스로 '껍질이 단단한 유물론자'라고 했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너희 모두, 거의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의 아주 끝자락에 서 있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 하지만 그곳은 날카롭고 불편한 자리다.

무언가를 믿어야만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법이다. 그래서 반담 씨는 새로운 종교들을 치밀하게 뒤졌고, 알보인 씨는 호흡 운동이라는 종교를 위해 성경을 인용했다. 페너 씨는 자신이 부정하는 신에게까지 불평을 늘어놓았다. 바로 거기서 너희는 갈라섰다.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직 자연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법이다.

비록 너희가 이 일들을 두고 초자연주의로 기울어질 뻔했지만, 사실 이 일들은 그저 자연적인 일들에 불과했다. 그것들은 자연적일 뿐만 아니라, 거의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단순했다. 아마 이토록 단순한 이야기는 처음이었을 것이다."

펜너가 웃다가 이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만약 범인이 윌슨이었다면, 윈드가 어찌 저런 사나이를 그렇게 가까운 사이로 두었을까요? 게다가 그는 수년간 매일 마주쳤던 남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잘 알아보는 안목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드물게 보였던 그토록 강렬한 힘을 담아 우산을 바닥에 내리쳤다.

"네," 그가 거의 격분한 어조로 말했다. "그가 죽은 이유도 바로 그거야. 그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지."

모두가 그를 응시했지만, 그는 그들을 무시한 듯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사람이 어찌 감히 사람을 심판하겠는가?" 그가 물었다.

그 세 사람은 한때 그의 앞에 섰던 노숙자들이었다. 그는 그들을 우아하게 맞이하지도, 친밀감을 나누지도, 친구로서의 자유로운 선택을 베풀지도 않았다. 단지 그들을 이리저리, 이곳저곳으로 제각기 황급히 내쳤을 뿐이다.

그 순간, 그가 그들을 단번에 알아본 그 찰나에 태어난 모욕은 깊이가 깊어 헤아릴 수 없었다. 그리고 이십 년이 흘러도, 그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네," 비서가 말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조차도요."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서부 출신의 활달한 신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의 윌슨과 그 아일랜드 사람은 그저 자기 은인을 죽인 살인자일 뿐이다. 내 도덕관으로는, 종교든 아니든, 피투성이가 된 그런 암살자는 용납할 수 없다."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피투성이의 암살자였지." 페너가 조용히 말했다. "그를 변호하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브라운 신부에게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설령 그런 인간을 위해서라도."

"네, 맞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워런 윈드 같은 사람조차도 말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황금 십자가의 저주

여섯 사람이 작은 식탁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마치 서로 다른 배들이 난파되어 같은 작은 무인도에 표류한 사람들처럼, 그들은 어색하고 우연적인 인상까지 풍겼다. 적어도 바다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으니 말이다. 사실 그들의 '섬'은 또 다른 섬, 라푸타처럼 크고 날아다니는 섬 안에 감싸여 있었다. 작은 식탁은 거대한 선박 '모라비아'호의 식당 홀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수많은 식탁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 거대한 배는 밤과 끝없는 대서양의 공허함을 가르고 달리고 있었다.

이 작은 무리에게는 공통점이 없었다. 다만 모두 미국에서 영국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뿐이었다. 적어도 두 명은 명사라고 불러도 좋았다. 다른 이들은 무명이라 할 수 있었고, 한두 명은 심지어 의심스러운 인물들이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유명한 스메일 교수였다. 그는 후기 비잔틴 제국과 관련된 고고학 연구 분야의 권위자였다. 미국 대학에서 강연을 펼친 그는, 유럽의 가장 권위 있는 학문 중심지에서도 최고 권위로 인정받았다. 그의 저서는 유럽의 과거에 대해 부드럽고 상상력이 풍부한 공감을 담고 있어, 외국인들은 그가 미국식 억양으로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종종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렇지만 그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미국적이었다. 그는 큰 사각형 이마를 향해 빗어 올린 긴 금발을 가졌고, 길고 곧은 얼굴선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과 함께, 잠재된

민첩함을 지닌 균형 감각을 갖추고 있었다. 마치 다음 도약을 멍하니 생각에 잠긴 사자처럼 보였다.

모임에 참석한 여성은 단 한 명이었다. 기자들이 자주 말하듯, 그녀는 그 자체로 한 명의 주최자였다.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자리에서든 마담은 물론 여제나 다름없는 위엄을 갖추어 손님들을 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다이애나 웰즈 여사였다. 열대 지역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누비며 이름을 날린 유명한 여성 여행가였다. 하지만 저녁 식탁 위의 그녀의 모습에서 거칠거나 남성적인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거의 열대적인 풍채로 당당한 미모를 지니고 있었다. 붉고 무거운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늘어져 있었다. 기자들이 '도발적인'이라고 표현하는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지혜로워 보였고 눈빛은 밝았다. 그리고 다소 튀어나온 듯한 눈매는 정치적 모임에서 질문을 던지는 여성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었다.

그 네 명의 인물은 처음에는 이 눈부신 존재 앞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각자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그중 한 명은 승객 명부에 '폴 T. 타란트'로 등록된 젊은이였다. 그는 미국인이라기보다, 오히려 '미국인의 반대형'에 가까운 타입이었다. 아마도 모든 민족에는 자신들의 규칙을 증명하는 극단적인 예외, 즉 '반대형'이 존재할 것이다.

미국인들은 실제로 일을 존중한다. 유럽인들이 전쟁을 존중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말이다. 일에는 영웅적인 빛이 감돌고, 그것을 피하는 자는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형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 존재가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단디(dandy)다. 혹은 더디(dude)다. 수많은 미국 소설에서 약한 악역으로 등장하는, 부유하지만 낭비적인 인물 말이다.

폴 타란트는 할 일이 전혀 없어 보였다. 다만 하루에 여섯 번쯤 옷을 갈아입을 뿐이었다. 그는 정교한 연회색 정장을 입었는데, 색조가 더 옅어지거나 더 짙어지는 것을 반복했다. 마치 황혼의 은빛이 섬세하게 변하듯 말이다.

대부분의 미국인과 달리, 그는 짧고 곱슬거리는 수염을 매우 정성스럽게 가꿨다. 그리고 그의 타입에 속하는 대부분의 단디들과 달리, 그는 과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쾌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침묵과 우울함에는 어쩌면 바이런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도착한 두 여행자는 자연스럽게 한 묶음으로 분류되었다. 둘 다 미국 강연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영국인 강사였기 때문이다.

한 명은 레오나드 스미스라는 이름의 인물이었다. 그는 명백히 시인으로는 소박했지만, 기자로서는 꽤 영향력 있는 인물로 보였다. 머리가 길쭉하고 머리카락은 밝은 색이었으며, 옷차림은 완벽했고 스스로를 잘 챙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

반면 다른 한 명은 그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그는 키가 작고 체격이 굵었으며, 검은 바다코끼리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성격도 남달랐다. 한쪽이 말이 많았던 반면, 그는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는 여행 중 기르는 동물들 사이에서 재규어의 위협을 받던 루마니아 공주를 구한 공로로 칭송받는 한편, 절도죄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런 일화 덕분에 그는 유행하는 사건에 이름을 올린 셈이었다. 따라서 그는 신, 진보,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영미 관계의 미래에 대해 흥미롭고 가치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미니애폴리스와 오마하의 주민들에게 그의 말은 큰 관심을 끌 것이었다.

여섯 번째, 그리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인물은 브라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영국의 사제였다. 그는 존경 어린 태도로 그 대화를 경청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 대화 속에 다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었다.

"교수님, 그 Byzantine 연구가 이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까요? 남쪽 해안, 브라이튼 근처에서 무덤이 발견된 사건 말입니다."

레오나드 스미스가 물었다.

"브라이튼은 Byzantium에서 꽤 먼 곳이지만, 매장 방식이나 시신 보존 방법이 Byzantine 스타일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잔틴 연구는 확실히 먼 곳을 바라봐야 하죠." 교수가 차갑게 대답했다. "전문가를 논하곤 하지만, 저는 세상에 specialization(세분화·전문화)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를 보십

시오. 로마 이전의 역사와 이슬람 이후의 역사를 모두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비잔틴에 대해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아랍 예술은 오래된 비잔틴 예술이었습니다. 알제브라 같은 것만 봐도 말이죠."

"하지만 저는 대수학은 받지 않겠어요."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전에도 안 받았고, 앞으로도 절대 받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부패 방지 기술에는 아주 관심이 많아요. 기억나시겠지만, 가튼이 바빌로니아 무덤을 개봉했을 때 저도 함께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미라나 보존된 시체 같은 것들을 보면 언제나 설렙니다. 이 분에 대해 좀 들려주세요."

"가튼은 흥미로운 인물이었죠." 교수가 말했다. "그 집안은 다들 흥미로웠죠. 의회에 진출한 그 형제는 평범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탈리아에 관해 한 연설을 듣기 전까지는, 저는 파시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이번 여행에는 이탈리아로 가지 않아요." 다이애나 부인이 고집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도 무덤이 발견된 그 작은 곳으로 가려는 거죠. 서식스가 맞나요?"

"서식스는 이 작은 영국 지방들 중에서는 꽤 넓은 편입니다." 교수가 대답했다. "그곳을 걷다 보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걷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지요. 그 낮은 언덕들은 실제로 올라서 보면 생각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갑작스럽고 우연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아, 나는 갑판으로 올라갈게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들도 따라 일어섰다.

하지만 교수는 자리에 머물렀다. 그리고 작은 사제, 즉 브라운 신부가 식탁을 마지막으로 떠났다. 그는 냅킨을 꼼꼼하게 접었다.

그렇게 두 사람만 남았다. 그러자 교수가 갑자기 옆에 있는 이에게 물었다.

"그 짧은 대화의 요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브라운 신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으시니 말씀드리자면, 조금 웃긴 점이 있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 분들은 세 번에 걸쳐 교수님께 서식스에서 발견됐다는 방부 처리된 시체에 대해 말해 보라고 재촉했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정중하게 응하셨죠. 처음에는 대수학을, 다음으로는 파시즘을, 마지막으로 다운스의 풍경에 대해 말해 드렸죠."

"요컨대," 교수가 대답했다. "당신은 내가 그 주제 말고는 어떤 이야기든 하겠다고 생각한 모양이군요. 당신 말이 아주 옳았습니다."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 탁자보만 내려다보던 그가, 이내 고개를 들고 말문을 열었다. 그의 말투에는 사자가 뛰어오르는 듯한 급박한 기개가 서려 있었다.

"여기, 브라운 신부." 그가 말했다. "나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현명하고, 가장 깨끗한 사람이 당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운 신부는 매우 영국적이었다. 그는 갑자기 미국식 방식으로 자신의 얼굴을 향해 진심 어린 찬사를 건네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전형적인 영국인의 모습이었다. 그의 대답은 의미 없는 중얼거림에 불과했다. 그러자 교수는 같은 단조롭고 진지한 어조로 계속 말했다.

"보시다시피, 일정 부분까지는 모든 것이 매우 간단합니다. Sussex 해안가에 있는 Dulham의 작은 교회 아래에서, 어둠의 시대에 속한 기독교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한 주교의 무덤이었습니다. 그 교구의 목사는 본래 고고학에 조예가 깊은 분이라,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시체가 그리스인과 이집트인 특유의 방식으로 부패 방지 처리를 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서양에서는 특히 그 시대에 그런 관습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터스 목사(그가 바로 그 목사입니다)는 자연스럽게 비잔틴의 영향력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일도 언급했는데, 그것은 저에게 더욱 개인적인 관심사를 안겨줍니다."

그의 길고 무거운 얼굴이 더욱 길고 무거워 보였다. 그는 식탁보를 내려다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그의 긴 손가락이 식탁보 위에서 마치 죽은 도시와 그들의 신전, 무덤의 지도를 그리는 듯이 무늬를 그리고 있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만 하겠다. 다른 이들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왜 내가 그 일을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꺼내 말하기 조심스러운지, 그리고 그들이 그 화제에 더 열을 올리면 할수록 내가 더 신중해져야 하는지 설명해 주마.

또한 관 안에는 십자가가 달린 사슬이 들어 있다고 한다. 겉보기에는 흔한 물건이지만, 뒷면에는 세상에서 오직 다른 한 곳의 십자가에만 있는 비밀스러운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이는 가장 초기 교회의 신비 중 하나로, 로마에 가기 전 안티오키아에서 성 베드로가 교구를 세웠음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한다. 어쨌든 내 생각엔 이와 같은 것이 또 하나 존재하는데, 그것은 내 소유다.

그것에 저주가 걸려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들었지만, 나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저주가 있든 없든,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히 음모가 존재한다. 다만 그 음모를 꾸미는 이는 단 한 명이어야 할 뿐이다."

"한 사람만을?" 브라운 신부가 거의 기계적으로 되물었다.

"아마도 미친 사람 하나 때문이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스메일 교수가 말했다. "긴 이야기이고, 어딘지 모르게 어리석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식탁보 위에 손가락으로 무언가의 도면을 그리는 듯한 동작을 취한 뒤, 다시 말을 이었다.

"아마도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리는 게 좋겠군요. 혹시 이 이야기 속에 제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일은 몇 년 전, 제가 크레타섬과 그리스 섬들의 고고학 유물을 혼자 조사하고 있을 때 시작됐습니다. 저는 거의 혼자서 일을 진행했어요. 때로는 현지 주민들의 성의 없는 임시 도움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완전히 혼자서도 했습니다. 바로 그 혼자서 일할 때의 일입니다.

저는 지하로 이어지는 미로 같은 통로들을 발견했고, 그곳 끝에는 무언가 가라앉은 제단으로 보이는 곳의 유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값비싼 쓰레기 더미처럼 부서진 장신구와 흩어진 보석들이 널려 있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흥미로운 금십자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십자 뒤쪽에는 '이크투스', 즉 물고기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이는 초기 기독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양과 문양은 흔히 볼 수 있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 눈에는 더 사실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대 설계자가 그것을 단순한 관습적인 테두리나 후광으로만 의도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실제 물고기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쪽 끝이 평평하게 눌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기하학적 장식이 아니라, 마치 원시적이거나 야생적인 동물학의 일종처럼 보였습니다."

이 발견이 왜 중요했는지, 아주 간략히 설명해야겠다. 우선 이 발굴의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이 작업은 일종의 '발굴의 발굴'과도 같았다.

우리는 단순히 고대 유물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고대 시대의 골동품 연구가들, 즉 그 옛 시대의 고고학자들을 쫓고 있었던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 지하 통로들이 미노아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미노타우로스의 미궁으로 알려진 그 유명한 통로와 유사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런 통로들이 미노타우로스 시대부터 현대의 탐험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월 동안 방치되고 잊혀진 채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사실, 이러한 지하 공간들, 거의 지하 도시나 마을이라 부를 만한 곳들은 이미 그 사이의 기간 동안 누군가에 의해 탐사된 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었다.

일부 학자들은 로마 황제들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에서 공식적인 조사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다른 이들은, 후기 로마 제국에서 아시아의 미신적 종교들이 유행하면서, 어떤 이름 없는 마니교 종파나 다른 이단 종파가 태양 빛을 피해 동굴에서 격렬한 의식을 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나는 이 동굴들이 초기 기독교도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든 곳, 즉 카타콤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믿는 편에 서 있다. 즉, 제국 전역으로 번진 박해의 시기에 기독교도들이 이 고대 이교도들의 석조 미궁 속에 숨어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떨어졌던 금십자를 발견하고 들어 올렸을 때, 그 위에 새겨진 문양을 본 나는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충격과 함께 심

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 빛이 비치는 위로, 밖으로 나아가려 몸을 돌렸을 때, 나는 더 큰 기쁨의 충격에 휩싸였다.

낮고 긴 통로 양옆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맨바위 벽을 올려다보았을 때, 거칠고 투박한 선으로 새겨진 물고기의 형상을 본 것이다. 그 형상은 더욱 선명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 무언가가 그 그림을 화석 물고기, 혹은 얼어붙은 바다에 영영 고정된 원시적인 생물처럼 보이게 했다. 돌 위에 긁힌 단순한 그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비유를 나는 분석하지 못하다가, 문득 깨달았다. 내가 무의식 속에서 말하려던 것은 이랬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마치 물고기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것. 그들은 말수가 적었고, 황혼과 침묵으로 가득 찬 타락한 세상에 살았다. 사람들의 발치 아래로 멀리 떨어뜨려져 있었고, 어둠과 황혼, 소리가 없는 세계를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돌로 된 복도를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이지 않는 발소리에 뒤따르는 기이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발걸음마다 울려 퍼지는 메아리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따라붙어, 정말로 혼자인 사람조차 자신이 혼자임을 믿기 어렵게 만든다.

나는 이런 메아리의 효과에 익숙해져 있었고, 최근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지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바위 벽에 그려진 상징적인 형상을 발견했다.

나는 발을 멈췄다. 그 순간, 마치 내 심장도 함께 멈춘 것 같았다. 내 발은 이미 서 있었지만, 메아리의 발소리는 여전히 앞만 보고 행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 달려나갔다. 유령 같은 발걸음 소리도 함께 따라왔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메아리가 아니었다. 소리의 물질적인 반향처럼 정확히 나를 따라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멈춰 섰다. 발걸음 소리도 함께 멈췄다.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 발걸음이 멈춘 시점이, 내가 멈춘 순간보다 아주 살짝 늦었다는 것을.

나는 질문을 외쳤다. 내 목소리가 대답을 받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내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내 앞의 바위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습니다. 그 기이한 쫓아다님 내내,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존재가 항상 굽이진 길의 어떤 각도에서 멈춰 서서 말을 건넸다는 사실을요. 제 작은 손전등이 비출 수 있는 앞쪽 공간은 늘 빈 방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상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는 새벽하늘의 첫 희미한 빛이 비추기까지 이어졌고, 그 빛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저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로의 입구는 수많은 틈과 균열, 그리고 심연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어딘가로 재빠르게 몸을 숨겨 동굴의 지하 세계로 다시 사라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다만, 거대한 산의 외로운 계단, 마치 대리석 테라스 같은 곳에 올라왔다는 사실만 기억합니다. 그곳의 풍경은 바위의 순결함과는 달리, 고전적인 헬라스의 몰락기에 산발적으로 퍼져나간 동양의 침략자처럼 묘하게 열대적인 푸른 식생으로만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얼룩 하나 없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외로움과 침묵 그 자체에 끊임없이 빛을 비추고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날아갈 기미의 숨결조차 없는 풀잎 하나 없었고, 인간의 그림자조차 없는 그림자의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그 대화는 끔찍했다. 너무 친밀했고, 너무 개인적이며,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평범했다. 몸도, 얼굴도, 이름도 없으면서도 내 이름을 불러대는 그 존재는, 마치 우리가 클럽의 두 팔걸이 의자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는 듯한, 그 어떤 열정이나 극적 요소도 배제된 채로,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묻힌 그 지하실과 틈새에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나든, 물고기의 표지가 새겨진 십자가를 손에 넣은 다른 누구든 반드시 죽이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솔직하게, 미로 안에서 나를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장전된 리볼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도 나만큼이나 위험이 따랐다.

하지만 그는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나의 살해 계획을 성공할 확신 아래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모든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식으로. 마치 중국 장인이, 혹은 인도 자수공

이 일생의 예술작품에 쏟는 그러한 예술적 완성도를 갖춘 방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그는 동양인이 아니었다. 그는 백인임이 틀림없다. 나는 그가 나와 같은 나라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

그 이후로 나는 가끔씩 기묘한 신호와 상징, 그리고 무심한 메시지를 받아왔다. 그것들은 적어도 내게 한 가지 확실하게 느끼게 했다. 그 남자가 미친 사람이라면, 그는 한 가지에만 집착하는 편집광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항상 공허하고도 담담한 어조로, 나를 위한 장례 준비와 매장 작업이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왔다. 그리고 그 준비가 편안한 성공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물을 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바로 동굴에서 찾은 그 유일한 십자가 말이다.

그는 이 일에 대해 종교적인 감정이나 광신적인 열정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오직 골동품 수집가로서의 열정만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바로 그 점이 내가 그 남자가 동방인이 아니라 서방인임을 확신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특별한 수집욕이 그를 완전히 미치게 만든 것 같다.

그리고 Sussex의 무덤에서 미라가 된 시신 위에서 발견된 위조 유물에 대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다. 그가 전에 광인이었

다면, 이 소식은 그를 일곱 악마에 사로잡힌 마귀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

그 유물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니, 그것만으로도 이미 끔찍한 일이었다. 그런데 두 개나 있고, 게다가 둘 다 그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의 미친 편지들이 독화살이 쏟아지듯 쏟아져 왔다. 마지막 편지보다 더 자신만만하게, 그는 내가 무덤 속 십자가에 손길을 뻗는 순간, 죽음이 나를 치리라 외쳤다.

"당신은 나를 알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죽을 것이며, 누가 당신을 죽였는지 알지 못한 채 숨을 거둘 것이다. 나는 당신 주변에 있는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나타날 곳은, 당신이 보기를 잊어버린 그 한 곳뿐이다."

"그런 협박을 당했으니, 이번 원정에 내가 뒤를 밟힐 가능성이 높아요. 유물을 훔치거나,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해를 끼치려 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남자를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마주치는 사람 중 거의 누구나 그 남자일 수 있죠. 논리적으로 말하면, 식탁에서 저를 모시는 웨이터 중 누구든 그 남자일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식탁을 쓰는 승객 중 누구든 그 남자일 수 있죠."

"그가 나일 수도 있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문법 따위는 아랑곳없이 쾌활하게 말했다.

"그가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스몰이 진지하게 말했다. "방금 제가 한 말의 의미입니다. 당신만이 적군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브라운 신부는 다시금 당황한 기색을 띠었다. 그러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무튼 이상하게도, 저는 아닙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건 그가 정말 여기 있는지, 그가 — 그가 성가신 짓을 하기 전에 — 그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찾아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교수는 다소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사우스햄튼에 도착하면 저는 곧장 해안도로를 따라 차를 타고 이동할 생각입니다. 함께 가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소규모 팀이 여기서 해산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 중 한 명이 Sussex 해안의 작은 교회 묘지에 다시 나타나면,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교수의 계획은 무사히 실행되었다. 적어도 브라운 신부를 싣고 달린 자동차와 그 짐만큼은 말이다. 차는 한쪽으로는 바다를, 다른 쪽으로는 햄프셔와 서식스의 언덕을 끼고 도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달렸다. 뒤쫓아오는 자의 그림자라도 보일 리 없었다.

둘리엄 마을에 가까워지자,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만 그들의 길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방금 교회를 방문하고, 목사가 새로

발굴된 예배당까지 정중하게 안내해 준 뒤 나온 한 기자였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과 메모는 평범한 신문 기사 수준에 불과해 보였다.

그렇지만 스메일 교수는 어쩌다 약간 과잉 상상력을 발휘한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그 남자의 태도와 용모에서 묘하고도 실망스러운 뉘앙스를 떨쳐버릴 수 없었다. 키가 크고 옷은 낡았으며, 코는 갈고리처럼 굽었고 눈은 꺼져 있었다. 수염은 우울감에 절어 아래로 축 처져 있었다. 그는 최근 관광객으로서의 실험으로 인해 오히려 활력을 잃은 듯했다. 심지어 그들은 그에게 질문을 던질 때, 그가 그 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멀어지며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건 모두 저주 때문이에요.” 그가 말했다. “가이드북이나 목회자, 혹은 그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노인들이, 아니면 그 누구든 권위 있는 이들은 모두 그곳에 내려진 저주라고 말하죠. 정말로 그런 기분이 들 정도예요. 저주든 뭐든, 나는 그곳을 빠져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주 같은 걸 믿으세요?" 스몰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전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전 기자니까요.” 슬픔에 잠긴 그 남자가 대답했다. “데일리 와이어지의 부온입니다. 하지만 그 묘소에는 좀 이상한 기운이 도네요. 전 솔직히 소름이 끼쳤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 그의 걸음은 이전보다 더 빨라졌다.

"저 녀석은 큰까마귀나 까마귀 같군." 교회 묘지 쪽으로 발을 돌리며 스메일이 말했다. "나쁜 징조의 새라면서 뭐라고들 하지?"

그들은 교회 묘지로 천천히 들어섰다. 미국 고고학자의 시선은 린치 게이트의 외로운 지붕과, 한밤중 같은 어둠을 연상케 하는 커다랗고 깊고 검은 주목 숲을 유난히 애정 어린 눈으로 더듬었다.

그들은 푸른 바다 위에 띄워진 돌 뗏목들처럼 사방으로 기울어진 묘비들이 있는 울퉁불퉁한 잔디밭을 따라 언덕을 올랐다. 언덕 너머에는 거대한 바다가 마치 강철 막대기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차가운 빛이 번졌다.

발밑에서는 질긴 잡초가 바다호랑가시로 바뀌더니, 끝내 회색과 노란빛의 모래사장으로 이어졌다. 바다호랑가시에서 불과 한두 발짝 떨어진 곳, 차가운 바다를 배경으로 어둠 속으로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에 한 사람이 움직임 없이 서 있었다.

그가 입은 짙은 회색 옷을 빼면, 그는 마치 묘비 위에 세워진 석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브라운 신부는 즉시 그 사람의 어깨가 우아하게 굽은 자세와, 다소 우울해 보이는 짧은 수염의 돌출된 모양에서 무언가를 알아챘다.

“세상에!” 고고학 교수가 외쳤다. “저건 정말 인간이냐, 타런트라고 하는 자 말이야. 배 위에서 내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이렇게 빠른 답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지.”

“그 질문에는 너무 많은 답이 나올까 봐 걱정됐어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교수가 어깨 너머로 그를 힐끗 보며 물었다.

“말씀드리자면,” 다른 한 사람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는 주목나무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타런트 씨가 겉보기만큼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외로움을 가장하는 것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타런트가 우울한 표정으로 천천히 몸을 돌릴 때, 그의 추측은 확인되었다.

높고 다소 날카롭지만 분명히 여성적인 목소리가 경험 많은 장난기 섞인 어조로 말했다.

“그가 여기에 있을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스메일 교수는 이 가벼운 농담이 자신에게 향하는 말이 아님을 직감했다. 당혹감 속에서 그는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주목나무 그늘에서 다이애나 월즈 부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언제나처럼 빛나고 단호한 그녀의 옆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것은 레오나드 스미스의 날씬하고 단정한 몸이었다. 세련된 문학가답게 그는 다이애나의 화려한 모습 바로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고개가 살짝 기울어진 모습은 마치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개와도 같았다.

"뱀이!" 스몰이 중얼거렸다. "다 여기 있군. 아니면 다 있지만, 바다 코끼리 수염을 기른 그 작은 쇼맨만 빼고."

브라운 신부가 곁에서 가볍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실제로 그 상황은 이미 웃음거리의 범주를 넘어선 듯했다. 마치 판타마임의 마법처럼 세상이 뒤집히고, 그들의 귀 근처에서 요란하게 뒤섞이는 듯했다. 심지어 교수가 말을 하는 사이, 그의 말은 가장 코믹한 반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이한 생김새의 둥근 머리와, 괴상하게 검은 초승달 모양 수염을 가진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다. 마치 땅속에서 솟아난 듯했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다. 그 구멍은 사실 매우 거대한 구멍이었으며,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다리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곳이 바로 그들이 방문하러 온 지하 공간의 입구였다.

작은 남자가 그 입구를 가장 먼저 발견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내밀어 동행자들에게 말을 건네기 전에, 이미 사다리의 몇 단을 내려가 있었다. 그의 모습은 햄릿의 풍자극에 나오는, 특히나 터무니없는 무덤 파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두꺼운 수염 너머로 걸쭉한 목소리로 단 한 마디만 말했다.

"여기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 말은 나머지 일행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일주일 내내 식사 시간마다 그와 마주 앉아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가 거의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영국 강연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말투는 묘하게도 이국적인 억양을 띠고 있었다.

"보시죠, 친애하는 교수님." 다이애나 여사가 날카롭지만 명랑한 어조로 외쳤다. "당신의 비잔틴 미라는 너무도 흥미진진해서 놓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도 꼭 와서 보고 싶었고, 확신하지만 이 신사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세요."

"전체 사정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교수가 진지하게, 아니 엄숙하게 말했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이 일이 대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빨리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분명 기이한 일이지만, 현대인의 정보에 대한 갈증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 장소를 방문하려면 책임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책임감 있는 지도 아래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발굴 작업을 총괄하는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름이라도 적는 장부에 우리 이름을 올리는 정도는 필수일 겁니다."

그 여자의 성급함과 고고학자의 의심이 부딪치자, 말다툼이 벌어졌다. 하지만 목사의 공식적 권한과 현지 조사의 필요성을 고집하던 고고학자의 주장이 결국 승리했다. 수염을 기른 작은 남자는 마지못해 무덤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더 급하지 않은 하강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다행히 이쯤에서 목사 본인이 나타났다. 회색 머리에 잘생긴 얼굴의 신사는, 두 개의 안경테가 만들어낸 독특한 기울기를 자랑했다. 그는 곧장 교수와 동족인 고고학자로서 친근한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그 다소 뒤섞인 듯한 동행자들을 바라보며, 적대감이라기보다는 재미를 느끼는 듯했다.

"여러분, 혹시 미신을 믿는 분은 없겠죠?" 그가 쾌활하게 말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일에는 우리 모두를 저주하는 온갖 흉조와 저주가 떠다니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방금 예배당 입구에 새겨진 라틴어 비문을 해독했습니다. 거기에 적힌 저주는 무려 세 가지나 됩니다. 밀봉된 방에 들어가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 관을 여는 자에게 내리는 두 배의 저주,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금유물을 만지는 자에게 내리는 세 배나 되는 끔찍한 저주 말입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첫 두 가지 저주는 이미 제가 저지르고 말았군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려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도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약한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저주는 좀 더디게,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게 위안이 되기는 할까요?"

월터스 신부는 다시 한번, 축 처진 눈매에서 우러나오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이야기라니요?" 스메일 교수가 되물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사연이 좀 깁니다. 지역 전설들처럼 버전도 제각각이죠." 사제가 대답했다. "하지만 무덤이 만들어진 시기와 맞물려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 비문에 담겨 있고,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13세기 초, 이 영지의 영주였던 기 드 지소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노아에서 온 사신이 가진 아름다운 검은 말을 몹시 탐냈습니다. 실용적인 거상이었던 그 사신은 거액의 값을 치르지 않는 한 그 말을 팔지 않았죠."

"탐욕에 사로잡힌 기는 성소를 약탈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당시 그곳에 머물고 있던 주교를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주교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자신의 무덤에 안치된 금십자가를 계속 빼앗아 두거나, 다시 그곳에 돌려놓은 후에 그걸 건드리려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게 된다고 했죠."

"영주는 그 말을 사기 위해 금유물을 마을의 금세공인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에 탄 첫날, 그 말은 앞발을 치켜들며 일어서더니 교회 현관 앞에서 그를 내동댕이쳤습니다. 기는 목이 부러져 죽었죠."

"동시에, 이전까지 부유하고 번성하던 금세공인은 이해할 수 없는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 파산했습니다. 그는 결국 영지에 사는 유대인 사채업자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굶주림을 피해갈 수 없게 된 불쌍한 금세공인은 사과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했습니다."

"그의 금십자가와 다른 모든 재물, 집, 가게, 도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채업자의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영주의 아들이자 후계자는 경건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신의 심판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둡고 엄격했던 그 시대의 정신에 따라 종교적 열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 사이에서 모든 이단과 불신을 박해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은 아버지의 시대에는 냉소적으로 용인되었지만, 아들의 명령에 따라 가차 없이 화형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성물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치른 것이죠."

"이 세 가지 심판이 내려진 후, 금십자가는 주교의 무덤으로 다시 돌려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걸 본 눈도, 손으로 만진 손도 없습니다."

다이애나 부인은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정말 소름이 돋는 일이죠." 그녀가 말했다. "사제님을 빼고는 우리가 처음이라는 생각만 해도 말이죠."

수염이 풍성하고 영어가 어눌한 선두 인물은 그가 가장 자주 쓰던 사다리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 사다리는 실제로 발굴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 몇몇만 사용했을 뿐이었다. 신부는 그들을 데리고 약 백 야드 떨어진 곳에 있는 더 크고 편리한 입구로 우회했다. 그는 방금 그곳에서 지하 조사를 마치고 올라온 참이었다.

여기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길이었다. 어두워지는 것 외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곧 그들은 칠흑처럼 까맣게 어두운 터널을 따라 한 줄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들 앞에 희미한 빛이 보일 때까지는 잠시 시간이 걸렸다.

그 침묵 속을 걸어가던 중,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의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또 한 번, 낯선 언어로 들리는 욕설 같은 소리가 둔탁한 폭발음처럼 울려 퍼졌다.

그들은 원형의 방으로 나왔다. 마치 고딕 양식의 뾰족한 아치가 우리 문명을 창처럼 뚫기 훨씬 전에 지어진 예배당처럼, 둥근 아치들이 고리처럼 둘러싸고 있는 바실리카 같은 공간이었다.

기둥들 사이로 희미한 녹색빛이 비치는 곳이 있었다. 그곳이 위층 세상으로 이어지는 다른 출구였다. 그 빛은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듯한 모호한 느낌을 주었고, 몇몇 부수적이고 어쩌면 상상에서 비롯된 유사점들은 그 느낌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다.

노르만 양식의 개이빨 무늬가 모든 아치 주변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무늬는 동굴 같은 어둠 위에 거대한 상어의 입을 연상시키는 모습을 띠게 했다.

그리고 중앙에는 어둠 속의 무덤 덩어리가 있었다. 돌로 된 뚜껑이 들어 올려진 채. 그것은 마치 어떤 거대한 괴물의 턱처럼 보였다.

격식에 어울린다고 여겨서였든, 아니면 더 현대적인 조명 기구가 없어서였든, 골동품을 좋아하는 그 신부는 예배당을 비추는 빛을 바닥에 놓인 네 개의 큰 나무 촛대에 꽂힌 높은 촛불로만 제한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섰을 때, 네 개 중 하나만 불이 켜져 있었다. 그 희미한 빛이 거대한 건축물의 형체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모두 모여 앉은 뒤, 신부는 나머지 세 개의 촛불에 차례로 불을 붙였다. 그러자 거대한 석관(石棺)의 모습과 그 안에 담긴 것들이 더 또렷하게 드러났다.

모든 시선이 먼저 시체의 얼굴로 향했다. 동양의 비밀스러운 기법으로, 이교도들의 고대부터 전해져 온 것으로 알려진 그 기법이 우리 섬의 평범한 묘지에서는 알 수 없는 마법처럼 얼굴의 주름을 수천 년 동안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교수는 감탄의 외침을 거의 참지 못했다. 얼굴은 밀랍 가면처럼 창백했지만, 다른 면에서는 방금 눈을 감고 잠든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얼굴은 금욕주의자, 어쩌면 광신도 같은 유형으로, 높은 뼈대가 돋보였다. 시신은 금빛 망토와 화려한 제복을 입고 있었고, 목의 기슭, 가슴 위쪽에 유명한 금십자가가 짧은 금사슬, 혹은 목걸이처럼 빛나고 있었다.

석관 뚜껑은 머리 부분에서 들어 올린 뒤, 두 개의 튼튼한 나무 기둥으로 지탱했다. 기둥은 위쪽 판석의 가장자리 아래쪽에 걸고, 시체의 머리 뒤쪽 관 구석에 쐐기처럼 박혀 있었다. 그래서 발이나 시신의 하반부는 덜 보였지만, 촛불빛은 얼굴에 고스란히 비쳤다. 죽은 상아빛 얼굴과 대비되게, 금십자가는 마치 불꽃처럼 흔들리며 반짝였다.

신부가 저주의 이야기를 들려준 이후로, 스메일 교수는 큰 이마에 깊은 주름을 새기고 있었다. 그 주름은 깊은 사색의 흔적일 수도, 걱정스러운 기색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직관이 더 날카로웠다. 여성 특유의 히스테리가 섞인 그 직관은, 그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촛불이 밝혀진 동굴의 고요함 속에서, 다이애나 부인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만지지 마! 내가 말했잖아!"

그 남자는 이미 한 번, 사자처럼 날렵한 동작을 취했다. 그는 시신 위로 몸을 앞으로 숙였다. 다음 순간, 사람들은 모두 몸을 휙 움직였다. 어떤 이는 앞으로, 어떤 이는 뒤로 달아났다. 하지만 모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로 고개를 깊게 숙였다.

교수가 금십자에 손끝을 대자, 들어 올려진 돌 덮개를 지탱하던 나무 받침들이 미세하게 휘었다가 갑자기 쏙 올라섰다. 돌판의 가장자리가 받침대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모든 사람의 영혼과 위장이 함께 흔들리며,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추락감을 느꼈다. 스메일은 재빨리 고개를 빼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관 옆에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두개골이나 두피에서 피가 흘러내린 붉은 물웅덩이였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닫혀 있던 그 낡은 돌 관은 다시 닫혔다. 다만 틈새에 나뭇조각이나 쪼개진 조각들이 끼어 있어, 오거가 뼈를 으스러뜨린 듯한 끔찍한 느낌을 남겼을 뿐이다. 거대한 괴물이 돌로 된 턱을 꽉 다물었던 것이다.

다이애나 부인은 미친 사람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폐허를 응시하고 있었다. 창백해진 얼굴에 붉은 머리카락이 푸르스름한 황혼빛 속에서 더욱 선명한 붉은빛으로 빛났다. 스미스는 고개를 갸웃이는 습관적인 자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표정은 자신의 주인이 겪은 참사를 오롯이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신처럼 그녀를 내려다보는 자의 것이었다.

타란트와 외국인은 평소의 침울한 자세로 굳어 있었지만, 얼굴은 점토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교구 신부는 기절해 버린 듯했다. 브라운 신부는 쓰러진 사람 곁에 무릎을 꿇고 그 상태를 살피려 애쓰고 있었다.

놀랍게도 바이런풍의 나태함으로 일관해 왔던 폴 타란트가 그의 도우미로 나섰다.

"그를 바깥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해." 그가 말했다. "그가 살아날 가능성은 아주 미미하지만, 없지는 않지."

"그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상태가 꽤 나빠 보입니다. 혹시 의사라도 되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제 평생 동안 많은 것을 배워왔죠."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저에 대해서는 잊어두세요. 제 진짜 직업은 아마 당신을 놀라게 할 거예요."

"그건 아닐 겁니다." 브라운 신부가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그 생각은 항해 중간쯤에 들었어요. 당신은 누군가를 미행하는 형사죠. 어쨌든 십자가는 이제 도둑들로부터 안전합니다."

말을 나누는 사이, 타런트는 쓰러진 남자의 연약한 몸을 손쉽게 들어 올렸다. 그는 힘과 민첩함을 유감없이 발휘해, 조심스럽게 그를 출구 쪽으로 옮기고 있었다. 어깨 너머로 그는 대답했다.

"네, 십자가는 충분히 안전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전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브라운 신부가 답했다. "저주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브라운 신부는 다음 한두 시간 동안, 비극적인 사고 자체의 충격보다 더 깊은, 찌푸린 곤혹에 시달리며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는 부상자를 교회 맞은편 작은 여관으로 옮기는 일을 도왔고, 의사를 만나 부상이 심각하고 위중하지만 반드시 치명적인 것은 아니라는 진단을 들었다. 그리고는 여관 거실에서 탁자 주위에 모여든 작은 여행객 무리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그가 어디를 가든, 그는 신비로움의 구름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깊이 생각할수록 그 구름은 더 어둡게만 보였다. 중심적인 신비로움은, 마음속에서 수많은 작은 신비들이 하나둘씩 해결되어 갈수록, 오히려 더 신비롭게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혼성 집단 속 개별 인물들의 의미가 하나둘씩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수록, 실제로 일어난 일 자체는 설명하기 점점 더 어려워졌다.

레오나드 스미스는 다이애나 부인이 왔기에 왔을 뿐이었다. 그리고 다이애나 부인은 그저 자신이 원했기에 왔을 뿐이다. 그들은 반지성적인 특유의 어리석음이 더해진, 소위 말하는 '떠도는' 상류사회의 스캔

들 같은 연애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부인의 로맨티시즘에는 미신적인 측면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험이 끔찍한 결말을 맞이한 데 크게 낙담해 있었다.

폴 타란트는 사립 탐정이었다. 아마도 어떤 아내나 남편을 위해 그 스캔들을 감시하고 있었거나, 또는 수염을 가진 외국 강연자를 뒤쫓고 있었을 것이다. 그 강연자는 불쾌한 외국인과도 같은 인상을 풍겼다. 하지만 만약 그나 다른 누군가가 유물을 훔치려 했다면, 그 시도는 최종적으로 좌절되었다.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것을 좌절시킨 것은 믿을 수 없는 우연이거나, 아니면 고대의 저주의 간섭이었을 것이다.

그는 마을 중앙, 여관과 교회 사이에 서서 평소와는 달리 당황해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익숙하지만 뜻밖의 인물이 거리 끝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는 살짝 놀랐다.

부온 씨, 그 기자였다. 햇살 아래 그의 초췌한 모습은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낡고 헐벗은 옷차림은 마치 허수아비 같았다. 그의 어둡고 깊게 파인 눈은 긴 코 양옆에 붙어 있었다. 그 눈은 신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신부는 두 번이나 바라봐야 그 짙은 검은 수염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오히려 비웃음에 가까운, 그러나 분명히 미소 같은 것이었다.

“당신은 떠나실 줄 알았소.” 브라운 신부가 약간 날카롭게 말했다. “두 시간 전 기차로 가셨다고 생각했거든.”

“글쎄요, 보다시피 안 갔잖아요.” 부온이 말했다.

“왜 다시 돌아왔소?” 사제는 거의 엄격하게 물었다.

“이곳은 기자가 급히 떠날 만한 시골 낙원이 아니에요.” 다른 한 사람이 대답했다. “여기서는 일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런던 같은 지루한 곳으로 돌아가는 게 손해일 정도죠. 게다가 그들은 제가 이 사건, 정확히 말해 두 번째 사건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신을 발견한 건 저였어요. 아니, 적어도 옷을 찾은 건 저였죠. 꽤 수상한 행동이죠? 아마도 저는 그의 옷을 입으려 했다고 생각하시겠네요. 만약 제가 그의 옷을 입었다면, 정말 멋진 신부가 되었을 텐데요.”

그 날렵하고 코가 긴 사기꾼이 갑자기 시장 한복판에서 과장된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팔을 벌리고 어두운 장갑을 낀 손을 펼쳐 마치 풍자적인 축복을 내리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말했다.

"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나는 모두를 안고 싶소."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브라운 신부가 외쳤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인내심이 부족했다. 뭉툭한 우산으로 돌을 살짝 두드렸다.

“여관 손님들이랑 이야기하면 다 알게 될 거요.” 부온이 비웃는 투로 말했다. “타런트라는 자가 내게 의심을 품는 건, 내가 옷을 발견했기 때문이오. 그는 나보다 단 한 순간 늦게 그 장소에 도착했을 뿐이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온갖 미스터리가 도사리고 있소. 수염이 큰 그 작은 남자는 겉보기보다 더 깊은 내면을 가졌을지도 모르오. 그러고 보면, 당신이 그 불쌍한 사람을 죽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소.”

브라운 신부는 그 제안에 대해 조금도 짜증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그를 심히 당황하게 만들었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내가 스메일 교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뜻이세요?" 그는 단순한 어조로 물었다.

“전혀 아닙니다.” 다른 한 사람이 손짓하며 관대한 양보를 내어주는 듯한 태도로 말했다. “고르실 죽은 분들이 많습니다. 스메일 교수를 제외하고도요. 아니, 다른 분이 훨씬 더 확실하게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나요? 그리고 당신도 조용히 그를 처리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종교적 차이도 있고 말입니다. 기독교 세계의 비극적인 분열이죠. … 당신도 늘 영국 교구들을 되찾고 싶었을 테니까요.”

"나는 여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제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그곳 사람들이 당신의 뜻을 안다고 했죠. 어쩌면 그들이 더 잘 설명해 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 직후, 그는 새로운 비보 소식을 듣고 잠시나마 개인적인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가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작은 거실

로 들어섰을 때, 그들의 창백한 얼굴에서 그는 묘지 사고보다 훨씬 최근의 사건에 의해 심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가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레오나드 스미스가 물었다. "이게 대체 어디까지 계속되는 건가?"

"끝이 없을 거예요. 말씀드리는 건데," 다이애나 부인이 흐릿한 눈으로 공허한 곳을 응시하며 되뇌었다. "우리가 모두 끝날 때까지는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저주 하나하나가 우리를 하나씩 집어삼킬 거야. 가엾은 신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천히 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 모두를 그의 운명처럼 삼킬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브라운 신부가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타런트가 약간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월터스 씨, 교구 신부가 자살을 했습니다. 충격이 그를 미치게 만든 모양이군요. 하지만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방금 해안에서 바닷물 위로 튀어나온 바위 위에 그의 검은 모자와 옷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가 정신을 잃은 것 같아 보였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를 더 잘 돌봐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경 써야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부인이 말했다. "보시지 않아요? 이 일이 끔찍한 순서대로 파멸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교수가 십자가를

건드리자 그가 먼저 죽고, 신부가 무덤을 열자 두 번째로 그가 죽었어요. 우리는 단지 예배당에 들어갔을 뿐인데, 우리는—”

"잠시만," 브라운 신부가 평소에는 거의 쓰지 않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여기서 멈춰야 해."

그의 이마에는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맺힌 깊은 주름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스러운 안개 같은 의문이 서려 있지 않았다. 대신, 거의 두려울 정도로 선명한 이해의 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 정말 바보였구나.’

그가 중얼거렸다.

‘이것을 훨씬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다. 저주에 관한 이야기만 제대로 들었어도 알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은 무슨 뜻이오?” 타란트가 물었다. “13세기에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을 수 있다는 말이오?”

브라운 신부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13세기에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는지 없는지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3세기에 일어난 적도 없고, 아예 존재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는 없다는 점은 확신합니다.”

“음,” 타란트가 말했다.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 그렇게 회의적인 신부를 만나니 참으로 상쾌하군요.”

"전혀 아닙니다." 사제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초자연적인 부분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연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정확히 이런 사람의 입장이죠. '불가능한 것은 믿을 수 있지만,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처럼요."

"그게 바로 역설이지 않습니까?" 다른 한 사람이 물었다.

"그건 제가 말하는, 제대로 이해된 상식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답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루는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믿는 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어긋나는 자연적인 이야기를 믿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다는 뜻이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만약 위대한 글래드스턴이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파넬의 유령에게 쫓겼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믿지 않을 수도 있겠고 믿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글래드스턴이 빅토리아 여왕을 처음 뵙던 날, 여왕의 응접실에서 모자를 쓴 채로 여왕의 등을 두드리며 시가를 권했다고 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믿지 않겠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저 믿기 어려운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파넬의 유령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보다,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훨씬 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세계의 법칙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저주에 대한 그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믿지 않는 건 전설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다이애나 부인은 카산드라의 무아지경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 그 빛나고 튀어나온 듯한 눈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이 다시금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정말 이상한 분이시네요!" 그녀가 말했다. "왜 그 역사를 믿지 않으려는 거죠?"

"그 역사가 진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대답했다.

중세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 전체가 글래스톤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시가를 권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하지만 중세사에 대해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길드(Guild)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salvo managio suo'라는 말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이 있는가? 'Servi Regis'라 불리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는가?

"아니, 물론 모르죠." 부인은 다소 불쾌한 어조로 말했다. "라틴어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아닙니다, 물론이죠."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만약 그 무덤 안에 투탕카멘이나 말라비틀어진 아프리카인들이, 하느님 아시는 이유로, 세계 반대편에 보존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바빌로나 중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달의 사나이처럼 멀고 신비로운

종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것이라면 신문은 이빨솔이나 칼라 단추 하나까지도 모든 것을 알려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교회를 세우고, 당신들의 마을과 직업에 이름을 붙이고, 당신이 걷는 길조차도 만든 사람들은요? 그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생각은 당신들에게 전혀 들지 않았죠.

저도 많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 수 있을 만큼은 압니다.

중세 시대에 채권자가 사람의 가게나 공구를 압류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또한 길드(Guild)가 그런 파탄에 이르는 일을 방치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그 파탄이 유대인 때문에 발생했다면 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들 역시 고유의 죄악과 비극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했죠. 하지만 신도, 희망도 없는 한 남자가 아무도 자신의 생사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기 위해 기어다니며 도망친다는 설정은 중세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경제학의 진보가 낳은 산물입니다.

유대인이 봉건 영주의 종속자가 될 리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국왕의 하인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누렸죠. 무엇보다도, 유대인은 종교 때문에 화형에 처해질 수 없었습니다."

"역설이 점점 더 불어나고 있군요." 타란트가 말했다. "하지만 중세에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하시겠지요?"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말은, 그들이 중세에 박해를 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중세주의를 풍자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칠 수 있겠지요. 어떤 가난한 기독교인이 '호모우스이온'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는 이유로 산 채로 화형당했지만, 부유한 유대인은 거리에서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비웃으며 걸을 수 있었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바로 그런 식입니다. 그것은 결코 중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중세에 관한 전설조차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소설이나 신문에서 얻은 개념들을 바탕으로, 아마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역사적인 일탈에 다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신부가 왜 그 부분을 강조하며 퍼즐의 핵심으로 삼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타런트는 달랐다. 그는 복잡한 일탈 속에서도 실용적인 디테일을 찾아내는 데 능숙한 전문가였다. 그는 갑자기 경계심을 세웠다. 수염 난 턱을 평소보다 더 내밀었고, 우울해 보이던 눈빛이 번뜩이며 깨어났다.

"아," 그가 말했다. "순간적으로 꾸며낸 거군!"

"아마도 그것은 과장일지도 모릅니다." 브라운 신부는 차분하게 인정했다. "나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들만큼 신중하게 꾸며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머지 치밀한 계획에 비해 좀 더 가볍고 부주의하게 덧붙

여졌다고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계획자는 중세 역사의 세부 사항이 누구에게나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계산은 다른 대부분의 계산들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꽤나 정확했습니다."

"누구의 계산이죠? 누가 맞았다는 거예요?" 부인이 갑자기 참지 못해 소리쳤다. "말하는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예요? 이미 충분히 지쳤는데, 당신이 자꾸 '그가' '그를' 하는 대명사로 우리를 소름 끼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살인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야."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누구를 살해했다는 말씀이죠?"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가엾은 교수님이 살해당했다고요?"

"글쎄," 빤히 응시하던 타란트가 수염에 대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그를 '살해당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아직 그가 죽었는지조차 모르니까."

"살인자가 죽인 사람은 스메일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신부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그는 또 누구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다른 한 사람이 물었다.

"존 월터스 목사를 죽였습니다. 달럼의 교구 사제였죠." 브라운 신부가 정확히 대답했다.

"그는 오직 그 두 사람만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 둘이 모두 희귀한 양식의 유물을 손에 넣었기 때문이죠. 범인은 그 점에 대해 일종의 광신적 집착을 가진 자였어요."

"정말 이상한 소리군요." 타런트가 중얼거렸다. "물론 그 목사가 정말 죽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의 시체를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요."

"네, 맞아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방 안은 징을 한 번 친 것처럼 갑작스러운 정적에 휩싸였다. 그 정적 속에서, 그 여인에게서 그토록 활발하고 정확하게 작동하던 잠재의식적인 직감이 그녀를 거의 비명을 지를 지경까지 몰아갔다.

"그게 바로 당신이 본 것입니다." 신부가 이어 말했다. "당신은 그의 시체를 봤습니다. 살아 있는 진짜 그를 본 게 아니라, 시체를 본 거죠. 하지만 그 시체는 분명히 당신 앞에 있었습니다. 네 개의 큰 촛불 빛 아래, 당신은 그 시체를 낱낱이 응시했습니다. 그 시체는 자살하듯 바다에 몸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군 전쟁 이전부터 전해 내려온 제단 위에 모셔진 교회의 추기경처럼, 단정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말을 쉽게 풀자면," 타란트가 말했다. "당신은 결국, 방부 처리된 시신이 살해당한 남자의 시체였다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요."

브라운 신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별일 아닌 듯 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처음 그걸 보고 눈치챈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정확히는 십자가를 매달던 끈이었죠. 대부분의 여러분께 그것은 그냥 구슬 몇 개 달린 끈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사뭇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끈이 턱밑에 바짝 붙어 있었죠. 구슬이 몇 개만 살짝 보이는 걸 보면, 목걸이가 아주 짧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구슬들은 특이한 배열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 그리고 세 개, 이런 식으로요. 저는 한눈에 그것이 로사리오, 즉 십자가가 달린 일반 묵주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로사리오에는 최소한 다섯 단(각 열 알씩)과 추가 구슬들이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구슬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끈은 노인의 목에 한 바퀴 이상 감길 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그 여분의 길이가 어디에 쓰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그 끈은 관 구석에 고정되어 뚜껑을 지탱하는 나무 받침대에 여러 번 감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메일이 단순히 십자가를 당겼을 때, 그 힘이 받침대를 흔들었고, 뚜껑이 돌망치처럼 그의 두개골을 강타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타란트가 말했다. "네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기이한 이야기야."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브라운 신부가 이어 말했다. "나머지는 대충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조사(investigation) 그 이상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고고학적 권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엾은 월터스는 성실한 고고학자였습니다. 그는 전설에 따라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보존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무덤을 열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모두 루머였습니다. 그런 발견이 있을 때마다 종종 일어나는, 사실을 앞당기거나 과장하는 종류의 루머였죠. 실제로 월터스는 시신이 방부 처리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먼지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그가 침묵이 깔린 지하 예배당에서 외로운 촛불 하나에 의지해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촛불빛이 그의 그림자 외에도 또 다른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그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 다이애나 부인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지금 당신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살인자를 만나고, 그와 수다를 떨고, 농담도 나누었죠. 그리고 그가 들려준 로맨스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그를 그대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성직자로 변장한 옷을 바위에 벗어 두고 갔지." 브라운 신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게 끔찍할 정도로 간단하단 말일세. 이 남자는 교회당과 묘지로 향하는 경쟁에서 교수님보다 먼저 도착했을 거야. 아마도 교수님이 그 슬픈 표정의 기자와 수다를 떨고 있는 사이였겠지. 그는 빈 관 옆에 서 있던 노목사를 발견하고는 그를 죽였어. 그러고는 시체의 검은 옷을 자신의 몸에 걸쳤지. 그리고 탐험 과정에서 진짜 유물로 밝혀진 오래된 코페(성직자의 외의)로 시체를 감싸 관 속에 넣었어.

내가 설명한 대로 묵주와 나무 받침대를 배치한 거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적을 위한 함정을 깔아둔 뒤, 그는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올라와서 시골 신부답게 가장 친절한 예의로 우리 모두를 맞았단 말일세."

"위험을 감수한 거죠," 타런트가 반박했다. "월터스를 얼굴로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을."

"그가 정신이 반쯤 나간 건 인정합니다." 브라운 신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위험을 무릅쓴 보람이 있었죠. 결국 그는 살아남았으니까요."

"그가 정말 운이 좋았다는 건 인정하지." 타란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정체불명의 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맞습니다, 그는 정말 운이 좋았죠." 브라운 신부가 대답했다. "특히 그 점에서는 더더욱요. 우리는 그 사실을 결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는 잠시 식탁을 내려다보며 찡그린 뒤 말을 이었다.

"저 남자는 수년째 주변을 맴돌며 위협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가지를 철저히 지켰죠. 바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비밀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스메일이 회복된다면,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는 아마도 그 비밀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럼 스메일 교수가 뭘 할까요, 생각하시나요?" 다이애나 부인이 물었다.

"그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타란트가 말했다. "이 살인마를 쫓는 개를 풀어놓듯 탐정들을 풀어놓는 거겠지. 나도 한 번 해보고 싶다."

브라운 신부가 오랫동안 찌푸렸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하게 펴졌다.

"글쎄요. 그가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더군요."

"그게 뭐죠?" 다이애나 부인이 우아한 호기심으로 물었다.

"그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하지만 브라운 신부가 그 저명한 고고학자의 오랜 회복기를 지켜보며 침상 옆에서 스메일 교수와 나눈 대화의 주제는 그런 데 있지 않았다. 사실 대화의 대부분은 스메일 교수가 주도했다. 그는 대화라는 자극을 소량만 섭취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에너지를 신부와의 면담에 쏟아부었다.

브라운 신부에게는 남을 격려하는 침묵의 재주가 있었다. 그 침묵은 스메일 교수가 말하기 꺼려지는 기이한 일들을 털어놓게 만들었다. 회복기의 이상한 증상들, 섬망에 종종 따라오는 끔찍한 꿈들 같은 것들이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뒤 천천히 회복하는 일은 정신을 흐트러뜨리기 쉬운 일이다. 특히 스메일 교수처럼 흥미진진한 머리를 가진 이에게 그

혼란과 왜곡은 독창적이고 기묘한 양상을 띠기 마련이었다. 그의 꿈은 그가 연구해 온 강직하지만 고풍스러운 예술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다소 어긋난 대담한 설계도 같았다.

꿈속에는 사각형과 삼각형의 후광을 두른 이상한 성도들이 등장했고, 어둡고 납작해진 얼굴 주변에는 빛나는 금관과 영광이 둘러져 있었다. 동쪽에서 날아오는 독수리들과, 머리카락을 여자처럼 묶은 수염 기른 남자들의 높은 관모들도 보였다.

하지만 그가 친구에게 말하길, 한 가지 훨씬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형상이 그의 상상력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고 한다. 비잔틴 양식의 패턴들이 불 위에 그려진 금박이 바래듯 지워질 때마다, 남는 것은 오직 어두운 바위 벽 하나였다. 그 벽 위에는 물고기의 형상이 손가락으로 물고기 발광질을 찍어 그린 듯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바로 그 표적이 그가 어둠이 깔린 복도 모퉁이에서 적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던 바로 그 표적이었다.

"드디어," 그가 말했다. "그 그림과 목소리에 담긴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의미였죠."

"왜 내가 걱정해야 했을까요? 거대한 사회를 이루어 자신에게 맞선 백만 명의 정상인 가운데 단 한 명의 미친 자가 나를 박해하거나 죽이려 한다고 자랑한다고 해서요."

"암흑의 지하 묘지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상징을 그렸던 그 남자는, 훨씬 다른 방식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유일한 미친 자였습니

다. 정상적인 사회 전체가 그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 뭉쳤던 거죠."

"나는 가끔 초조해하며 안절부절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박해자일까, 저 사람이 아닐까 궁금해하며 말입니다. 타란트일까? 레오나드 스미스일까? 아니면 그들 중 다른 누군가일까요."

"만약 그들이 모두 내 박해자였다면 어땠을까요? 배에 있던 모든 사람, 기차에 있던 모든 사람, 마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내 적이었다면요? 내가 볼 때 그들은 모두 살인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지구의 내장을 헤매고 있을 때, 나를 파괴하려는 자가 있다는 이유로 경계해야 한다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파괴자가 햇빛 아래에 서서 땅 전체를 소유하고 모든 군대와 군중을 지휘한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내 모든 굴 구멍을 막아버리거나, 내 구멍에서 나를 연기로 쫓아내거나, 내가 햇빛 아래로 고개를 내밀자마자 죽일 수 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규모로 살인을 대하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세상은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을 잊었던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닥쳤죠. 물고기들이 다시 지하로 숨어들어가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햇빛 아래로 올라올 겁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가 유머러스하게 말했죠.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는 건 오직 물고기뿐'이라고."

여섯 번째 이야기: 날개 달린 단검

브라운 신부는 인생의 한 시기에 모자를 모자걸이에 걸 때면, 억누르기 힘든 미세한 전율을 느끼곤 했다. 이 특이한 반응의 기원은 훨씬 복잡했던 일련의 사건들 중 하찮은 한 조각에 불과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 모든 일을 떠올리게 해 주는 단서 역시 아마도 이 작은 디테일뿐이었을 것이다. 그 먼 과거의 시초는 12월의 어느 서리 내린 아침에 경찰 소속 의사인 보인 박사가 신부를 부르도록 만든 사실들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보인 박사는 키가 크고 피부가 까만 아일랜드 사람이었다.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유형의 아일랜드인이었다. 그는 과학적 회의주의, 유물론, 냉소주의를 길게 늘어놓을 수는 있었지만, 종교 의식과 관련된 문제라면 오직 고향 땅의 전통적인 종교로만 설명하려 했다. 그의 신념이 얕은 도장칠인지, 아니면 깊은 토대인지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아마도 그 둘 다일 것이며, 그 사이에 무거운 유물론이 끼어 있을 것이다. 어쨌든 보인 박사는 그러한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자, 브라운 신부에게 찾아오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해 특별한 선호를 보이지는 않았다.

"정말 당신을 맞을지,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가 건넨 인사말은 의외였다. "아직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어요. 이 사건을 의사에게

맡겨야 할지, 경찰에게 넘겨야 할지, 아니면 신부님께 의논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글쎄요," 브라운 신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경찰이자 의사를 겸하고 계시니, 아무래도 제가 소수인 것 같군요."

"당신은 정치인들이 말하는 '식견 있는 소수'에 해당하군요." 의사가 대답했다. "즉, 당신도 우리와 같은 분야에서 약간은 일을 해보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 영역인지, 당신의 영역인지, 아니면 정신 이상자 위원회의 영역인지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방금 근처에 사는 한 남자에게서 보호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 남자는 언덕 위의 하얀 집에서 삽니다. 그는 살해적인 박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사실을 조사했고, 아마도 처음부터 일어난 대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부 지방의 부유한 토지 소유자 아일머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 필립, 스티븐, 아놀드라는 세 아들을 두었다. 하지만 독신 시절, 후사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는 매우 총명하고 장래가 유망한 소년을 입양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존 스트레이크였다.

스트레이크의 출신 배경은 불분명하다. 고아라고도 하고, 일부에서는 집시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 말은 아일머가 노년에 손금과 점성술 같은 음침한 신비주의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과 뒤섞인 것일지도 모른다. 세 아들은 스트레이크가 그런 일에 아일머를 부추겼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스트레이크는 놀라울 정도로 악질이며, 특히 놀라울 정도로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순간순간 거창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탐정조차 속일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게 말해내는 천재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사건 이후에 생긴 자연스러운 편견일 수도 있다.

상황을 대략 짐작하실 수 있겠지요. 노인은 사실상 모든 것을 양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친자 세 형제는 유언장을 두고 다퉜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공포에 질려 항복했으며, 솔직히 말해 미친 듯이 헛소리를 늘어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간호사들과 가족들이 막아섰음에도 스트레이크가 아버지에게 접근해 죽음의 침대에서 그를 공포에 떨게 했다며, 그 방법이 기이하고 교활하기 그지없었다고 말했죠.

어쨌든 그들은 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 뭔가를 입증한 듯했습니다. 법원은 유언장을 무효로 하고 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스트레이크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폭발했으며, 세 아들을 한 명씩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의 복수에서 그들을 숨길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이제 경찰의 보호를 요청한 것은 세 번째, 즉 마지막 아들인 아놀드 아일머입니다.

"셋째이자 마지막이군요." 신부는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네." 보인이 말했다. "나머지 두 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들이 살해당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살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장남은 지주의 지위를 물려받았으나, 정원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는 제조업에 종사하다 공장의 기계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는데, 실수로 발을 헛디뎌 추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스트레이크가 그들을 죽였다면, 그는 일처리와 은폐 수법이 매우 교활합니다. 반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만들어낸 음모론적 광기에 불과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보인이 말을 이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관료적이지 않고 상식적인 사람이 직접 찾아가 아놀드 아일머 씨와 대화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해 주십시오.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당신은 잘 아시죠. 우리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당신이 선봉에 서서 상황을 파악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하군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전에는 이 일을 다룰 필요가 없었다니요. 이 일에는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일처럼 보이는데."

"그가 왜 하필 지금 당신을 불러들였을까요? 다른 때와 달리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 점도 생각해 봤습니다." 보이네 박사가 말했다. "그가 이유를 대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 그건 이 일 전체가 그저 정신이 좀 나간 이상한 사람의 변덕일 뿐이지 않나 하는 의심을 키우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의 하인들 전원이 갑자기 파업을 일으켜 떠나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집안을 지키려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죠.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언덕 위의 그 집에서 하인들 전원이 떠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마을에는 감히 말하건대 매우 일방적인 이야기들이 떠돕니다.

하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고용주는 초조함과 공포, 그리고 가혹한 요구 때문에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 돼 버렸다고 합니다. 하인들은 집안을 보초병처럼 지키거나, 병원 야간간호사처럼 밤을 새워야 했다고 합니다. 고용주는 절대 혼자 있게 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인들은 큰 소리로 그가 미쳤다고 선언하고 모두 떠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가 미쳤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 남자가 자신의 집사나 청소를 담당하는 하녀에게 무장 경비원 역할을 기대한다는 건, 어딘가 좀 수상쩍은 일입니다.

"그렇군요." 신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녀가 경찰관 노릇을 하려 들지 않으니, 경찰관더러 하녀 노릇을 해달라는 셈이군요."

“저도 그건 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타협안을 시도해 보기 전에 단호하게 거절할 책임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 바로 그 타협안입니다.”

"좋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담담하게 말했다.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그를 찾아뵙겠습니다."

작은 마을을 둘러싼 구릉지는 서리로 단단히 얼어붙어 있었다. 하늘은 강철처럼 맑고 차가웠으나, 북동쪽 하늘에는 붉은 빛을 띠운 구름들이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언덕 위의 집은 그 어둡고 음울한 배경을 배경으로, 희미한 기둥들을 늘어놓아 고전적인 양식의 짧은 열주를 이루며 빛나고 있었다. 구불구불한 길은 언덕의 곡선을 따라 집으로 올라갔고, 어두운 관목 덩어리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 길이 관목에 닿기 직전,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는 듯했다. 마치 그가 얼음 창고나 북극에 다가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매우 실용적인 성향의 사람이었다. 그런 환상은 그저 환상으로만 받아들일 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집 위로 기어오르는 거대한 자줏빛 구름을 한쪽 눈으로 흘겨보며, 명쾌한 어조로 말했다.

“눈이 올 것 같군.”

브라운 신부는 이탈리아식 양식의 낮은 장식용 철제 문으로 정원에 들어섰다. 그곳의 황량함은 질서 정연한 것들의 무질서함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유의 것이었다. 짙은 녹색 식물들은 서리의 희미한 가루

로 회색빛을 띠고 있었고, 큰 잡초들은 시들어가는 화단의 무늬를 거친 테두리처럼 둘러싸고 있었다. 집은 키 작은 관목과 덤불로 이루어진 숲 속에서 허리 높이까지 잠긴 듯 서 있었다.

식생은 대부분 상록수나 매우 강인한 식물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비록 이렇게 울창하고 무거웠지만, 그다지 풍성하다고 할 수는 없는 북방의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북극의 정글과도 같았다.

집 자체도 이와 비슷한 면모를 띠고 있었다. 열주(列柱)와 고전적인 정면을 갖춘 이 건물은 지중해를 바라볼 법도 했지만, 지금은 북해의 바람에 시들어가고 있는 듯했다. 여기저기에 있는 고전적인 장식품들은 이러한 대비를 더욱 강조하고 있었다. 카리아티드(여인 기둥)들과 희극이나 비극의 얼굴을 새긴 가면들은 건물의 모서리에서 내려다보며 회색빛으로 어지러운 정원 길을 내려다보았지만, 그 얼굴들은 서리에 얼어붙은 듯했다. 기둥머리의 볼루트(나선형 장식)조차도 추위에 말려 올라간 것처럼 보였다.

브라운 신부는 잔디로 덮인 계단을 올라가, 큰 기둥이 양옆으로 서 있는 네모난 현관문 앞에 섰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약 사분 뒤, 다시 한 번 두드렸다.

그는 기다리며 그 자리에 섰다. 등을 문에 기대고, 천천히 어두워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북쪽에서 날아온 거대한 구름 덩어리의 그림자 아래, 하늘은 서서히 어둠에 잠기고 있었다. 그는 현관의 기둥 너머를 바라보았다. 황혼빛 속에서 기둥은 그에게 거대하고 검은 실루엣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 기둥 너머로, 지붕 위를 지나며 현관 위를 천막처

럼 덮어가는 거대한 구름의 가장자리가 보였다. 그 가장자리는 오팔색 빛을 띠며 기어오르는 듯했다.

색이 옅은 가장자리를 가진 그 거대한 천막은 점점 더 낮게 내려앉는 듯했다. 정원을 향해 내려앉는 천막 아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맑고 옅은 빛을 띠던 겨울 하늘은 이제 병든 석양처럼 희미한 은빛 리본과 찢어진 조각들만 남기고 있었다.

브라운 신부는 기다렸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계단을 내려 집 뒤쪽으로 돌아 다른 진입로를 찾았다. 결국 평평한 벽에 있는 옆문을 발견했고, 그는 그 문도 두드리며 밖에서 기다렸다.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은 분명히 빗장이 걸려 있거나 무언가로 잠겨 있었다.

그는 집의 그쪽 면을 따라 걸으며 현재 처지의 가능성을 곰곰이 생각했다. 이상한 성향의 에일머 씨가 너무 깊숙이 문을 닫아걸어 어떤 호출도 들리지 않게 했을까? 아니면 오히려 그 호출이 복수를 노리는 스트레이크의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더 단단히 문을 닫았을까?

아마 아침에 도망친 하인들이 나갈 때 한 곳의 문만 잠금장치를 풀었을 테고, 주인이 그 문을 다시 잠갔을 수도 있었다. 어쨌든 그들이 지금처럼 긴장한 상태에서는 방어를 그렇게 세심하게 점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다.

그는 계속 집 주위를 배회했다. 그 집은 사실 크지 않았지만, 다소 과장된 품격은 있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그는 집의 전체 둘레를 다 돌았다.

그가 의심하고 찾던 것을 곧 발견했다. 한 방의 프랑스식 창문이 커튼이 드리워지고 덩굴로 그늘져 어둑했지만, 틈새로 살짝 열려 있었다. 우연히 열려 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중앙에 자리한 이 방은 다소 구식이지만 안락하게 장식이 되어 있었다. 한쪽에는 계단이 올랐고, 다른 한쪽으로는 나가는 문이 있었다.

그의 바로 맞은편에는 붉은 유리가 박힌 문이 있었다. 후대의 취향에는 다소 화려하게 보일 정도였다. 값싼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보이는 붉은 옷을 입은 인물이 서 있는 듯했다.

오른쪽 둥근 테이블 위에는 수족관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거대한 그릇에 푸르스름한 물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안에서 물고기들과 비슷한 것들이 수조 안을 유영하고 있었다. 그 정반대편에는 거대한 녹색 잎을 가진 야자나무 식물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먼지투성이이고 빅토리아 시대 초기의 정서를 풍기고 있었기에, 커튼으로 가려진 공간에서 보이는 전화기는 거의 놀라울 정도였다.

"거기 누구시오?" 색유리가 박힌 문 뒤에서 날카롭고 의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일머 씨 뵐 수 있을까요?" 사제가 죄송한 듯 물었다.

문이 열리자, 공작새 깃털빛 드레싱 가운을 입은 한 신사가 나왔다. 그는 의아한 듯 주변을 살피는 눈치였다. 그의 머리는 조금 거칠고 어지러웠다. 마치 방금 잠에서 깨어난 듯, 혹은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을 오랫동안 이어온 듯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단순히 깨어 있는 것을 넘어 경계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 눈을 놀란 눈이라고도 했을 것이다.

브라운 신부는 이런 모순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알고 있었다. 환상이나 위험이라는 그림자 아래서 조금씩 쇠퇴해 가는 남자라면 말이다. 그의 옆모습은 날카로운 코를 가진 멋진 얼굴이었다. 하지만 정면을 봤을 때 첫인상은 느슨하고 거친 갈색 수염 때문에 어수선함, 심지어 야생의 느낌이었다.

“저는 에일머입니다.” 그가 말했다. “손님을 기대하는 습관이 없어졌거든요.”

에일머 씨의 초조한 눈빛이 신부를 직설로 이끌었다. 만약 그 남자의 박해가 단순한 강박증일 뿐이라면, 신부가 이를 지적해도 더 이상 분개하지는 않을 터였다.

“잠깐 궁금해서요,” 브라운 신부가 나직이 말했다. “손님을 전혀 받지 않으시던데, 그게 정말 맞나요?”

"맞습니다." 집주인이 차분히 대답했다. "저는 항상 한 명의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죠."

“바라건대 그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와 내가 많이 닮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에일머 씨는 야수적인 웃음과 함께 몸을 흔들었다. “당신은 확실히 그렇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에일머 씨,” 브라운 신부는 솔직하게 말했다. “무례한 짓을 해서 사과드립니다. 제 친구들 중 몇 분이 당신의 어려움을 전해 듣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 약간의 경험을 쌓아둔 편입니다.”

“이런 일은 없소.” 에일머가 말했다.

"그러니까 불행한 당신의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들이 자연사가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심지어 평범한 살인조차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한 사람이 대답했다. "우리를 죽이려 쫓아대는 그 남자는 지옥에서 온 사냥개와도 같습니다. 그의 힘은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죠."

"모든 악에는 공통된 기원이 하나 있다"고 신부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평범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고 확신하십니까?"

에일머는 손님을 의자에 앉게 하려는 제스처로 답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다른 의자에 앉으며, 무릎 위에 손을 얹고 눈썹을 찌푸렸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은 훨씬 부드럽고 사색에 잠긴 듯해졌고, 목소리도 정중하고 차분했다.

"신부님," 그가 말했다. "제가 조금도 비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비록 안타깝게도 이성이 결국 그곳으로 이끄는 탓이지만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 많이 읽어봤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학문을 이어받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학문은 다소 난해한 분야였죠. 이후 저는 그의 서고까지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읽은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본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브라운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는 단어를 하나하나 고르는 듯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형의 사건 때는 처음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총에 맞아 발견된 자리에는 발자국이나 흔적이 없었고, 권총도 옆에 놓여 있었죠. 하지만 그는 분명히 적으로부터 협박장을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날개 달린 단검 모양의 표지가 있었는데, 이는 적들이 즐겨 쓰던 음흉한 비밀 상징 중 하나였습니다. 하녀는 황혼 무렵 정원 담장을 따라 움직이는 무언가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크기는 고양이가 절대 될 수 없을 만큼 컸죠."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범인이 침입했다면 그가 남긴 흔적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생 스티븐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확신하게 되었죠.”

“공장 탑 아래, 개방된 비계 위에서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스티븐이 쇠망치에 맞아 쓰러진 직후, 저는 그 플랫폼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맞은 다른 물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과 나 사이로 공장 연기가 거대한 구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연기 틈새로 나는 굴뚝 꼭대기에 검은 망토를 두른 듯한 어두운 인물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유황 냄새 나는 연기가 다시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연기가 걷히자 나는 멀리 있는 굴뚝을 다시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이성적인 인간이다. 나는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는 어떻게 그 높고 닿을 수 없는 탑에 올라갔으며, 어떻게 그곳을 떠났는가.

그는 신부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눈빛은 스핑크스처럼 도발적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그는 갑작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 형의 두개골이 깨졌어. 하지만 몸은 그리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전날 날짜가 적힌 경고장을 하나 건졌어. 그 위에는 날아드는 칼날 문양이 찍혀 있었지."

"확신합니다," 그가 진지하게 이어갔다. "날개 달린 단검의 상징은 단순히 임의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흉악한 남자에게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설계 그 자체입니다. 비록 그 설계는 매우 어둡고 복잡하지만 말입니다. 그의 머리는 정교한 계략들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것들의 이름인 비밀 언어와 상징, 말없는 신호와 그림들로 짜여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아는 가장 나쁜 유형의 인간입니다. 그는 악마적인 신비주의자입니다.

물론 이 상징이 전달하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상징은 불행한 제 가족 주변을 맴돌던 그의 행동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심지어 믿기 힘든 부분들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날개 달린 무기의 개념과, 발자국 하나 없이 먼지나 풀잎을 흔들지도 않은 채 필립이 자신의 잔디밭에서 갑자기 죽임을 당한 신비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는 것일까요? 깃털 달린 단검이 깃털 달린 화살처럼 날아다닌 것과, 무너지는 굴뚝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망토를 날개로 삼고 매달렸던 그 인물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는 것일까요?"

"당신 말은," 브라운 신부가 깊이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그는 끊임없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시몬 마구스도 그렇게 했죠." 에일머가 대답했다. "중세 암흑시대에는 반그리스도가 날 수 있다는 예언이 흔했습니다. 어쨌든 문서 위에는 날아다니는 단검이 그려져 있었죠. 그 단검이 실제로 날 수 있는지 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적어도 그것은 확실히 적중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가 어떤 종류였는지 눈치채셨소?” 브라운 신부가 물었다. “보통 종이였소?”

스핑크스 같은 얼굴이 갑자기 거친 웃음으로 깨졌다.

“어떤 놈들인지 보시게요.” 에일머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오늘 아침에 하나 얻어냈으니까요.”

그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긴 다리를 녹색 드레싱 가운 아래로 쭉 뻗어 놓았다. 가운이 그에게 조금 짧았다. 그는 턱을 가슴에 기대고 있었다.

그는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드레싱 가운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곧게 뻗은 팔 끝에서 떨리는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 내밀었다. 그의 전체적인 태도는 마비된 듯했다. 경직되어 있으면서도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자 사제의 다음 말이 그를 깨우는 기묘한 효과를 냈다.

브라운 신부는 짧은 시력으로 그 종이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그 종이는 특이한 것이었다. 평범하지는 않지만 거친 질감은 화가의 스케치북 같았다. 붉은 잉크로 대담하게 그려진 것은 날개가 달린 단검이었다. 그 날개는 헤르메스의 지팡이와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죽음이 찾아온다. 바로 다음 날에. 형제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브라운 신부는 그 종이를 바닥에 던져 버리고는, 의자에 쭉 펴 앉았다.

“그런 말에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악마들은 우리가 절망에 빠지도록 만들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려 한다.”

그는 다소 놀랐다. 쓰러져 있던 인물이 갑자기 눈을 뜨며, 꿈에서 놀라 깨어난 듯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기 때문이다.

"맞아요, 맞아요!" 에일머가 기이할 정도로 신이 나서 외쳤다. "악마들이 내가 결코 희망이 없는 것도, 무력한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아마도 당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희망과 더 나은 도움이 내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주머니에 손을 쑤셔 넣고, 사제를 내려다보며 찌푸린 채 서 있었다. 그 긴장감 넘치는 침묵 동안, 사제는 잠시 그 남자가 오랫동안 겪은 위험이 그의 정신에 손상을 입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었다. 그러나 그가 말을 시작했을 때, 그의 태도는 매우 진지했다.

“불운한 형제들이 실패한 이유는 잘못된 무기를 썼기 때문입니다. 필립은 리볼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의 죽음이 자살로 처리된 것입니다. 스티븐은 경찰의 보호를 받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아는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관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잠시 서 있던 비계 위로 따라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롱꾼이었죠.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이 낯선 신비주의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들은 회의주의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아버지의 내면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마법을 연구하다 결국 스트레이크라는 악당에게서 온 검은 마법의 저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해독제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검은 마법의 해독제는 무자비한 물질주의나 세속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검은 마법의 해독제는 흰 마법입니다."

"그건 '흰 마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은빛 마법을 뜻합니다." 다른 한 사람이 낮고 신비로운 어조로 말했다. 마치 비밀스러운 계시를 말하는 듯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말하는 은빛 마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몸을 돌려 붉은 유리창이 달린 중앙 문을 열고, 그 너머의 복도로 들어섰다. 브라운이 짐작했던 것보다 이 집은 깊이가 얕았다. 문이 안쪽 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복도는 정원으로 통하는 또 다른 문에서 끝이 났다. 복도 한쪽에는 방의 문이 하나 있었다. 신부는 혼자 중얼거렸다. 분명히 그곳이 주인이 드레싱 가운 차림으로 뛰쳐나온 침실일 것이다. 그쪽에는 낡은 모자와 코트들이 어지럽게 걸린 평범한 모자걸이 말고는 볼 것이 없었다. 하지만 반대쪽은 더 흥미로웠다. 오래된 은식기가 놓인 짙은 색의 고목 사이드보드와, 그 위에 걸린 낡은 무기들로 이루어진 트로피나 장식품이 있었다. 아놀드 에일머는 그

옆에서 발걸음을 멈췄고, 종 모양의 입구를 가진 긴 낡은 권총을 올려다보았다.

복도 끝의 문은 겨우 틈이 벌어져 있었다. 그 틈새로 희끄무레한 햇빛이 한 줄기 들어왔다. 신부는 자연의 이치에 대한 직감이 매우 예민했다. 그 하얀 빛줄기의 유난한 찬란함이 그에게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일러주었다. 그것은 그가 집으로 다가갈 때 예언했던 바로 그 일이었다. 그는 다소 놀란 주인을 지나쳐 문으로 달려가 열었다. 그리고는 한없이 공허하면서도 눈부신 광경과 마주쳤다. 틈새로 비친 그 빛은 단순한 낮의 흰빛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눈의 흰빛이었다. 사방으로 펼쳐진 들판은 그 반짝이는 하얀 포근함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것은 동시에 늙고 순결해 보였다.

"어쨌든 이것은 흰 마법이군요." 브라운 신부가 경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복도로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은빛 마법도 있겠지요."

어둠이 깔린 병기실의 은빛 광택이 은제품을 비추고, 어두운 갑옷 속의 낡은 강철을 여기저기 번뜩이게 했기 때문이다. 그림자 속에 얼굴을 묻고 이상한 권총을 든 채 돌아서는, 숙고에 잠긴 에일머의 거친 머리 위에는 은빛 불꽃의 후광이 감도는 듯했다.

"내가 왜 이런 낡은 블런더버스를 골랐는지 아십니까?" 그가 물었다. "이 총알을 장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이드보드 위에 놓인 작은 사도 모양 숟가락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무모한 힘을 다해 숟가락 끝의 작은 형상을 부러뜨렸다.

"다른 방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물었다.

"던디의 죽음에 대해 읽어본 적 있는가?"

그는 잠시 전, 신부의 안절부절못하는 태도에 느꼈던 짜증을 이미 털어냈다.

"클래버하우스의 그레엄을 아는가? 그는 계약파 신도들을 박해한 인물이고, 절벽을 곧장 올라탈 수 있는 검은 말을 타고 다녔지. 그는 사탄에게 영혼을 팔았기에, 은총알이 아니면 죽일 수 없었다고 하지 않는가? 적어도 너는 사탄의 존재를 믿을 만큼의 지식을 갖추고 있으니, 그 점은 안심해도 좋겠다."

"아, 네. 저는 마귀를 믿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것은 던디입니다. 즉, 전설 속의 던디, 그 악몽 같은 말을 탄 던디를요. 존 그레이엄은 그저 17세기 프로 용병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조금 나았을 뿐이죠. 그가 그들을 학대했다면, 그는 기병이었기 때문이지, 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그런 오만한 무사가 마귀에게 영혼을 파는 타입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마귀 숭배자들은 전혀 다른 이들이었습니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만한 이름들은 언급하지 않더라도, 던디와 동시대를 살았던 한 남자를 들어볼까요. 스테어의 달림플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다른 한 사람이 거칠게 대답했다.

“그가 한 일을 들었겠지.”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던디가 저지른 그 어떤 짓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잊혀짐이라는 구름 속에 가려서 그 오명에서 벗어났다.”

그는 글렌코 학살을 저지른 장본인이었다. 그는 매우 박식하고 명쾌한 변호사였다. 정치에도 조예가 깊어, 국가 운영에 대해 진지하고도 포괄적인 견해를 지닌 정치가였다. 얼굴은 차분하고 지적이며 세련되어 보였다.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이 사탄에게 자신을 파는 것이다.

에일머는 자리에서 반쯤 벌떡 일어났다. 그는 열렬한 동의를 나타내며 몸을 일으켰다.

“세상에, 맞아요!” 그가 외쳤다. “정교하고 지적인 얼굴! 바로 존 스트레이크의 얼굴이죠.”

그가 몸을 일으켜 신부를 향해 유난히 집중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중앙 문을 통해 다시 안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다. 신부는 그가 오래된 사이드보드로 향하거나, 혹은 자기 침실로 들어갈 것이라 짐작했다.

브라운 신부는 자리에 앉아, 문틈으로 비치는 유리창의 붉은 빛이 비치는 카펫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빛이 가끔 루비처럼 선명해졌다

가 다시 어두워졌다. 마치 폭풍우가 치는 그 날의 해가 구름 사이를 오가듯 했기 때문이다.

초록빛 그릇 속에 떠다니는 작은 수생 생물들 말고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브라운 신부는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전화기 있는 아치형 공간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관청 본부에 있는 친구 보인 박사를 불렀다.

"아일머와 그의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 안에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라면 즉시 몇몇 형사를 이곳으로 보내시겠습니다. 네다섯 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포위하십시오.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마 놀랄 만한 탈출 시도가 있을 테니까요."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앉았다. 어두운 카펫을 응시하며, 유리문으로 들어온 빛이 카펫을 피처럼 붉게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여과된 빛이 그의 마음을 특정한 사고의 경계로 이끌었다. 색이 생기기 전의 첫 희미한 새벽녘처럼, 그리고 창문과 문이라는 상징 속에 번갈아 가려지고 드러나는 모든 신비로움처럼.

닫힌 문 너머에서, 총성 소리와 거의 동시에 인간의 목소리를 닮은 비인간적인 비명이 들려왔다.

총성의 메아리가 사라지기 전에 문이 거세게 열렸다.

주인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섰다. 어깨에서 가운이 찢겨져 내려가고 있었고, 손에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긴 권총을 쥐고 있었다. 그는 온몸이 떨리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 떨림에는 부자연스러운 웃음이 섞여 있었다.

"영광은 백색 마술에 있도다!" 그가 외쳤다. "은총알에 영광을! 지옥의 사냥개는 한 번 너무 많이 사냥했고, 이제야 내 형제들의 원한이 풀렸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에 쥔 권총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브라운 신부는 그를 지나쳐 내달렸다. 유리문을 스치듯 빠져나와 복도로 들어섰다.

그는 복도에서 침실 문 손잡이를 잡았다. 안으로 들어갈 것처럼 보였다. 잠시 몸을 숙여 무언가를 살폈다. 그러고는 곧장 현관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하얗게만 보이던 눈밭 위에, 검은 물체 하나가 누워 있었다.

처음에는 커다란 박쥐처럼 보였다. 하지만 두 번째로 자세히 보니, 결국 그것은 사람이었다. 얼굴을 대고 쓰러진 채였다. 넓은 검은 모자가 얼굴 전체를 덮고 있었는데, 라틴 아메리카 풍의 자태가 감돌았다.

검은 날개처럼 보인 것은 거대한 검은 망토의 양쪽 끝이 아마도 우연히 최대한 넓게 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손은 모두 가려져 있었지만, 브라운 신부는 그중 한 손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망토 가장자리 바로 아래, 손 근처에서 어떤 금속 무기의 빛이 번뜩이는 것도 보였다.

하지만 전체적인 인상은 기묘하게도 문장의 단순하면서도 과감한 디자인과 비슷했다. 흰 배경 위에 펼쳐진 검은 독수리 같았다.

신부는 물체 주변을 돌며 모자 아래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얼굴을 엿볼 수 있었다. 그 얼굴은 정말로 주인이 말한 대로 세련되고 지적인 표정이었다. 심지어 회의적이고 엄격해 보였다. 바로 존 스트레이크의 얼굴이었다.

"아, 참으로 기이한 일이군." 브라운 신부가 중얼거렸다. "정말 거대한 흡혈귀가 새처럼 날아와 착지한 것처럼 보인다."

"그가 어떻게 들어왔겠소?" 문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브라운 신부가 고개를 들어보니, 에일머가 다시 그곳에 서 있었다.

"걸어서도 올 수 있었겠지." 브라운 신부가 모호하게 대답했다.

아일머가 팔을 뻗어, 손짓으로 하얀 풍경을 훑었다.

"눈을 보시오." 그는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울림과 떨림이 섞여 있었다. "눈이 더럽지 않지 않소? 당신이 스스로 '순

수한 백색의 마법’이라고 부른 그 눈이 말소. 마일 떨어진 곳까지 얼룩 하나 없이 하얗게 깔려 있소. 오직 그곳에 떨어진 한 점의 불결한 검은 얼룩만 빼고서는.”

“발자국도 없소. 당신 것과 저의 것 몇 개만 있을 뿐이오. 어느 쪽에서든 집으로 향하는 발자국은 단 하나도 없소.”

그가 잠시 동안 작은 사제를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집중된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한 가지 더 말해 주겠소."

"그가 날아다닐 때 걸친 망토는 걷기에 너무 길었다. 그는 키가 크지 않은 남자였다. 망토가 왕의 의복처럼 뒤로 길게 늘어졌을 것이다. 만약 믿기지 않는다면, 그 망토를 그의 몸에 맞춰 펼쳐 보라."

“두 분,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브라운 신부가 갑자기 물었다.

“너무 빨라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일머가 말했다.

“나는 문밖을 내다보려다 몸을 돌리려던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사방에서 바람이 휘몰아쳤다. 마치 공중에 있는 거대한 바퀴가 나를 향해 회전하며 내 몸을 때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어찌 된 영문인지 몸을 돌렸고, 아무 생각 없이 총을 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본 것은 지금 당신이 보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아일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만약 내 총에 은탄알이 들어 있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그걸 보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눈 위에 누워 있는 것은 분명 다른 몸체였을 테니까.”

"그런데,"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것을 눈 위에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방으로 가져다드릴까요? 복도 쪽 방이 신부님의 침실인 것 같은데."

“아니, 아닙니다.” 에일머가 재촉하듯 말했다. “경찰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게다가 당분간 이런 일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우선 한 잔 할 생각입니다. 그 후에 원하면 저를 처형해도 좋습니다.”

중앙 아파트 안, 야자수 식물과 물고기 그릇 사이에서 에일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방으로 들어설 때 균형을 잃어 물고기 그릇을 넘어뜨릴 뻔했지만, 결국 여러 찬장과 구석진 곳을 무작정 뒤져 브랜디 데칸터를 찾아냈다. 그는 본래 꼼꼼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이 순간 그의 정신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는 한 모금 크게 들이키며 말을 시작했는데, 마치 침묵을 채우려는 듯 열정적으로 말했다.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으시는군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직접 그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스트레이크의 영혼과 에이얼머 가문의 영혼 사이의 다툼 뒤에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당신은 불신자 행세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미신이

라 부르는 모든 것들을 옹호해야 합니다. 자, 행운이나 부적, 그리고 은총알 같은 옛날 할머니들의 이야기 속에 적지 않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가톨릭 신부로서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지론자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일머가 성급하게 말했다. "믿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직분이잖소."

"물론 저는 어떤 것들은 믿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인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믿지 않는 것이지요."

아일머는 몸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기이할 정도로 강렬했다. 마치 최면술사의 눈빛과도 같았다.

"당신은 그것을 믿고 있군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부정하는 자는 믿습니다. 불신자는 믿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으로 느끼지 못합니까? 이러한 모순들이 실제로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것을 포용하는 하나의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혼은 별들의 바퀴 위에서 돌고, 모든 것은 되돌아옵니다. 아마도 스트레이크와 나는 수많은 모습으로 다투어 왔을 것입니다. 짐승끼리, 새끼리.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영원히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찾고 필요로 하므로, 그 영원한 증오조차도 영원한 사랑입니다. 선과 악은 하나인 바퀴 위를 돌며, 그 바퀴는 많지 않습니다. 당

신의 마음속으로 깨닫지 못합니까? 모든 믿음 뒤에서 믿지 못합니까? 오직 하나의 실재가 있고, 우리가 그 그림자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의 측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남자들이 인간으로 녹아들고, 인간이 신으로 녹아드는 중심 말입니다."

"아닙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바깥에는 황혼이 내리기 시작했다. 눈이 많이 쌓인 저녁이라면 보통 하늘보다 땅이 더 밝게 보이는 그 시간이었다. 메인 입구의 현관에는 반쯤 드리워진 커튼 너머로, 브라운 신부가 무언가 뭉툭한 형체를 서 있는 것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다. 그는 처음 들어왔던 프랑스식 창문을 대수롭지 않게 흘겨보았다. 창문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 앞에는 서로 움직이지 않는 두 개의 형체가 서 있었다.

색유리 문이 달린 안쪽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짧은 복도 너머로 두 개의 긴 그림자 끝이 보였다. 저녁의 낮은 빛에 길고 왜곡된 그림자들은 여전히 사람 형체의 회색 풍자화처럼 보였다.

보인 박사는 이미 전화 메시지를 받아 행동에 옮겼다. 집은 포위되었다.

"싫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소?" 주인은 여전히 같은 최면을 거는 듯한 눈빛으로 다그쳤다. "당신은 그 영원한 드라마의 일부를 직접 목격했소. 존 스트레이크가 흑마법으로 아놀드 아일머를 죽이려던 위협을 보았고, 아놀드 아일머가 백마법으로 존 스트레이크를 죽인 것도

보았소. 지금 당신 앞에 살아서 말을 거는 아놀드 아일머를 보고 있소. 그런데도 당신은 그것을 믿지 못하겠소."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인사를 마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못 믿으시오?" 상대가 물었다.

신부는 목소리를 조금만 높였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방 구석구석에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당신은 아놀드 아일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이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존 스트레이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눈 밖에 누워 있는 마지막 형제를 살해했습니다."

그 남자의 눈동자 주변으로 흰 자위가 드러났다. 눈알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른 채,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상대에게 최면을 걸어 지배하려 애쓰는 듯했다.

그가 갑자기 옆으로 몸을 틀었다. 그 순간, 뒤쪽 문이 열리며 평복 차림의 큰 키 형사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다른 한쪽 손은 아래로 늘어져 있었지만, 손아귀에는 권총이 쥐여 있었다.

그 남자가 당황한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고요하던 방 구석구석에 평복 형사들이 숨어 있었다.

그날 저녁, 브라운 신부는 보인 박사와 또 한 번, 그리고 더 길게 대화를 나눴다. 화제는 아일머 가문의 비극이었다.

이미 그 사건의 핵심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존 스트레이크는 자신의 신분을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까지도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는 듯했다.

그는 마지막 아일머를 죽여 쓰러뜨리고 일생의 작품을 완성했다는 사실 앞에서는, 그 외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존재 자체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 남자는 일종의 편집광이에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는 다른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살인 사건 하나에도요. 그 덕분에 저는 오히려 위안을 얻었습니다. 오늘 오후 내내 여러 번 그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랬으니까요.

당연히 생각하셨겠지만, 그는 날개 달린 뱀파이어와 은총알에 대한 기묘하지만 영리한 이야기를 꾸미기보다, 그냥 일반 납총알을 저에게 쏘고 집 밖으로 나가면 됐을 거예요. 그 생각이 제게도 자주 들었습니다. 정말 자주요."

"왜 그가 그러지 않았는지 궁금하군요." 보인이 말했다. "저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걸 알아내셨나요? 그리고 정확히 무엇을 발견하신 거죠?"

"아, 아주 귀중한 정보를 주셨군요." 브라운 신부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특히 결정적인 한 가지 정보가요. 스트레이크가 상상력이 풍부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으며,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는 바로 그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잘 살렸죠."

"아마 그의 유일한 실수는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선택한 데 있었을 겁니다. 그는 제가 성직자라서라면 어떤 말이라도 믿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의사가 말했다. "정말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시작은 가운이었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건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있는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운을 입은 남자를 보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가 자신의 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권총을 내려 들었을 때, 팔을 쭉 뻗어 권총을 클릭하며 확인했습니다. 낯선 무기가 장전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행동이었죠. 물

론 자신의 현관에 있는 권총이 장전되어 있는지 정도는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브랜디를 찾는 모습도, 물고기 그릇에 거의 부딪힐 뻔한 모습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안에서 그런 깨지기 쉬운 장식품을 고정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피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제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진정한 첫 번째 단서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가 두 문 사이의 작은 복도에서 나왔습니다. 그 복도에는 방으로 이어지는 다른 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바로 그 방, 즉 침실에서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돌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저는 열쇠구멍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은 온통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침대도,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떤 방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저는 아마도 전체 그림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아놀드 아일머는 분명 위층에서 잠을 잤고, 아마 생활도 거기서 했을 것이다. 그리고 드레싱 가운을 걸친 채로 내려와 붉은 유리문을 지나갔을 것이다. 복도 끝에서 그는 겨울 햇빛을 배경으로 검은 실루엣을 보았다. 바로 집안의 적이었다. 그는 넓은 챙의 검은 모자를 쓰고, 자락이 펄럭이는 큰 검은 망토를 입은 키 큰 수염 기른 남자를 보았다. 그

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스트레이크가 그를 향해 덤벼들어 목을 조르거나 칼을 찔렀다. 검시가 끝날 때까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런 다음 스트레이크는 모자걸이와 오래된 사이드보드 사이의 좁은 복도에서 승리한 표정으로 최후의 적을 내려다보며 예상치 못한 소리를 들었다. 바로 그 너머 거실에서 들리는 발소리였다. 바로 내가 프랑스식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소리였다.

그의 변장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다. 단순한 위장을 넘어, 즉흥적인 로맨스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는 큰 검은 모자와 망토를 벗어던지고, 시신의 가운을 입었다. 그러고는 다소 섬뜩한 행동을 했다. 적어도 내겐 나머지 행동들보다 더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는 시신을 옷걸이처럼 모자걸이에 걸어둔 것이다. 자신의 긴 망토로 시신을 감싸고 보니, 발끝 아래로 길게 늘어졌다. 그는 자신의 넓은 모자로 시신의 머리를 완전히 가렸다. 잠긴 문이 있는 그 좁은 복도에서 시신을 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정말로 영리한 방법이었다. 나조차 모자걸이가 단지 모자걸이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지나쳤을 정도였다.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쳤던 무의식적 순간은,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그는 아마도 거기서 멈췄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언제라도 시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곳에 매달려 있는 시체는, 당신이 설명을 요구할 만한, 즉 '무언가 설명이 필요한' 존재였다. 그는 더 과감한

선택을 했다. 스스로 시체를 발견하고, 스스로 그 이유를 설명해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기묘하고도 끔찍할 만큼 풍요로운 두뇌에, 대체와 역할 전환을 다루는 한 편의 이야기 구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아놀드 아일머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렇다면 죽은 적에게 존 스트레이크의 역할을 맡기는 것은 어찌 되었을까?

그 어지럽고 뒤집힌 그 세계에는, 어둡고도 기발한 상상력을 가진 그 남자의 취향을 저격할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 마치 두 치명적인 원수가 서로의 복장을 하고 참석하는 끔찍한 분장 무도회와도 같았다. 다만 그 무도회는 죽음의 춤이었고, 그 춤추는 이들 중 한 명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 남자가 자신의 마음에 그 구상을 심어두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이유다. 그리고 나는 그가 미소 짓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상상한다.

브라운 신부는 흐릿하지 않은 커다란 회색 눈으로 공허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은 자주 깜빡이는 습관이 없으면 그의 얼굴에서 유일하게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그는 담담하고 진지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무엇보다도 이성과 상상력, 그리고 마음의 위대한 선물들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본래 선하다. 심지어 그것이 악용될 때조차 그 기원을 완전히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남자에게는 악용될 수 있는 매우 고귀한 재능이 있었다. 바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이다. 그는 위대한 소설가였다. 다만 그는 그 허구적 능력을 실용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왜곡했을 뿐이다. 그는 진실된 허구가 아닌, 거짓된 사실로 사람들을 속이는 데 그 힘을 썼다.

그것은 정교한 변명과 기교 넘치는 거짓말로 노인 에일머를 속이는 것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처음에는 단지 어린아이의 장난스러운 거짓말, 즉 '영국의 왕을 보았다'거나 '요정의 왕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강해진 것은 모든 악덕을 영속시키는 죄, 즉 자만심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독창적인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능력에 점점 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젊은 에일머들이 그가 아버지를 항상 마법처럼 사로잡았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것은 『아라비안 나이트』의 화자가 폭군을 사로잡던 그 종류의 마법과 같았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시인의 자만심과, 위대한 거짓말쟁이가 지닌 거짓되지만 헤아릴 수 없는 용기를 안고 세상을 걸었다. 그의 목숨이 위기에 처하면 언제든 새로운 『아라비안 나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오늘, 그의 목숨이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그는 그 일이 단순한 음모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판타지로도 즐겼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진실된 이야기를 거꾸로

풀어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아있는 듯이, 살아있는 자를 죽은 듯이 다루었죠. 그는 이미 에일머의 드레싱 가운을 입고 있었고, 이제는 에일머의 몸과 영혼까지 차지해 갔습니다. 그는 눈밭에 차갑게 누운 시신이 마치 자신의 시신인 양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시신을 특이한 방식으로 펼쳐 놓았으니, 맹금류가 날아내리는 듯한 위용을 풍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시신을 자신의 어둡고 날렵한 의복으로만 장식한 것이 아니라, 은 탄환에 맞아야만 떨어질 수 있는 검은 새에 관한 전체적인 어둠의 동화까지 입혔습니다.

사이드보드 위의 은빛 광채였는지 문 너머로 빛나는 눈밭이었는지, 그 무엇이 그의 강렬한 예술적 기질에 '마법사에게 쓰이는 흰 금속'과 '백색 마법'이라는 주제를 떠올리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원이 무엇이든, 그는 시인처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실용적인 사람처럼 매우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눈밭에 던져 스트레이크의 시체로 완성함으로써, 역할의 교환과 전복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스트레이크를 공중을 떠도는 존재, 속도의 날개와 죽음의 발톱을 가진 하르피야처럼 묘사하며 공포를 고조시키려 애썼습니다. 발자국이 없었던 이유 등 다른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죠.

나는 그의 그 한 가지 예술적 대담함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건에 있는 모순 중 하나를 오히려 그 사건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의 코트가 그에게 너무 길었다는 사실은, 그가 평범한 인간처럼 땅을 걷지 않았음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매우 날카롭게 바라보았습

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그 순간 그가 매우 큰 블러핑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보인 박사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때 이미 진실을 알아차리셨나요?"

그가 물었다.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는 신경을 예민하게 만드는 기이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추측을 빠르게 내렸을 때와 천천히 내렸을 때, 어느 쪽이 더 기묘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하셨고, 언제부터 확신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군요."

"내가 자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비로소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 친구가 대답했다.

"그건 닫힌 문틈으로 비치는 붉은 빛이 카펫 위를 밝히다 어두워졌다 밝혔기 때문이었어. 마치 복수를 외치며 선명해져 가는 피의 얼룩처럼 보였지. 왜 그 빛이 그렇게 변했을까? 해가 나온 것도 아니었어. 오직 그 뒤에 있는 두 번째 문이 정원으로 열렸다 닫혔기 때문이었지. 하지만 만약 그가 밖으로 나가 적을 만났다면, 그 즉시 경보를 울렸을 거야. 하지만 그 소동이 일어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어."

"그는 무언가를 하러, 혹은 무언가를 준비하러 나간 게 분명해 보였어. 하지만 언제 그랬는지 정확히 아는 건 또 다른 문제지."

"나는 마지막 순간, 그가 나에게 최면을 걸려 했다는 걸 알았어. 부적 같은 눈빛과 주문 같은 목소리로 나를 지배하려 했던 거야. 예전 에일머를 대할 때도 그랬겠지. 하지만 그가 나를 조종한 건 말투 때문만이 아니었어. 그가 한 말, 그 안에 담긴 종교와 철학 때문이었지."

"죄송하지만 저는 현실적인 인간이라서요." 의사가 거친 유머를 섞어 말했다. "종교나 철학 같은 건 별로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너도 현실적인 사람이 될 거야."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자, 의사 선생님. 나를 꽤 잘 알고 있지? 내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란 것도 알겠지. 모든 종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안다. 나쁜 종교 안에도 착한 사람이 있고, 좋은 종교 안에도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한 가지 사소한 사실을 배웠어. 오직 현실적인 사람으로서, 완전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경험으로 터득한 거야. 마치 동물의 습관이나 좋은 와인의 상표처럼 말이지."

"나는 철학적으로 사색하는 범죄자를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 만약 만나더라도, 그들은 항상 동양적 관념과 순환론, 윤회론,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와 자기 꼬리를 무는 뱀 같은 이야기로 흘러갔지."

"나는 단지 실무적인 경험에서 깨달았어. 그 뱀의 종복들에게는 저주가 내려져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배를 기어 다니고, 흙을 먹어야 한다는 저주 말이야. 그리고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할 줄 모르는 무뢰한이나 방탕자는 이 세상에 태어난 적이 없었지."

"그것이 실제 종교의 기원과는 다를지라도, 우리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바로 악당들의 종교야. 그리고 내가 알고 있건대, 그때 말하고 있던 자는 분명 악당이었어."

"왜요?" 보인이 물었다. "사악한 자라면 어떤 종교든 마음대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다른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떤 종교든 믿는다고 공언할 수 있었죠. 즉, 모든 것이 위장이라면 어떤 종교든 가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단순한 기계적인 위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의심할 여지 없이 기계적인 위선자만으로도 가능하겠죠. 어떤 얼굴이든 어떤 가면을 쓸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특정 구절을 외우거나, 자신이 특정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거리로 나가 웨슬리 감리교도라고, 혹은 샌드먼파 신자라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설득력 있는 억양은 나오지 않겠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예술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술가에게 위장은 어느 정도 얼굴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가 외부에 만들어낸 것은 그 내부의 무엇과 대응되어야 하죠. 그는 자신의 영혼의 재료들 중 일부로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웨슬리 감리교도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는 설득력 있는 신비주의자이자 운명론자일 수 있었어도, 설득력 있는 감리교도가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만약 그 남자가 정말 이상주의자가 되려 한다면 그가 품게 될 이상형의 종류입니다. 그에게 저와 나누었던 대화의 핵심은 가능한 한 이상적으로 보이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형의 남자가 이상을 추구할 때, 그가 도달하는 이상은 대체로 그런 종류입니다."

"그런 유형의 남자는 피로 범벅이 되어 있을지라도, 항상 성실하게 불교가 기독교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는 성실하게 불교가 기독교보다 더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끔찍하고 섬뜩한 빛을 발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진심으로 말하건대,"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그를 비난하는 것인지, 오히려 변호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누군가를 천재라 부르면서 그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예술가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며 스스로를 배신합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그다지 잘 그리지 못하는 척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시도한다 해도, 결국은 형편없는 것을 강렬하게 패러디한 것에 불과하죠. 이 남자는 웨슬리안 감리교를 훨씬 더 두렵고 놀라운 것으로 만들어냈을 겁니다."

신부가 다시 밖으로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추위는 더 깊어졌지만, 묘한 취기를 자아냈다. 나무들은 은빛 촛대처럼 서 있었다. 정화의 거룩한 성월 같은, 믿기 어려울 만큼 차가운 풍경이었다. 그 추위는 날카로웠다. 순수한 고통이라는 은빛 검이 한때 순수함의 핵심을 찌르던 그 추위와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을 부르는 추위가 아니었

다. 다만, 우리의 불멸하고 무한한 생명력을 막는 모든 유한한 장애물을 죽인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황혼의 창백한 녹색 하늘에는 베들레헴의 별처럼 한 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기묘한 역설로 보아, 그 하늘은 명징함의 동굴 같았다. 마치 차가움이 따뜻함처럼 모든 것을 생명으로 깨우는 녹색 용광로가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결정질 색채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사물들은 날개 달린 생명체처럼 빛나고, 색유리처럼 투명해졌다.

그것은 진리로 오싹하게 떨리게 했고, 얼음칼날처럼 진리와 오류를 갈라놓았다. 하지만 그 결과로 남은 것들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마치 모든 기쁨이 빙산의 심장 속에 보석으로 박혀 있는 듯했다.

신부는 점점 더 깊어지는 녹색 황혼 속으로 들어갔다. 공기의 처녀 같은 활기를 점점 더 깊이 마시며 그는 자신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잊혀진 혼란과 병적인 우울이 뒤로 남겨진 듯했다. 피투성이가 된 남자의 발자국을 눈이 지워버린 것처럼, 그것들은 말끔히 지워진 듯했다.

그가 눈길을 헤치며 집으로 돌아가자, 그는 중얼거렸다. “그래도 그는 백마술이 존재한다는 데는 옳아. 다만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알기만 하면 말이야.”

일곱: 다나웨이가의 파멸

두 풍경화가 한 장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풍경은 바다 풍경이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그 풍경에 묘한 감동을 받았지만, 그 감동의 내용은 정확히 같지는 않았다.

런던에서 이름이 올라가고 있는 한 화가에게 그 풍경은 낯설고도 새로운 것이었다. 반면 현지 화가인 다른 이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풍경이었다. 그는 현지에서 꽤나 명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그 풍경은 더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들이 본 바에 따르면, 이 풍경은 색채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해안가의 모래밭이 그 배경이 되었다. 전체 장면은 어두운 색조의 띠들로 나뉘어 있었는데, 죽은 듯한 초록빛과 청동색, 갈색, 그리고 단순한 칙칙함을 넘어선 회색빛이 섞여 있었다. 그 회색빛은 황혼 속에서 오히려 금빛보다 더 신비로운 기운을 풍겼다.

수평선을 가로지르는 그 단조로운 선들을 깨뜨리는 것은 한 채의 긴 건물이 전부였다. 이 건물은 들판에서 시작해 바다의 모래톱까지 길게 뻗어 있었다. 건물의 가장자리에는 처량한 잡초와 부들이 자라나, 마치 해초와 맞닿을 듯했다.

그러나 이 건물의 가장 기이한 특징은 지붕 위쪽이었다. 그곳은 폐허처럼 헐거운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많은 넓은 창문과 거대한 균열이 뚫려 있어, 꺼져가는 빛을 배경으로 어두운 골격처럼 보였다. 반면, 건물 아래쪽의 묵직한 몸체는 창문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창은 막혀 벽돌로 채워졌고, 그 윤곽은 황혼 속에서 희미하게만 드러났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개의 창문은 여전히 창문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기묘한 점은, 그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도대체 누가 그 낡은 조개껍질 같은 집에 살겠느냐?" 런던에서 온 남자가 외쳤다. 그는 키가 크고 보헤미안 풍의 옷차림을 한 젊은이였지만, 거친 붉은 수염이 있어 나이 들어 보였다. 첼시 사람들은 그를 친숙하게 해리 페인이라고 불렀다.

"유령이지, 뭐." 친구인 마틴 우드가 말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유령처럼 살거든."

역설적이게도, 런던에서 온 화가는 거칠지만 청신한 기운과 경이로움 속에서 마치 시골 사람처럼 보였다. 반면 현지 화가는 그에게 성숙하고도 다정한 재미를 느끼며, 훨씬 날카롭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처럼 보였다.

사실 후자는 훨씬 조용하고 관습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사각형에 둔중한 얼굴은 깨끗이 면도되어 있었다.

"물론 이건 시대의 흐름일 뿐이지," 그가 이어 말했다. "오래된 시대와 가문이 함께 사라져 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 집에는 다나웨이 가문의 마지막 혈육이 살고 있다. 하지만 그들만큼 가난한 새 빈민들은 많지 않다. 그들은 다락방조차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없어, 폐허의 아래층 방에서 박쥐나 부엉이처럼 살아간다.

그런데도 그들은 장미 전쟁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족 초상화를 보유하고 있다. 영국에서 초상화가 처음 등장하던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것들이다. 그중 몇몇은 매우 훌륭하다. 내가 수리를 의뢰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특히 한 점, 그리고 가장 오래된 작품 중 하나가 있는데, 너무 생생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저 집은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는 것 같소." 페인이 대답했다.

"글쎄, 솔직히 말해서 그렇긴 해." 친구가 말했다.

그 침묵은 해자(堀) 옆 갈대숲에서 나는 아주 작은 소리로 깨졌다. 어둠 속의 그림자가 강가를 따라 빠르게 지나갈 때, 놀란 새처럼 갑자기 움직이는 그 모습은 그들에게 합리적인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검은 가방을 든 채 성큼성큼 걷는 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의 얼굴은 길고 창백했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런던의 낯선 사람을 약간 어둡고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다만 바넷 박사일 뿐이오." 우드는 안도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집으로 올라가시는 길인가요? 혹시 누구 아프신 분은 없으시죠?"

"저런 곳에서는 누구나 늘 병들기 마련이지." 의사가 낮게 중얼거렸다. "다만 어떤 때는 너무 아파서 그 사실을 모를 뿐이야. 그곳의 공기 자체가 재앙이고 전염병이나 다름없어. 나는 호주에서 온 그 젊은이가 부럽지 않아."

“그리고 그 호주에서 온 젊은이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페인은 갑작스럽게, 그리고 약간은 정신이 없는 듯이 물었다.

“아!” 의사가 코웃음을 쳤다. “당신의 친구가 그 사람에 대해 말해 주지 않았소? 사실 나는 그가 오늘 도착할 것이라고 믿고 있소. 아주 고전적인 멜로드라마식의 로맨스지. 식민지에서 돌아온 상속자가 폐허가 된 성으로 돌아오고, 덤으로 담쟁이덩굴로 뒤덮인 탑에서 기다리는 여자와 결혼하라는 오래된 가족 계약까지. 다 갖추어졌소. 재미있는 옛이야기가 아니겠소?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도 가끔 일어나는 법이오. 게다가 그에게는 약간의 돈도 있소. 이 모든 일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부분이지.”

"그 성채 꼭대기에 있는 다나웨이 양은 이 일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마틴 우드가 차갑게 물었다.

“이제 와선 다른 모든 일을 대하듯 그렇게 생각하지요.” 의사가 대답했다. “이 미신이 난무하는 늙고 잡초가 무성한 굴에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꿈꾸고 표류할 뿐이죠. 저는 그녀가 다나웨이 가문의 운명, 즉 가문의 계약과 식민지의 남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봅니다. 당신도 동의하지 않나요? 만약 그 남자가 한쪽 눈이 없고 혹등진 흑인이며 살인광증이라도 드러나면, 그녀는 오히려 그것이 마지막 장식처럼 완벽하게 어울려, 황혼의 풍경과 잘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드 씨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내 런던 친구에게 시골 친구들을 별로 생생하게 묘사해 주지 못하고 있군요. 원래는 그를 데려가서 그분들을 소개해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화가라면 기회만 있으면 다나웨이 가문의 초상화를 놓쳐서는 안 되죠. 하지만 호주인들 침공이 한창인 것 같으니, 그건 잠시 미루는 게 좋겠군요."

"제발, 어서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보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바넷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들의 황폐해진 삶에 조금이라도 빛을 더해준다면, 제 일이 훨씬 수월해질 테니까요. 기운을 북돋아 줄 식구들이 많을수록 좋겠지요. 아마도 식민지 출신 사촌들이 많이 모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을수록 더 좋죠. 자,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그들이 집에 가까워지자, 집이 짠물이 고인 해자에 둘러싸인 섬처럼 고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다리를 건너 그 물을 건넜다. 반대편에는 넓고 거친 돌바닥이나 제방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위로는 큰 균열이 가로지르고 있었다. 균열 사이사이로 작은 풀무더기와 가시가 돋아나 있었다. 회색 황혼빛 아래 이 바위 단지는 넓고 황량해 보였지만, 파인은 이 공간의 한 구석이 이렇게나 많은 광야의 영혼을 담고 있을 수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단지는 한쪽 면으로만 돌출되어 있었는데, 마치 거대한 현관 계단 같았다. 그 너머로 문이 있었다. 아주 낮은 이마를 가진 튜더 양식의 아치형 문이 열려 있었지만, 동굴처럼 어둠에 잠겨 있었다.

신사적인 태도로도 예의는 갖추지 않은 채, 날렵한 의사가 그들을 집 안으로 이끌었다. 페인은 다시 한번 깊은 우울감에 휩싸이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매우 폐허가 된 탑으로 올라가고, 가늘고 굽이치는 계단을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첫걸음이 실제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몇몇 짧고 끊어진 계단을 따라 내려갔고, 어둠이 깔린 큰 방들로 들어섰다. 어둠이 깔린 방들은 어둠이 깔린 방들은 어둠이 깔린 방들은

방들은 어둠이 깔린 방들은 어둠이 깔린 방들은 어둠이 깔린

방들은 어둠이 깔린 방들은 어둠이 깔린 방들은 어둠이 깔린

방들은 어둠이 깔린 방들은 어둠이 깔린 방들은 어둠이 깔린

방들은 어둠이 깔린 방들은 어둠이 깔린 방들은 어둠이 깔린

튼실한 바넷 박사조차도 그들을 맞으러 나타난 인물의 고요한 접근에 살짝 놀랐다. 사실 방은 너무 조용해서, 그들이 들어섰을 때 비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두 깜짝 놀랐다.

방에는 세 명의 인물이 있었다. 어둠 속의 어둠처럼 움직이지 않는 세 명의 흐릿한 형체였다. 세 사람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마치 짙은 그림자처럼 보였다. 가장 앞선 인물이 창문에서 들어오는 회색빛에 더 가까워지자,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머리카락 테두리만큼이나 회색빛이 도는 얼굴이었다.

이 노인은 비인, 즉 청지기였다. 그 기이한 아버지였던 마지막 다나웨이 경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오랫동안 그 역할을 대신해 왔다. 이빨이 없었다면 그는 멋진 노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가끔씩 드러내는 한 개의 이빨 때문에, 오히려 다소 음산한 인상을 주곤 했다.

그는 의사와 그의 친구들을 정중한 예의로 맞이하며, 검은 옷을 입은 다른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한 사람은 페인에게, 이 성에 또 한 번의 우울한 고대감을 더하는 존재로 보였다. 그는 로마 가톨릭 사제였는데, 어둡던 옛날의 사제용 숨구멍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페인은 그가 이 우울한 곳에서 기도를 읊조리거나, 묵주기도를 하거나, 종을 치거나, 아니면 또렷하지 않고 슬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아마도 그 부인에게 종교적인 위로를 주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위로가 그리 큰 위안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적어도 그리 기운을 북돋우는 것은 아니었다.

사제 개인으로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다. 평범하고 표정이 거의 없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부인은 사뭇 달랐다. 그녀의 얼굴은 평범하거나 별볼일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검은 옷과 머리, 그리고 배경의 어둠 속에서 눈부시게 드러나 있었다. 그 창백함은 거의 두려울 정도였지만, 동시에 그 아름다움은 거의 생생할 정도로 살아 있었다.

페인은 감히 허용되는 한 오래도록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까지, 그 얼굴을 훨씬 더 오래 바라보게 될 것이다.

우드는 친구들과 가볍고 정중한 인사를 나누며, 초상화를 다시 보려는 자신의 의도를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그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는 날에 찾아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곧 그는 가족들이 방문객이 찾아와 자신들의 주의를 돌려 주거나 충격을 덜어주길 오히려 은근히 반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라서 우드는 주저하지 않고 페인을 중앙 접객실을 지나 그 너머의 서재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한 점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우드는 이를 단순한 그림이 아닌 거의 퍼즐처럼 보여주고 싶어 했다. 작은 사제의 발걸음도 함께했다. 그는 오래된 기도문뿐만 아니라 오래된 그림에 대해서도 무언가 알고 있는 듯했다.

"이걸 눈치챈 건 좀 자랑스럽네요." 우드가 말했다. "이 그림은 홀바인 작품일 거예요. 만약 홀바인이 아니라면, 홀바인과 맞먹는 위대한 화가가 그 시대에 살았다는 뜻이니까요."

그 초상화는 그 시대의 특징을 강렬하면서도 진솔하게, 생동감 있게 담아냈다. 금박과 모피로 장식된 검은 옷을 입은 남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얼굴이 퉁퉁 붓고 다소 창백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경계하고 있었다.

"아, 정말 아깝다. 예술이 그 과도기적 단계에서 영원히 멈췄다면 말이지." 우드가 탄식했다. "그렇게만 했다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그 그림이 현실감 넘치는 이유는, 불필요한 디테일들이 오히려 조금 더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야. 얼굴이 그 틀 속에서 두드러져 나오지 않겠어? 눈동자는 얼굴보다 더 생생해. 내 영혼이 증언하건대, 그 눈은 얼굴에 비해 지나치게 생생해! 마치 그 교활하고 민첩한 눈알이 거대한 창백한 가면 밖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조금이라도 경직된 부분이 보이네요." 페인이 말했다. "중세풍 미술이 끝날 무렵, 북쪽에서는 해부학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죠. 그 왼쪽 다리는 데생이 많이 어긋나 보입니다."

"그건 좀 의문스럽군요." 우드가 조용히 대답했다. "사실주의가 막 시작되던 시기,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남용되기 직전의 화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적이었던 경우가 많았죠. 그들은 관습적으로 여겨지는 대상에 실제 초상화의 디테일을 담았습니다. 이 화가의 눈썹이나 안와가 약간 기울어져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를 알았다면, 한쪽 눈썹이 다른 쪽보다 실제로 더 튀어나와 있었음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리가 불편했거나 어떤 장애가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 검은 다리는 곧게 펴진 것이 아니라 휘어진 것으로 의도되었을 수도 있죠."

"저 늙은 악마, 참으로 사탄 같은 생김새다!" 페인이 갑자기 외쳤다. "신부님, 제 말투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마귀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제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흥미롭게도, 마귀는 절뚝거린다는 전설이 있었죠."

"제발요." 페인이 반박했다. "그가 마귀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대체 그 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헨리 7세와 헨리 8세 시대에 다나웨이 경이었지." 동료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에게도 기이한 전설들이 많았어. 그중 하나는 액자 둘레에 새겨진 글귀에서 언급되고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은 내가 여기서 찾은 책에 누군가 남긴 노트에 적혀 있어. 둘 다 꽤 흥미로운 내용이야."

페인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고개를 길게 빼 들었다. 그림 틀을 따라 빙 둘러쓴 낡은 글자를 따라 읽으려는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낡은 철자법과 낡은 표기법이 걸려 넘어졌다. 하지만 그걸 빼고 보면, 그것은 어딘지 모르게 시적인 운율을 가진 구절처럼 보였다.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일곱 번째 후계자가 올 때, 나는 돌아오리라. 일곱 번째 시계가 울릴 때, 나는 떠나리라. 그때 아무도 내 손을 잡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 마음을 잡은 자여, 슬프다.

"이상하게도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나네요." 페인이 말했다. "하지만 그건 제가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친다." 우드가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발견한 오래된 책의 기록을 보면, 이 미남자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선택했다. 그 방식은 너무도 교묘해서 결국 그의 아내가 그의 살인범으로 몰려 처형당했다. 또 다른 메모는 일곱 대를 건너뛴 후, 조지 왕조 시기에 일어난 또 다른 비극을 기념하고 있다. 그때도 다나웨이라는 남자가 아내의 와인에 독을 타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두 자살 사건 모두 저녁 7시에 일어났다고 한다. 추측컨대, 그는 일곱 번째 상속자가 올 때마다 되돌아와서, 속아 결혼한 부인에게 시련을 안겨주는 것 같다. 바로 그 시구가 암시하듯이."

"그 논리라면," 페인이 대답했다. "다음 일곱 번째 남자는 조금 불편할 겁니다."

우드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새 상속인은 일곱 번째가 될 거야."

해리 페인은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듯 거대한 가슴과 어깨를 쭉 펴며 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가 외쳤다. "우리는 모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계몽된 시대에 살고 있다. 내가 이 끔찍하고 습한 공기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조롱하려는 게 아니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리라고는 믿지 못했을 것이다."

"맞아요." 우드가 말했다. "이 지하 궁전에 오래 살다 보면 사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 그림을 다루고 걸어 둔 지 오래다 보니, 저도 묘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그 그림 속 얼굴이, 여기 사는 죽은 자들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부적이나 자석처럼, 그림이 자연을 지배하고 사람과 사물의 운명을 끌어당기는 것 같으니까요. 아마 당신은 이를 지나친 상상력이라고 부르겠죠."

'저 소리는 뭐지?' 페인이 갑자기 외쳤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들리는 소리라곤 멀리서 울려 퍼지는 바다의 둔탁한 파도음뿐이었다. 그러자 그 소리와 섞여 무언가가 들리기 시작했다. 파도 소리에 가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차 가까워지는 목소리였다. 마치 파도 소리 너머로 누군가 부르는 것 같았다.

다음 순간, 그들은 확신했다. 어스름한 밖에서 누군가 외치고 있었다.

페인은 자신의 뒤쪽에 있는 낮은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밖을 내다보았다. 그곳은 둑과 하늘이 비치는 해자(해자)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창문이었다. 하지만 그 거울 같은 물속의 풍경은 그가 이전에 보았던 것과 달랐다.

수면 위에 드리운 둑의 그림자 아래로, 두 개의 어두운 그림자가 늘어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둑 위에 서 있는 한 인물의 발과 다리에서 비친 반사상이었다. 그 좁은 시야를 통해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창백하고도 생기가 없는 석양의 빛을 배경으로 검은 실루엣을 그린 두 다리에 불과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구름 속처럼 머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어서 들려오는 소리에 어떤 끔찍한 느낌을 더했다. 그것은 누군가 크게 외치는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제대로 들리지도, 이해되지도 않았다.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페인은 그 작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달라진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저 사람, 어찌 그리 기묘하게 서 있나!”

"아니, 아니요." 우드는 다독이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울 같은 물 위에서는 사물이 종종 그렇게 비춰지곤 합니다. 물결이 일렁이는 탓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까?” 사제가 짧게 물었다.

"그의 왼쪽 다리가 휘었다"라고 우드가 말했다.

페인은 타원형 창을 신비로운 거울 같은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재앙을 암시하는 또 다른 해독할 수 없는 형상들이 있는 듯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 인물 옆에 있던 무언가였다. 빛을 배경으로 어둡게 드러난 세 가닥의 가는 다리. 마치 괴상한 세 발 달린 거미나 새가 낯선 이 곁에 서 있는 듯했다. 그러자 그는 덜 미친 듯한 생각을 했다. 이방신의 신탁과 같은 삼각대 같은 것이라고. 그리고 다음 순간, 그 형체는 사라졌고, 인간 형상의 다리들은 그림 밖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가 돌이켜 보니, 이빨 하나만 드러낸 채 입을 벌리고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난 노령의 집사 바인(Vine)의 창백한 얼굴이 있었다.

"그가 왔습니다."

"호주에서 온 보트가 오늘 아침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서재를 나서 중앙 살롱으로 돌아서던 순간, 새로 온 사람의 발소리가 현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와 함께 들렸다. 가벼운 짐 몇 가지를 끌며 따라오는 그의 뒤를 쫓아온 발걸음이었다.

페인은 그중 한 가지를 보고는 안도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지닌 삼각대는 사실 휴대용 카메라의 접이식 다리일 뿐이었다. 쉽게 포장하고 풀 수 있는 간단한 장비였다. 그것을 나르는 남자는 이제야 비로소 단단하고 정상적인 인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 듯했다.

그는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차림새는 무심하고 휴양지 같은 느낌이었다. 회색 플란넬 셔츠를 입었고, 부츠 소리는 고요한 공간

에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 힘차게 걸어갔다. 다리에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경미한 절름발이 흔적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페인과 그의 동료들은 그의 옷차림이 아닌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어낼 수가 없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환영 방식에 묘하고 불편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유를 자신도 모른 채로 있었다. 어쨌든 그에게 약혼한 것으로 여겨진 그 여자는 분명히 그를 끌어당길 만큼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그를 분명히 두려워하게 했다.

노인 하인은 그에게 일종의 봉건적 예의를 갖추었지만, 마치 그가 가족의 유령인 것처럼 대했다. 신부는 여전히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따라서 아마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종류의 아이러니, 그리스식 아이러니에 더 가까운 것이 페인의 마음을 지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그 낯선 이를 악마로 꿈꿔왔지만, 그는 무의식적인 운명이라는 것이 거의 더 나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오이디푸스의 끔찍한 순수함으로 범죄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가족 저택에 매우 맹목적으로 접근하여 첫 번째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세우기까지 했다. 그리고 카메라조차도 비극적인 파이토네스의 삼각대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페인은 잠시 후 작별을 고할 때, 호주인이 이미 주변 상황에 대해 완전히 무감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에 놀랐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지 마... 아니면 곧 다시 오든가. 너는 인간처럼 보이거든. 이 곳은 나한테 소름 끼치게 해."

페이느는 거의 지하에 가까운 복도를 빠져나와 밤바다의 공기와 냄새를 맡았다. 그는 마치 꿈속의 저승에서 깨어난 듯했다. 그곳에서는 사건들이 뒤섞여 일어나고, 불안하면서도 현실감이 떨어지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낯선 친척의 등장은 어딘지 모르게 만족스럽지 못했다. 마치 설득력이 부족한 듯했다. 오래된 초상화와 새로 온 이가 가진 똑같은 얼굴은, 마치 두 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처럼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악몽처럼 느껴지지도 않았다. 어쩌면 그가 가장 선명하게 본 것은 그 얼굴 자체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씀하셨나요?" 그들이 어두워지는 바다 옆, 줄무늬가 있는 어두운 모래사장을 함께 걸어가며 그가 의사에게 물었다. "그 젊은이가 다나웨이 양과 가족 간의 약속 같은 것으로 약혼했다고요? 소설 같은 이야기군요."

"하지만 그것은 역사 소설이죠." 바넷 박사가 대답했다. "다나웨이 가문은 몇 세기 전에 모두 잠들었다. 그 시절에는 우리가 로맨스 소설에서나 읽을 법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곤 했지."

"맞아요. 가문마다 특정 연령 관계에 있는 둘째나 셋째 사촌들이 결혼해 재산을 통합한다는 관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관습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근친 결혼을 했다면,

유전적 원리로서 그들의 상태가 이렇게 부패한 데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썩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페인은 다소 당황한 듯 대답했다.

"음," 의사가 대답했다. "젊은이는 분명히 절름발이이긴 하지만, 썩어빠진 모습은 아닙니다."

“젊은이요!” 파인은 갑자기, 이유 없이 분노를 터뜨렸다. “만약 그 젊은 여자가 형편없어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네 취향이 형편없다고 본다.”

의사의 얼굴이 어둡고 쓴맛으로 가득 찼다. “그 일에 대해선 제가 당신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들은 침묵을 지키며 산책길을 마쳤다. 둘 다 자신도 모르게 비이성적으로 무례하게 행동했고, 상대방의 비이성적인 무례함도 똑같이 느꼈기 때문이다.

우드라는 친구는 그림과 관련된 몇 가지 용무를 처리하기 위해 뒤에 남았다. 결국 페인은 혼자 그 일에 대해 곰곰이 곱씹으며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페이인은 식민지 출신 사촌이 내민 초대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 사촌은 자신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누군가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몇 주 동안 페이인은 다른웨이 가의 어두운 내부를 자

주 드나들었다. 비록 그가 사촌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부인의 우울증은 오래된 것이었고, 아마도 더 큰 위로가 필요했을 것이다. 어쨌든 페이인은 그 우울증을 걷어내려 부지런히 노력했다. 그는 양심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상황은 그를 의심스럽고 불편하게 만들었다.

몇 주가 흘렀지만, 새로운 다른웨이 가의 주인이 옛날의 약정에 따라 자신이 약혼한 것으로 여기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어두운 복도를 방황하며, 어둡고 음산한 그림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감옥 같은 집의 그림자가 분명히 그에게로 좁혀오고 있었다. 그의 호주 특유의 자신감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하지만 페인은 가장 궁금해하던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그는 한때 그림을 거는 일을 하는 친구 마틴 우드에게 마음을 털어놓으려 했다. 마틴 우드가 그림을 걸며 어슬렁거릴 때였다. 하지만 그에게서도 페인은 별다른 위안을 얻지 못했다.

"나로서는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 같소." 우드가 짧게 말했다. "약혼 때문이오."

"물론 약혼 같은 게 정해져 있다면 간섭하지 않겠지." 친구가 선을 그으며 말했다. "하지만 약혼이 정해진 건가? 나는 그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녀를 충분히 지켜본 결과, 그녀 자신도 약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확신할 수 있어. 어쩌면 가능성

이 있을 뿐이라고는 여길지 몰라도. 그는 약혼이 있다고 말하지도, 더구나 있어야 한다고 암시조차 하지 않아. 내 생각엔 이렇게 미적거리는 게 모든 사람에게 불공평한 것 같아."

"특히 당신 같은 사람에게 말입니다," 우드가 약간 날카롭게 말했다. "하지만 제가 말해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생각하는 바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 그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거야?" 페인이 물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받아들여질까 봐 두렵다고요."

상대가 대답했다.

"그렇게 쏘아붙이지 마세요. 그건 여자를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림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 그림을 무서워한다니!" 페인이 되물었다.

"그가 저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우드가 말했다. "다른웨이의 재앙이 그와 그녀에게 내려진다는 구절, 기억나지 않나요?"

"네, 하지만 좀 보시오." 페인이 외쳤다. "다른웨이의 저주도 양쪽 입장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소. 당신은 먼저, 약속 때문에 내 뜻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더니, 이제는 저주 때문에 약속대로 할 수 없다고 하오. 만약 저주가 약속을 파괴할 수 있다면, 그녀가 왜 약속에 묶여 있어야 하오? 서로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되는

거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일이지. 내가 그들이 지키려 하지 않는 것을 지키기 위해 고통받아야 한다는 말이오? 당신의 입장은 매우 비이성적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다 엉망이죠." 우드는 다소 불쾌한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는 캔버스 틀을 향해 망치를 내리쳤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새로운 상속인이 길고도 수수께끼 같은 침묵을 깨뜨렸다.

그는 특이한 방식으로 그 일을 시작했다. 다소 거칠기는 했지만, 그의 평소 스타일이었다. 동시에 올바른 행동을 하려는 분명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는 페인처럼 특정 개인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 아니라, 군중에게 하듯 집단적으로 조언을 요청했다.

말을 꺼내자 그는 마치 정치를 위해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정치인처럼 온 식구에게 몸을 맡겼다. 그는 이를 '담판'이라 불렀다.

다행히도 그 큰 제스처에는 그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페인은 그녀의 감정을 생각하자 전율했다.

하지만 호주인 남자는 매우 솔직했다. 그는 도움을 받고 정보를 얻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가족 회의라도 소집한 것이다.

사실 그는 카드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그는 다소 절박한 태도로 그렇게 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문제의 압박에 시달려 온 사람처럼 말이다.

짧은 시간 동안, 낮은 창문과 가라앉는 보도가 있는 그곳의 그림자들은 그를 놀랍게도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들의 기억 속을 스쳐 지나가던 어떤 유사성은 더욱 뚜렷해졌다.

의사를 포함한 다섯 남자가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페인은 자신의 밝은 색 트위드 옷과 붉은 머리카락이 방 안의 유일한 색채일 것이라고 멍하니 생각했다. 신부와 집사는 검은 옷을 입었고, 우드와 다른웨이는 평소 거의 검은색처럼 보이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었기 때문이다. 젊은이가 자신을 '인간'이라고 부른 것이 이런 불협화음을 뜻한 것은 아닐까.

그때 젊은이가 갑자기 의자를 돌려 이야기를 시작했다. 잠시 후, 멍하니 듣던 화가가 깨달았다. 그가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정말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가 중얼거렸다. "그게 내가 거의 미쳐가며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초상화와 시, 그리고 우연이라 부를 만한 일련의 사건들을 떠올릴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다. 정말로 다른웨이 가문의 저주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끔찍하게 기이한 우연에 불과한 걸까? 내가 결혼할 권리가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알지도 못하

는 거대한 검은 운명을 하늘에서 끌어내려, 자신과 다른 이에게 내려앉게 될까?"

그의 눈동자가 테이블 위를 둥둥 굴러다니다가, 평범한 얼굴의 사제에게 멈춰 섰다. 그는 이제 사제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페이인은 미신의 문제가, 가장 미신적인 심판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 가라앉아 있던 그의 실용주의가 반발하며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다른웨이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제가 답하기 전에, 그는 선제적으로 입을 열었다.

"음, 우연이 참으로 기이하긴 하지요. 시인합니다." 그는 억지로라도 밝은 어조를 섞어 말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그가 말을 멈췄다. 번개에 맞은 듯 굳어 버린 것이다.

다른웨이가 방해를 받자 고개를 날카롭게 돌려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이다. 그 동작과 함께 그의 왼쪽 눈썹이 다른 쪽보다 훨씬 높게 솟아올랐다. 순간, 초상화의 얼굴이 그와 정확히 일치하는 기이한 과장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나머지 사람들도 그 광경을 목격했다. 모두 순식간에 빛에 눈이 부신 듯했다.

늙은 집사는 공허한 신음을 터뜨렸다.

"소용없어요."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맞서고 있는 건 너무 끔찍한 것이에요."

"네," 신부는 낮은 목소리로 동의했다. "우리는 끔찍한 것과 맞서고 있다. 내가 아는 것 중 가장 끔찍한 것과 맞서고 있다. 그 이름은 바로 '무의미'다."

"무슨 소리요?" 다른웨이가 여전히 그를 향해 물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신부가 다시 말했다. "지금까지 특별한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제가 관여할 사정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이 근처에서 보직을 맡고 있을 뿐이었고, 다른웨이 양이 저를 만나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께서 직접,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으니 대답하기는 쉽습니다. 물론 당신께서 정당한 이유로 누구와 결혼하든 그것을 막을 다른웨이 가문의 저주 같은 건 없습니다. 사람은 가장 사소한 가벼운 죄조차 운명적으로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살이나 살인 같은 중범죄에 이르러서는 더더욱 그렇죠."

"다나웨이라는 성을 가졌다고 해서, 원치 않는 악행을 강요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브라운이라는 성을 가졌다고 해서 제가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과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가 입맛을 다시며 덧붙였다.

"브라운 가문의 저주라든가. '브라운 가문의 기이한 운명'이라니, 그쪽이 더 잘 어울리겠군요."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다니." 호주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다.

"다른 생각 좀 해보라고요." 신부는 상쾌한 어조로 대답했다.

"최근 사진술은 어떻게 되고 있나? 카메라는 잘 돌아가나? 아래층이 좀 어둡긴 하지만, 위층의 아치형 천장만 잘 활용하면 최고의 사진 스튜디오로 변신시킬 수 있겠군. 일꾼 몇 명만 동원해 유리 지붕을 얹으면 금방 완성될 거야."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마틴 우드가 반박했다. "당신이 그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아치를 만지는 건 정말 마지막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아치는 당신의 종교가 이 세상에서 해낸 가장 훌륭한 작품 중 하나죠. 그런 예술에 대한 감수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유독 사진 촬영에 그렇게 열심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햇빛을 남다르게 좋아합니다. 특히 이 음침한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죠. 사진술은 햇빛에 의존한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단 한 명의 영혼이 제정신을 유지하도록 구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고딕 아치를 가루로 만들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당신은 제 신앙에 대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젊은 오스트레일리아인은 다시 젊음을 얻은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런, 바로 그런 말씀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쪽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 신부님, 내가 용기를 잃지 않았음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늙은 집사가 여전히 떨리는 눈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젊은이의 그 반항적인 태도에서 무엇인가 기이하고 낯선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오,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할 거요?'

"그 초상화를 사진으로 남기려 합니다." 다른웨이가 답했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날, 재앙의 폭풍이 하늘에서 내려앉는 듯했다. 신부가 애써 호소했던 이성의 햇살은 어두워졌고, 저택은 다시 다른웨이의 저주받은 운명처럼 깊은 어둠에 잠겼다.

새로 지은 스튜디오는 그리 어렵지 않게 꾸며졌다. 안에서 보면 다른 스튜디오와 다를 바 없었다. 오직 하얀 빛만 가득할 뿐, 빈 공간이었다. 아래층의 음침한 방들을 지나 올라온 사람은 누구나, 마치 미래처럼 하얗고도 텅 빈 빛속으로 들어서는 듯한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한 빛이었다.

우드 씨의 제안으로, 성을 잘 알고 있던 그는 처음의 미학적 불만도 거두고 있었다. 윗층의 폐허 중 온전히 남아 있던 작은 방 하나를 쉽게 암실로 바꾸었다. 다른웨이는 하얀 햇살을 등지고 붉은 램프의 빛만 비치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우드 씨는 웃으며 말했다. 붉은 램프가 그에게 '야만적인 파괴'를 용서하게 했다고. 그 피눈물처럼 붉은 어둠은 연금술사의 동굴만큼이나 낭만적이었기 때문이다.

다나웨이 씨는 미스터리한 초상화를 촬영하기로 한 날, 새벽부터 일어나 그 그림을 가져왔다. 그림은 두 층을 잇는 나선형 계단을 통해 서재에서 위로 옮겨졌다.

다나웨이 씨는 그림을 넓고 환한 햇빛 속 일종의 이젤 위에 세우고, 그 앞에 사진용 삼각대를 설치했다. 그는 이 그림의 복제본을 집안의 유물에 대해 글을 쓴 유명한 고고학자에게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것이 더 깊은 것을 감추는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확히 말해 다나웨이 씨와 악마적인 그림 사이의 영적 결투라기보다는, 다나웨이 씨와 자신의 의심 사이의 결투였다. 그는 사진의 밝은 빛이 그림의 어두운 걸작과 마주보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새로운 예술의 햇살이 오래된 그림의 그림자를 몰아낼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었다.

아마도 그는 혼자서 일을 처리하기를 선호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비록 일부 세부 사항들이 보통보다 더 오랜 시간을 요하고, 예외적인 지연을 수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쨌든 그는 실험 당일 자신의 스튜디오를 방문한 몇몇 사람들을 상당히 냉담하게 대했다. 그들은 그를 매우 고립되고 접근 불가능한 태도로 집중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발견했다.

스튜어드는 그가 내려오기를 거부했기에 식사를 준비해 두었다. 몇 시간 후, 노신사는 식사가 대체로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을 발견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가 식사를 가져다주었을 때, 받은 것은 감사의 말 대신 퉁명스러운 중얼거림뿐이었다.

페이느는 한 번 올라가 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사진사가 대화에 소극적인 것을 보고 다시 내려왔다. 브라운 신부는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그쪽으로 산책하듯 지나가, 사진이 발송될 전문가가 보낸 편지를 다나웨이에게 전해주려 했다. 그는 편지를 쟁반 위에 올려두었을 뿐, 빛이 가득하고 취미에 헌신하는 그 거대한 유리 온실,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는 창조해 낸 듯한 그 세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든, 그것을 자신의 속에 간직하고 내려왔다.

곧 그는 자신이 그 고독한 계단을 마지막으로 내려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는 뒤로 고독한 남자 한 명과 빈 방을 남겨둔 채였다. 다른 사람들은 서재로 이어지는 살롱에 서 있었다. 그곳은 거대한 검은 흑단 시계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 시계는 거대한 관처럼 보였다.

"다나웨이는 그때 어떻게 지냈소?" 페인이 잠시 후 물었다. "마지막으로 올라갔을 때 말이야."

신부는 손으로 이마를 쓸었다.

"나도 모르게 직관이 생기는 건가?"

슬픈 미소를 띤 채 그는 말했다.

“저 방에서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이 부셨나 보다. 그래서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모양이야. 정말로, 단 한 순간만큼은 다나웨이의 형상이 그 초상화 앞에 서 있는 게 기이하게 느껴질 정도였거든.”

"아, 그건 절뚝거리는 다리예요." 바넷이 즉석에서 말했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나?” 페인이 갑자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낮게 줄였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전부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

“그의 다리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조상의 다리에는 또 무슨 문제가 있었지?”

“그 이야기는 제가 방금 읽었던 책에 나오더군요. 가족 기록이 모여 있는 서고에 있거든요.” 우드가 말했다. “가져오겠습니다.”

그는 바로 옆에 있는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다.

브라운 신부는 조용히 말했다.

“페인 씨가 그 질문을 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왕이면 한방에 다 털어놓자고.” 페인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합리적인 설명이 있는 거야. 어디에서든 온 남자가 초상화처

럼 보이려고 할 수 있어. 다나웨이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나? 그는 좀 이상하게 굴고 있어."

다른 이들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신부는 그다지 당황하지 않은 듯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 오래된 초상화는 아직 사진으로 찍힌 적이 없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그래서 그분이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건 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별일 아닌 일입니다." 우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방금 책을 손에 든 채 돌아온 참이었다.

그가 말을 마치자, 그 뒤로 웅장한 어둠의 시계가 기계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계추의 흔들림이 일곱 번의 타격을 안겨주며 방 안을 진동시켰다. 일곱 번째 타격과 동시에, 위층에서 굉음이 터져 나왔다. 천둥이 치듯 집 전체가 요동쳤다.

소리가 멎기도 전에, 브라운 신부는 이미 구불구불한 계단을 두 계단이나 올라갔다.

'세상에!' 페인은 저도 모르게 외쳤다. '저기 혼자 올라가 있군.'

"예." 브라운 신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며 사라졌다. "우리는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첫 번째 충격을 떨쳐내고, 돌계단을 허둥지둥 올라가 새로운 작업실로 들어섰다. 그 순간, 그는 정말로 혼자에 있었다.

그는 키가 큰 카메라의 파편들 사이에 쓰러져 있었다. 카메라의 긴 다리는 부러져 기괴하게 세 가지 다른 각도로 튀어나와 있었다. 다나웨이는 그 위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검은 구부러진 다리 하나가 바닥에 네 번째 각도로 늘어져 있었다. 잠시 동안 어둑한 덩어리는 거대하고 끔찍한 거미와 얽힌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단 한 번의 눈길과 손길로 그가 죽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젤 위에는 초상화만이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미소 짓는 눈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 시간 뒤, 브라운 신부는 충격을 받은 가정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다가, 늙은 집사를 마주쳤다. 그는 마치 시계가 기계적으로 초를 세고 때를 알리듯, 중얼거리는 소리를 내며 서성이고 있었다. 신부는 그들의 말을 거의 듣지 못했지만, 그가 중얼거리는 말이 무엇인지 곧 알아차렸다.

일곱 번째 상속인이 돌아올 때 일곱 번째 시가 되면 나는 떠난다

그가 위로의 말을 건네려던 순간, 노인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갑자기 몸을 움츠리며 분노에 찬 표정으로 굳어졌다. 그가 중얼거리던 소리는 거친 비명으로 변했다.

"너!" 그가 외쳤다. "너와 너의 낮빛이여! 이제는 너조차도 다나웨이 가문에 저주가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

"그건 제 의견이 변한 게 아닙니다." 브라운 신부는 부드럽게 말했다. 잠시 후 그는 덧붙였다. "다나웨이의 마지막 소원을 꼭 지켜주세요. 사진이 제대로 발송되도록 확인해 주시겠어요?"

"사진이요!" 의사가 날카롭게 외쳤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사실 좀 기이한 일이지만, 사진은 없다. 온종일 어슬렁거리다 보니 결국 찍지 않은 모양이다."

브라운 신부가 날카롭게 몸을 돌렸다.

"그럼 직접 가져가십시오."

그가 말했다.

"다나웨이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고 음울한 행렬이 갈색과 노란빛이 섞인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흩어졌다. 방문객들, 의사, 신부, 그리고 두 화가가 그 뒤를 따랐다. 처음에는 모두 크게는 아니지만 적지 않게 침묵에 잠겨 있었다. 마치 충격에 얼어붙은 듯했다.

분명히, 잊혀졌던 미신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맑은 하늘에 천둥이 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가장 잊고 있을 때, 가장 합리주의에 도취되어 있을 때였다. 의사와 신부는 합리주의로 마음을 채웠고, 사진작가는 방을 햇빛으로 채웠다.

그러나 합리주의를 얼마나 부르짖든, 환한 대낮에 일곱 번째 상속인이 돌아왔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시간, 환한 대낮에 그는 숨을 거두었다.

“이제 사람들은 다나웨이 미신을 믿게 될 거예요.” 마틴 우드가 말했다.

“저는 믿지 않을 사람을 한 명 압니다.” 의사가 날카롭게 말했다. “남이 자살을 선택한다고 해서, 제가 미신에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다나웨이 씨가 자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신부가 물었다.

"저는 그가 자살했다고 확신합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가능하지요." 다른 한 사람이 동의했다.

그는 저 위에서 혼자였다. 그리고 어둠의 방에는 온갖 독약들이 약국처럼 가득했다. 게다가 그것은 다나웨이 가문이 저지르기 딱 좋은 짓이었다.

“가족 저주가 현실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의사가 말했다. “저는 한 가지 가문의 저주가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 가문의 체질입니다. 제가 전에 유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모두 반쯤 미쳐 있습니다. 만약 저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늪에서 고여 있고, 서로 교배하며, 자기들끼리만 부대낀다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전의 법칙은 피할 수

없고, 과학의 진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나웨이 가문의 정신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썩어가는 낡은 나무들과 돌담들도 무너지고 있죠. 바다와 짠 공기에 의해 갉아먹히며 말입니다. 자살이요. 물론 그는 자살했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자살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일지도 모르죠."

과학자가 말을 맺는 순간, 페인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다나웨이 가문의 딸, 그 얼굴이었다. 깊은 어둠 속에 떠 있는 비극적인 가면처럼 창백했지만, 그 자체로 눈부실 만큼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페인은 입을 열려 했다.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의사에게 말했다. "결국 그 미신도 믿으시는군요?"

"그 미신 같은 걸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오? 나는 그 자살을 과학적 필연성으로 믿는 것이오."

"글쎄요," 사제가 말했다. "당신의 과학적 미신과 다른 마법적 미신 사이에서 저는 아무런 차이도 찾지 못합니다. 둘 다 결국 사람들을 마비 상태로 만들거든요. 자기 발이나 팔을 움직일 수도, 자신의 목숨이나 영혼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요."

"운명의 시는 다나웨이 가문이 죽임을 당할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과학 교과서는 다나웨이 가문이 자살할 운명이라고 말하죠. 어느 쪽이든 그들은 결국 노예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부님, 당신은 이런 일들에 대해 이성적인 관점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넷 박사가 말했다. “유전도 믿지 않으세요?”

“저는 낮의 빛을 믿습니다.” 사제는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어둠으로 끝나는 두 개의 지하실 같은 미신 사이에서 하나를 고르지는 않겠습니다. 그 증거는 이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집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살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페인이 물었다.

“살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목소리는 단지 조금만 높여 들렸을 뿐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온 해안가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건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하나님이 자유롭게 주신 것이니까요.”

페인은 그 순간 다른 사람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결코 알지 못했다. 그 단어는 그에게 묘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나팔소리가 그를 일깨우듯 자극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멈춰 세웠다. 그는 모래밭 한가운데서 그자리를 굳게 지켜서, 다른 사람들이 앞질러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온몸의 혈관을 피가 기어오르는 것을 느꼈고, 흔히 ‘소름이 끼친다’고 표현하는 그 감각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새롭고 부자연스러운 행복감도 느꼈다.

그 자신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복잡한 심리적 과정이 이미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그는 그 결론을 분석할 수 없었지만, 그 결론은

안도감의 것이었다. 잠시 동안 그자리에 서 있던 그는 돌아서서 느린 걸음으로 모래밭을 가로질러 다시 다나웨이 가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성큼성큼 해자를 건넜고, 그 걸음에 다리가 흔들렸으며, 계단을 내려가며 긴 방들을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애들레이드 다나웨이가 앉아 있는 곳으로 왔다. 그녀는 타원형 창문의 낮은 빛에 둘러싸여 있었고, 거의 죽은 땅에 남겨진 잊혀진 성인처럼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왜 다시 돌아오신 거죠?"

"저는 잠자는 미녀를 보러 왔습니다." 그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어조로 말했다. "의사가 말했듯 이 오래된 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늙은 체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빛이 드는 곳으로 올라와 진실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당신의 감금을 풀 마법처럼 작용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단 한 마디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일어나게 했다. 그는 그녀를 이끌고 긴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갔다. 그리고 저녁 하늘 아래로 나갔다.

죽은 정원의 폐허가 바다를 향해 늘어져 있었다. 녹슨 청동으로 된 트라이튼(바다의 신) 형상이 있는 오래된 분수가 그곳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마른 뿔에서 텅 빈 수반 속으로 아무것도 쏟아내지 못한 채였다.

그는 지나갈 때마다 이 황량한 실루엣을 저녁 하늘 배경으로 자주 보아 왔다. 그것은 한 가지 이상의 이유로 몰락한 운명의 상징처럼 그에게 느껴졌다.

조만간 그 빈 분수대들은 분명 채워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바다의 차갑고 쓴 바닷물로 채워질 것이다. 꽃들은 해초에 의해 익사하고 질식당하게 될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나웨이가의 딸이 결혼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녀는 죽음과 결혼할 것이다. 그리고 그 운명은 바다처럼 귀먹고 무자비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는 거인의 손과도 같은 청동 트라이튼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던지려는 듯 흔들었다. 마치 정원의 우상이거나 악마를 부수려는 것처럼.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단호하게 물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 줄 그 단어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 단어는 살인이오. 그리고 그 살인이 가져다주는 자유는 봄꽃처럼 싱그럽소. 아니,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뜻은 아니오. 다만, 누군가가 살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겪어온 악몽 같은 삶 뒤에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라는 거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당신의 그 꿈속에서는 당신에게 닥친 모든 일이 당신 내부에서 비롯됐죠. 다나웨이 가문의 운명은 다나웨이 가문 안에 갇혀 있었고, 끔찍한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행운의 우연이라도 피할 수 없었죠. 비네와

그의 옛날이야기든, 바넷과 그의 새로운 유전학 이론이든, 모든 것이 필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그 남자는 마법의 저주나 선천적 광기의 희생자가 아니었소. 그는 살해당한 것이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살인은 단순한 사고에 불과하오. 네, 그가 평안하기를.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사고요. 외부에서 찾아온 햇살과도 같은 것이오."

그녀가 갑자기 미소 지었다.

"네, 알 것 같아요. 당신은 미친 사람처럼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죽였나요?"

"저는 모릅니다."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브라운 신부는 알고 계십니다. 신부님의 말씀대로, 살인은 적어도 의지에 의해 저질러지는 법이니까요. 그 의지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처럼 자유롭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입을 열었다. "그분은 제 삶에 빛을 비춰 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전까지, 그러니까 – "

"언제까지요?" 페인이 물었다. 그는 거의 충동적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녀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청동 괴물을 밀어냈다. 괴물은 받침대 위에서 흔들리는 듯했다.

"그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죠." 그녀가 다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잠들어 있던 궁전이 깨어났다. 그 깨어남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묘사하는 것은 이 이야기의 본분이 아니다. 비록 그 어둠이 해안선에 내려앉기 전에도 많은 일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지만 말이다.

해리 페인은 다시 집으로 향했다. 그는 수많은 감정으로 오갔던 그 어두운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그는 이 유한한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행복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붉은 바다가 있었고, 그 물결은 가장 높은 조수까지 밀려오고 있었다.

그는 그 장소를 다시금 꽃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그려낼 수 있었다. 청동 트라이튼은 황금 신처럼 빛나고, 분수에서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흘러내리는 상상을 쉽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빛남과 개화는 오직 '살인'이라는 한 단어 때문에 펼쳐졌다. 그리고 그 단어는 여전히 그에게 낯설고 이해되지 않았다. 그는 그 단어를 무조건 믿어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었다. 그는 진리의 울림을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페인은 그 사건 이후 한 달이 훨씬 지난 후에야 런던의 자택으로 돌아와 브라운 신부와 약속을 지키러 나왔다. 그는 필요한 사진을 함께 지참하고 있었다.

그의 개인적인 로맨스는 비극의 그림자 아래서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그 그림자는 그에게 비교적 가볍게 내

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그 그림자를 가족의 악운 외의 다른 것으로 보기가 어려웠다.

그는 여러 가지로 바빴다. 다나웨이 가문이 다소 엄격한 일상으로 돌아오고, 도서관에 걸렸던 초상화가 제자리에 다시 걸린 뒤에야 그는 마그네슘 불꽃을 이용해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원래 계획대로 그 골동품상에게 사진을 보내기 전에, 그는 그 사진을 급하게 요구했던 사제에게 직접 가져갔다.

"브라운 신부님, 당신 태도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은 마치 이미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행동하십니다."

신부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전혀 아니에요." 그가 대답했다. "제가 정말 멍청한 모양입니다.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아요. 가장 실용적인 문제, 즉 핵심에서 막혀 버렸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너무나 단순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 그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는 잠시 동안 그것을 찡그린 근시의 눈 가까이 가져다 댔다. 그러고는 물었다.

"돋보기 좀 가져왔나요?"

페인은 돋보기를 꺼내 주었다. 신부는 그것을 오래도록 진지하게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책장 가장자리에 있는 책 제목을 보시오. 액자 옆에 꽂혀 있죠. '교황 요한나의 역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정말로요. 그 위에 있는 책은 아이슬란드에 관한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진실을 알아냈는지! 내가 그곳에 있었을 때 왜 그걸 눈치채지 못했는지, 정말 바보 같고 멍청한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뭐라도 알아냈소?" 페인이 재촉하듯 물었다.

"마지막 고리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막히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 그 불행한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요?" 다른 한 사람이 고집스럽게 물었다.

"왜냐고요?" 사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른웨이의 서고에는 포프 조안과 아이슬란드에 관한 책들이 꽂혀 있었죠. 거기다 '프레데릭의 종교'로 시작되는 책도 하나 더 있더군요. 제목을 완성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상대의 불쾌한 표정을 보고 사제의 미소는 사라졌다. 그는 더 진지한 어조로 이어서 말했다.

"사실 이 마지막 단서는 연결 고리 중 가장 끝부분일 뿐, 핵심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그보다 훨씬 기이한 점들이 있었죠. 그중 하나는 증거의 특이성입니다. 먼저 당신을 놀라게 할 만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웨이는 그날 저녁 일곱 시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루 전부터 죽어 있었습니다."

"놀람은 오히려 너무 순한 표현이오." 페인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과 내가 그 이후에 그가 거닐고 있는 것을 함께 목격했으니까."

"아니요,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고요하게 대답했다. "우리 둘 다 그를 보았거나, 보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카메라 초점을 맞추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요. 당신이 방을 지나갈 때, 그의 머리가 그 검은 망토 아래에 있었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바로 그 덕분에 방과 그 인물이 어딘가 기묘하게 느껴졌죠. 다리가 굽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다리가 곧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이 서 있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서 있는 한 남자를 본다면, 당신은 그가 이상하고 긴장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알 수 없는 남자가 그랬다는 거야?" 페인은 몸이 떨릴 듯이 외쳤다.

"범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는 새벽에 다너웨이를 죽인 뒤, 시체와 자신까지 어두운 방에 숨었습니다. 그곳은 평소에는 아무도 들르지 않고, 들어간다 해도 잘 보이지 않는 훌륭한 은신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곱 시가 되자 그 시신을 바닥에 쓰러지게 했죠. 그래야 모든 일이 저주의 탓이라고 설명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페인이 말했다. "그가 왜 일곱 시에 바로 그를 죽이지 않고, 사체를 들고 열네 시간이나 시달렸을까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부가 말했다. "왜 사진 한 장도 찍지 않았을까요? 범인은 그가 일어나자마자 즉각 죽여, 사진이라도 찍히기 전에 일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이 다너웨이 가문의 골동품 전문가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범인에게 절박한 일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신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어떻게 이리 간단한지 보시지 않습니까? 당신도 가능성의 한쪽 면을 보셨죠.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낡은 그림과 닮도록 위장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림이 누군가와 닮도록 위장했을 가능성이 더 단순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말로 풀자면, 다나웨이 가문의 심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그림도, 낡은 시구도, 아내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전설 속의 남자도 없었습니다. 다만, 약혼녀를 빼앗기 위해 다른 남자의 죽음을 자행할 각오를 한, 지독히 악하고 영리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신부는 갑자기 페인에게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다. 위로의 뜻인 듯했다.

"지금쯤은 제가 당신을 지목하는 줄 알았겠군요."

그러나 당신만이 그 집에 애정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를 아시죠. 아니면 아신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화가이자 고미술품 수집가인 마틴 우드라는 남자 안에는, 단순한 예술가 친구들이라면 결코 짐작하지 못했을 깊은 내면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집 그림들을 평가하고 목록을 정리하러 불려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귀족들의 '먼지 쌓인 쓰레기통' 같은 곳에서 그 임무는 사실상 다나웨이 가문이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는지 일러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놀라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은 잘 수행됐습니다. 아주 잘요.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만약 그것이 홀바인의 작품이 아니라면 같은 재능을 가진 다른 화가의 작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페인이 말했다. "아직 이해가 가지 않는 일투성이입니다. 그는 다나웨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실제로 어떻게 그를 죽였을까요. 의사들도 현재는 꽤 당황해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부인이 가지고 있던, 오스트레일리아인이 자기보다 먼저 보내온 사진을 보았소. 새로운 상속인이 인정된 후면, 그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었죠. 세부 사항은 알 수 없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억나시죠? 그가 어둠방에서 도움을 주곤 했다는 걸요. 독이 든 핀으로 사람을 찌르기엔 이상적인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독도 손닿는 곳에 다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아니, 그건 난관이 아니었소.

나를 막막하게 만들었던 진짜 난관은, 우드가 어떻게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있었는지였죠. 그는 어떻게 시신을 어둠방에서 가져와 카메라 앞에 기대놓아, 몇 초 후에 쓰러지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동시에

그는 책장에서 책을 찾고 있었다는 도서관에 있었으니까요. 내가 내려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나는 바보 같게도 도서관의 책들을 살펴보지 않았소. 그저 운 좋게도 이 사진 덕분에, '교황 요한'에 관한 책이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죠."

"가장 난해한 수수께끼를 마지막에 남겨두셨군요." 페인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교황 요한이 도대체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이슬란드에 관한 '무언가'에 대한 책이나,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의 종교에 관한 책도 잊지 마십시오." 신부가 조언했다. "이제 남은 질문은, 고 다른웨이 경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것뿐입니다."

"그렇군요." 페인은 무겁게 말했다.

"그는 교양 있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일종의 기인 같은 분이었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이어 말했다. "교양이 있었기에 그는 교황 요한이라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유머 감각이 있었기에, 그는 '아이슬란드의 뱀'이나 존재하지 않는 다른 제목들을 생각해 내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추측을 덧붙였다. "세 번째 제목은 '프리드리히 대제의 종교'였을 거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그것 역시 존재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존재하지 않는 책들의 책등에 붙일 만한 제목들이 바로 그것들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 책장이 아닌 책장을 꾸밀 제목들이라고요?"

"아!" 페인이 외쳤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숨겨진 계단이 있었군요."

"우드가 직접 어둠의 방으로 고른 곳입니다." 사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참으로 평범하고 멍청합니다. 제가 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건에서 보여준 어리석음과 맞먹을 정도죠. 하지만 우리는 썩어가는 귀족 가문의 추악한 로맨스와 무너져가는 저택, 그런 구시대적인 정서에 휘말렸고요. 비밀 통로가 없기를 바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이었죠. 그것은 신부의 구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 갇힐 자격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기디언 와이즈의 유령

브라운 신부는 이 사건을 '알리바이의 기이한 사례'로 여겼다. 알리바이란, 신화 속 아일랜드의 새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어느 누구도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다는 이론이다.

제임스 바인은 아일랜드 출신 기자였다. 그는 아일랜드의 전설적인 새에 가장 가까운 존재였다. 그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동시에 두 곳에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단 이십 분의 시간 동안, 그는 사회와 정치의 정반대 극단에 있던 두 장소에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장소는 대형 호텔의 바빌론 홀이었다. 석탄 직장 폐쇄를 준비하면서 이를 '파업'이라 규정해 비난하는 세 명의 상업 거물들이 그곳에서 모였다. 두 번째 장소는 식료품점 외관을 한 기묘한 술집이었다. 직장 폐쇄를 파업으로, 그 파업을 다시 혁명으로 바꾸고 싶어 했던 지하의 세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만났다.

바인 기자는 현대의 전령이나 새로 부임한 대사처럼 특권을 누렸다. 그는 세 백만장자와 세 볼셰비키 지도자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갔다.

그는 세 명의 광산 거물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꽃이 만발한 정글과 금박을 입은 석고 기둥들이 빽빽이 들어선 숲 속에 숨겨져 있었다. 페인트로 칠해진 돔형 천장 아래, 야자나무 가지 끝 높은 곳에는 금박을 입은 새장들이 매달려 있었고, 그 안에는 제각기 다른 색깔과 울음소리를 지닌 새들이 깃들어 있었다.

야생의 새들 중 어느 것보다도 그들의 노래는 더없이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사막의 바람에 향기를 헛되이 흘려보내는 꽃들 중 어느 것보다도 더 무의미하게, 이 키 큰 식물들의 꽃들은 향기를 낭비했다. 그곳은 주로 미국인들로 이루어진 분주하고 숨 가쁜 사업가들이 오가며 수다를 떨고 뛰어다니던 곳이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로코코 양식의 과장된 장식들, 아무도 듣지 않는 값비싼 외국 새들의 지저귐들, 화려한 가구들, 그리고 복잡다단한 호화로운 건축물들 사이에서, 세 남자는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성공이 어떻게 생각과 절약, 그리고 경제와 자제력에 대한 경계심 위에 세워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다른 이들보다 말을 덜 했다. 하지만 그는 매우 날카롭고 움직이지 않는 눈으로 주변을 주시했다. 코에 끼운 핀크네즈가 그의 눈을 오므리게 만든 듯했다. 작은 검은 수염 아래에는 영락없는 비웃음처럼 보이는 미소가 고정되어 있었다. 바로 유명한 제이콥 P. 스타인이었다. 그는 할 말이 있을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동료인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올드 갤러프는 사뭇 달랐다. 경건해 보이는 회색 머리를 가졌지만 얼굴은 권투 선수처럼 거칠고 거대한 체격을 지닌 그였다. 그는 수다를 떨었다.

갤러프는 기분 좋게 들떠 있었다. 그는 세 번째 백만장자 기디언 와이스를 반쯤 장난스럽게, 반쯤 압박하듯 놀리고 있었다. 와이스는 딱딱하고 마른, 모난 구석이 많은 노인이었다. 그의 동족들은 그를 호두나무(hickory)에 비유할 만큼 단단하고 굽어지지 않은 성품을 지녔다. 그는 거친 회색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의복과 태도는 중앙 평원의 어느 노농부와 다를 바 없었다.

와이스와 갤러프 사이에는 조합과 경쟁에 대한 오래된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와이스는 여전히 옛 변경 개척민의 풍모를 간직하고 있었으며, 그의 생각에는 옛 개인주의자다운 견해가 남아 있었다. 우리가 영국식으로 말한다면, 그는 맨체스터 학파에 속했다. 반면 갤러프는 항상 와이스에게 경쟁을 버리고 세계의 자원을 하나로 모으라고 설득하려 들었다.

"언젠가는 들어와야지, 친구." 갈러프가 웃으며 말했다. 바인이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이제 다시 혼자 장사하는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 우리 모두 함께 서 있어야 해."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타인은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상업적으로 함께 서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치적으로 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인 씨를 여기 모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위험한 적들이 이미 결탁해 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정치적 문제에서는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음, 정치적 결탁에 대해서는 나도 전적으로 동의하네." 기디언 와이즈가 투덜거렸다.

"자, Byrne 씨." 스타인이 기자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런 이상한 곳들을 두루 누비며 알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비공식적으로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남자들이 모이는 곳을 당신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은 고작 두세 명뿐입니다. 연설을 주로 하는 존 엘리야와 제이크 홀케트, 그리고 아마 그 시인 홈 씨 정도죠."

"아니, 홈은 예전에 기드온의 친구였잖소." 조롱 섞인 어조로 갤럽이 말했다. "예전에 기드온의 일요일 학교 반에 함께 다녔거나, 그런 식의 관계였다고요."

"그는 확실히 기독교인이었소." 노년의 기데온이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무신론자들과 어울리는 남자는 알 수가 없지. 지금도 가끔 그

를 만나곤 해. 물론 전쟁이나 징집 같은 일에 반대하는 그의 태도에는 나도 동의했어.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볼셰비키들을 옹호하는 데까지 가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잠시만요." 스타인이 말을 끊었다. "사안이 매우 시급해서, 바이른 씨에게 바로 전달해도 될까 해서요."

그는 바이른 씨를 향해 낮게 목소리를 줄였다.

"비밀리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들 중 적어도 두 명을 장기 징역형으로 몰아넣을 만한 단서를 쥐고 있습니다. 전후의 음모 사건과 관련된 증거죠."

"그 증거를 사용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조용히 가셔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내일 그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일러주셨으면 합니다."

"글쎄요," 바른이 대답했다. "당신이 제안한 그건 분명히 죄를 덮어주는 행위로 간주될 거요. 때로는 협박죄로까지 몰릴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소?"

"그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한 일입니다." 스타인이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은 가서 그들에게 그렇게 전하세요."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버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쯤 장난기 섞인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일상의 일부일 뿐이지만, 만약 제가 곤경에

처하게 되면 당신도 같이 끌어들이려고 할 거라는 건 미리 말씀드려 둡니다."

"너도 해볼 거야, 소년아." 올드 갤럽이 통쾌한 웃음과 함께 말했다.

제퍼슨의 그 위대한 꿈이 아직까지도 곳곳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부유한 자들이 폭군처럼 군림하는 나라라 해도, 가난한 자들은 노예처럼 말하지 않는다. 착취자와 피착취자 사이에는 정직함이 존재한다.

혁명주의자들의 회합 장소는 기이하고 허전하며 회칠된 벽이 흰 방이었다. 벽에는 흑백으로 그어진 비뚤어진 낙서 한두 점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프로레타리아트 예술이라 불리는 스타일의 것이었다. 하지만 백만 명 중 단 한 명의 노동자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두 회의실의 공통점이라면, 아마도 둘 다 미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었을 것이다. 강한 술을 공개적으로 마셨기 때문이다. 세 명의 부호들 앞에는 다양한 색깔의 칵테일이 놓여 있었다. 볼셰비키 중 가장 과격했던 할케트는 보드카만 마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키가 크고 덩치가 큰 남자로,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마치 개처럼 공격적이었고, 코와 입술이 함께 튀어나와 있었다. 입술 위에는 헐거운 빨간 수염이 자라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끊임없는 경멸을 드러내고 있었다.

존 엘리야스는 안경을 쓴 어두운 표정의 남자로, 검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는 유럽의 여러 카페에서 아르생에 대한 취미를 배웠다.

기자로서 그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느낌은 존 엘리야스와 제이콥 P. 스타인이 얼마나 닮았는지였다. 그들은 얼굴과 마음, 그리고 태도에서 너무도 닮아 있어서, 부호가 바빌론 호텔의 구멍으로 사라져 볼셰비키의 요새에서 다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세 번째 남자의 음주 취향도 묘했다. 그의 술자리가 그를 대변하는 듯했다. 시인 홈 앞에는 우유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 우유의 순한 기운은 그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졌다. 불투명하면서도 무색한 그 빛깔은, 압생트의 썩은 듯한 녹색보다 더 유독한 나병성 연고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순함은 사실 꽤나 진지한 것이었다. 헨리 홈은 재커와 일리아스와는 다른 길, 다른 배경에서 혁명의 진영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재커는 평범한 선동가였고, 일리아스는 국제적인 음모꾼이었다. 홈은 이른바 '신중한 upbringing(양육)'을 받았다. 어린 시절부터 예배당에 다녔고, 기독교와 결혼 같은 사소한 것들을 던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금주주의를 고수했다.

그는 금발에 얼굴이 단정했다. 턱에 살짝 낀 이국적인 수염만 없었더라면, 그는 셸리와 닮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수염은 턱을 약해 보이게 만들었다. 어째서인지 그 수염은 그를 더 여성스럽게 보이게 했다. 마치 그 몇 가닥의 금발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인 양, 그의 이미지를 약화시켜 버렸다.

기자가 들어왔을 때, 악명 높은 제이크는 평소처럼 떠들어대고 있었다. 홈은 '하느님께서 막아주시길' 같은 평범하고 관습적인 인사를 건

넸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정도면 제이크를 격분시키기엔 충분했다. 그는 곧 욕설의 폭풍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천국이 막아 주시기를! 그게 다 그 천한 천국이 하는 일이라니." 그가 말했다. "천국은 이거나 저거나 오직 막기만 할 뿐,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파업하는 것을 막고, 싸우는 것을 막고, 앉은 자리에서 그 저주받은 고리대금업자와 피 빨아먹는 놈들을 쏘아 죽이는 것도 막는다. 천국은 잠시라도 그들을 위해 다른 일을 막아 주지 않는가? 저주받은 신부들과 목사들이 일어나서 그 야수들에 대한 진실을 말해 주지 않는가? 그들의 귀염둥이 하나님은—"

엘리아스는 가느다란 피로가 스며든 듯한, 부드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신부님들은," 그가 말했다. "마르크스가 지적했듯, 경제 발전의 봉건적 단계에 속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니 이제 그분들은 문제의 일부가 아닙니다. 예전에 신부들이 맡았던 역할은 이제 자본가 전문가들이 대신하고 있고요."

"맞아요." 기자가 끊어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갑고도 냉소적인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이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셨군요. 그들 중 일부는 그 짓을 아주 능숙하게 잘하거든요."

그는 자신의 시선을 빛나지만 이미 죽은 자의 눈동자, 즉 엘리야스의 눈에서 떼지 않은 채로, 스타인의 위협에 대해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미소 띤 엘리야스는 움직이지 않은 채 말했다. “사실, 아주 잘 준비되어 있었죠.”

“더러운 개새끼들!” 잭이 폭발하듯 외쳤다. “가난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형무소에 갈 판이었다. 하지만 놈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쁜 곳으로 갈 게 분명해. 만약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나도 모르겠군.”

홈이 반발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남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보다, 앞으로 말할 내용에 더 크게 반발한 듯했다. 일리아스는 냉정하고도 정확한 태도로 그 연설을 중단시켰다.

그는 안경 너머로 버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상대방과 서로 위협을 주고받는 일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위협이 우리에게는 이미 무력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우리 역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중 몇 가지는 움직일 때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낼 테지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즉각적인 결별과 힘겨루기의 극단적 시험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가 매우 차분하고 위엄 있는 어조로 말하자, 그의 움직이지 않는 노란 얼굴과 거대한 고글에서 풍기는 무언가가 기자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미묘한 공포를 자아냈다.

할케트의 거친 얼굴은 옆에서 볼 때면 그 윤곽선 자체가 으르렁거리는 듯했다. 그러나 정면에서 마주 보면, 그의 눈빛에 타오르는 격분에는 불안한 기색도 섞여 있었다. 마치 도덕적·경제적 난제가 그에게 조

금씩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듯했다. 홈은 더더욱 걱정과 자기 성찰이라는 실에 매달린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남자, 즉 그렇게도 합리적이고 단순하게 말한 고글 낀 남자에 대해서는 묘한 기묘함이 감돌았다. 그는 마치 식탁 위에서 죽은 자가 말하는 것 같았다.

바이른은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러 밖으로 나갔다. 그는 식료품점 옆에 있는 매우 좁은 복도를 지나갔다. 그런데 복도 끝에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인물이 막 서 있었다. 키는 작고 몸집은 단단했으며, 둥근 머리와 넓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 실루엣으로 보일 때 꽤 고풍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브라운 신부!” 놀란 기자가 외쳤다. “문을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신부님은 이 작은 음모에 끼지 않으실 테니까요.”

“제 음모는 좀 더 오래된 것이지만, 꽤 광범위하게 퍼져 있답니다.” 브라운 신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버른이 대답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당신의 그 일과 천 마일 이내의 거리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제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그 일에 한 치 차이까지 다가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어두운 입구 속으로 사라졌다. 기자는 몹시 의아한 마음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갔다.

그가 보고서를 하러 호텔로 들어설 때, 작은 사건 하나가 그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곳은 꽃과 새장들로 둘러싸인 정자였다. 그 안에서 그 까다로운 노신사들이 파묻히듯 앉아 있었다. 정자 앞에는 대리석 계단이 놓여 있었고, 양옆에는 금으로 도금된 님프와 트라이튼 상들이 서 있었다.

그 계단을 한 젊은이가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검은 머리에 납작한 코를 가졌고, 단추 구멍에는 꽃을 꽂고 있었다. 그는 매우 활동적인 모습이었다.

기자가 계단을 오르기 전에, 그 젊은이는 그를 붙잡아 옆으로 끌어당겼다.

"말인데," 젊은이가 속삭였다. "나 포터야. 기드 영감의 비서지.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말인데, 뭔가 천둥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버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사이클롭스의 모루 위에 뭔가 작업거리가 놓여 있었단 말이지.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 있어. 사이클롭스는 거대한 신이지만, 눈은 하나뿐이거든. 저는 볼셰비즘을 —"

비서가 말을 듣는 동안, 그의 얼굴은 몽골인처럼 굳어 있었다. 다리와 차림새는 활기찼지만, 얼굴만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바른이 '볼셰비즘'이라는 말을 하자, 젊은이의 날카로운 눈빛이 바뀌었다. 그는 재빨리 말했다.

"그게 뭐죠? 아, 맞다. 그런 식의 천둥번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냉장고를 뜻하면서 모루라고 말하기는 정말 쉬운 일이니까요."

그 놀라운 젊은이는 계단 아래로 사라져 버렸다. 바른은 계속 계단을 올랐다. 그의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때 네 명이 된 무리. 낯선 사내 한 명이 가세한 탓이었다. 도끼를 연상케 할 만큼 각진 얼굴에, 가느다란 짚색 머리카락과 단안경을 낀 사내였다. 그는 노년 갈럽의 고문인 듯했다. 변호사일 가능성도 컸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불리지는 않았다.

그의 이름은 네어스였다.

그가 바른을 향해 던진 질문은 특이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혁명 조직에 가입한 인원 수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바른은 그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적었다. 그래서 그는 더 적게 말했을 뿐이다.

마침내 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지막 말을 건넨 이는, 그동안 가장 침묵을 지켰던 사내였다.

"감사합니다, 바른 씨." 스타인이 안경을 접으며 말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 그리고 에일리어스 씨와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 이 두 가지만 덧붙일 뿐입니다. 내일 정오가 되

기 전까지 경찰은 에일리어스 씨를 체포할 것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제시할 증거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이 되기 전에 적어도 세 명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런 결과를 피하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이콥 P. 스타인 씨는 다음 날 공식 고발을 하지 않았다. 그런 성실한 인물들의 활동을 종종 방해해 왔던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바른 씨가 아침 신문을 펼쳤을 때, 거대한 활자로 적힌 제목이 그를 맞이했다. '엄청난 삼중 살인: 한밤중에 세 명의 부호가 피살됨'. 그 아래로는 보통 활자보다 네 배쯤 큰 작은 글씨들로 외침 같은 문구들이 이어졌다. 신문은 이 사건의 특별한 특징을 강조하며 독자를 재촉했다. 세 남자가 동시에, 그것도 멀리 떨어진 세 곳에서 살해당했다는 사실이었다.

스테인은 내륙 100마일 지점에 있는 예술적이고 호화로운 전원 저택에서, 와이즈는 해풍과 소박한 삶을 즐기며 살던 해안의 작은 별장 밖에서, 그리고 갤럽 영감은 카운티 반대편에 있는 그의 거대한 저택 문지기 초소 바로 바깥의 덤불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세 사건 모두 사망 직전의 격렬한 폭력 흔적이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비록 갤럽의 시체는 이틀째 되어서야 발견되었지만, 그는 깨진 나뭇가지와 나뭇가지들 사이에 거대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었다. 그의 무게에 눌려 부서진 작은 숲속에서, 그는 창을 향해 돌진하는 들소처럼 보였다.

와이즈는 분명 절벽 위에서 바다로 던져졌다. 저항이 있었음은 틀림없었다. 절벽 끝자락에 남아 있던 발자국에서 미끄러지고 긁힌 흔적이 여전히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극의 첫 번째 신호는 파도 너머 멀리 떠내려가는 그의 큼직한 흐물거리는 짚모자를 목격한 것이었다.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모자가 매우 눈에 띄었다.

스테인의 시체도 처음에는 수색망을 피해 있었다. 그러나 희미한 핏자국이 이어진 길을 따라 조사관들은 그가 정원에 건설 중이던 고대 로마식 목욕탕으로 안내되었다. 그는 실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고, 고대 유물에 대한 취미도 있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바른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로서는 누구를 기소할 법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살인 동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도덕적으로나 살인자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역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창백하고 젊은 평화주의자 헨리 홈이 잔혹한 폭력으로 남을 죽일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설령 경멸적인 태도를 보이는 제이크나, 비웃는 듯한 유대인이라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경찰과 그들을 돕는 듯한 남자, 즉 '네어스 씨'라고 소개된 다소 신비로운 단안경 남자는, 이 상황을 기자만큼이나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볼셰비키 공모자들이 당장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설령 기소한다 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아 큰 소동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실패가 될 것이었다.

네어스는 그들을 어딘지 모르게 자문단에 끌어들이는 듯한 교묘한 솔직함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그들을 비공개 회의에 초대해, 인류를 위한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가장 가까운 비극의 현장, 즉 바다 옆의 별장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바인에게는 외교관들의 평화로운 회담이자 동시에 은밀한 심문, 즉 용의자들에 대한 간접적 취조인 기이한 장면이 목격될 기회가 주어졌다.

바인에게 다소 놀라운 일이었지만, 해안가의 별장 테이블을 둘러싼 어색한 구성원 중에는 브라운 신부의 통통한 몸매와 부엉이 같은 얼굴이 포함되어 있었다. 비록 그가 이 사건과 연결된 사실이 드러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말이다.

죽은 남자의 비서인 젊은 포터의 존재는 더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어딘가 그의 태도는 완전히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는 이 만남의 장소에 가장 익숙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음울한 의미에서 그들의 주최자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그는 별다른 도움이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의 동그랗고 코가 납작한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불평이나 시무룩한 표정이 더 잘 어울렸다.

제이크 홀케트는 늘 그랬듯 가장 많이 수다를 떨었다. 그런 타입의 남자에게는 자신이 친구들과 함께 비난받는 당사자라는 사실을 외면하며 정중한 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젊은 홈은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그를 제지하려 했다. 제이크가 살해당한 자들을 욕하기 시작할 때마다 홈은 그를 말리려 했지만, 제이크는 적보다도 친구들을 더 쉽게 비웃는 성미였다.

그는 맹렬한 저주와 욕설을 쏟아내며, 고(故) 기디언 와이즈에 대한 비공식적인 추도사를 읊조렸다.

반면 엘리야스는 안경 너머로 눈을 가린 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당신의 말이 얼마나 무례한지 말해봐야 소용없겠군요." 네어스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모한지 알려드리면, 당신에게 더 크게 와닿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사실상 죽은 사람을 증오했다고 시인하고 있군요."

"그걸로 나를 감옥에 보내려던 건가?" 야유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좋아요. 그럼 당신들은 백만 명을 수용할 감옥을 지어야 합니다. 기드 와이즈를 미워할 이유를 가진 가난한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넣으려면요. 그리고 그것이 신의 진리라는 건 당신도 나도 잘 알고 있죠."

네어스는 침묵했다. 에리야스가 명료하면서도 약간 말더듬이 섞인 느릿한 억양으로 입을 열기 전까지, 아무도 말을 건네지 않았다.

"이 논의는 양측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다.

"여기 우리를 불러들인 것은, 우리에게 정보를 요구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심문하기 위함인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미 정보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우리를 불신한다면, 우리를 어떤 죄목으로 의심하는지 밝히거나, 적어도 예의에 따라 그 사실을 혼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비극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심지어 율리우스 카이사르 살해 사건과 연결된다는 미미한 단서 하나도 제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체포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말을 믿지도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남아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 차분히 코트 단추를 채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친구들도 그의 행동을 따라 일어섰다.

그들이 문쪽으로 걸어가는 사이, 젊은 홈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창백하고 광신적인 얼굴로 조사자들을 향해 섰다.

"저는 전쟁 내내 지저분한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남을 죽이는 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리를 뜨자,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무겁게 바라보았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퇴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승리를 거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불경한 개자식 할케트에게 구박받는 건 싫습니다. 적어도 홈은 신사입니다. 하지만 뭐라 하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관여하고 있죠. 거의 시인할 뻔했어요. 우리가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조롱하더군요. 잘못했다는 지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브라운 신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나레스를 향해, 거의 당황스러울 만큼 온화하고 명상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맞습니다. 저는 특정 인물이 우리에게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나레스의 안경이 눈에서 툭 떨어졌다. 그는 놀란 듯 고개를 쑥 들었다.

"지금까지는 비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가 말했다. "나중에라도 당신이 정보를 숨긴다면, 당신의 입장이 매우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은 아시겠지요."

"제 입장은 간단합니다." 사제가 말했다. "저는 친구 할케트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그에게 곧 이 조직과의 관계를 끊고 그런 의미의 사회주의자가 아니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결국 가톨릭 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할케트!" 다른 한 명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쳤다.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신부들을 욕하잖아요!"

"그런 종류의 남자를 완전히 이해하신 것 같지는 않군요," 브라운 신부가 온화하게 말했다. "그는 사제들이 정의 때문에 온 세상에 맞서지 못했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사제들이 이미 어떤 존재인지, 즉 그들이 바로 그런 존재임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왜 그가 사제들에게 온 세상에 맞서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은 개종의 심리를 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당신의 임무를 단순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 아마도 수색 범위를 좁혀줄 수 있다는 점만 언급한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좁쌀 같은 얼굴의 악당 엘리야스에게 범인이 좁혀질 거야.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네. 내가 본 적 없는 가장 기이하고, 냉혈하며, 비웃는 악마니까."

브라운 신부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늘 가엾은 스타인을 떠올리게 했어요. 사실, 그가 스타인의 친척 중 한 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잠깐만—" 나레스가 말을 시작했지만, 문이 갑자기 열리며 그의 항의는 끊겨 버렸다. 다시 나타난 것은 길고 헐렁한 몸매와 창백한 얼굴을 한 젊은 홈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평소 지니고 있던 창백함뿐만 아니라, 더 새롭고 부자연스러운, 말하자면 생기를 잃은 듯한 푸르스름한 기색까지 감돌고 있었다.

"이봐요." 나레스가 단안경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왜 다시 돌아온 거요?"

홈은 말없이, 그러나 흔들리는 다리로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 의자에 무겁게 털썩 주저앉았다. 그 후 그는 마치 몽롱한 상태인 듯 중얼거렸다.

"다른 사람들을 놓쳤어. 길을 잃었지. 그래서 돌아오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저녁 간식 자리가 남은 식탁 위, 평생 금주주의자였던 헨리 홈이 자기에게 와인 잔만큼의 리큐어 브랜디를 따라 곧장 한 모금에 들이켰다.

“무슨 일인가. 많이 당황한 모양이군.”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홈은 이마에 손을 얹은 채, 그 그림자 너머에서 말을 건넸다. 그는 마치 신부에게만 속삭이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해 두는 게 나을 것 같소. 나, 유령을 봤소.”

“유령이라니!” 나레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누구의 유령이냐?”

“이 집의 주인 기디언 와이즈의 유령입니다.” 홈의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다. “그가 떨어졌던 심연 위에 서 있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레스가 말했다. “이성적인 사람은 누구도 유령을 믿지 않아.”

“그건 그리 정확하지 않군요.” 브라운 신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실 대부분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많은 유령에 대한 증거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죄인을 쫓는 게 내 일입니다.” 나레스는 다소 거친 어조로 말했다. “유령을 피해 도망치는 건 다른 사람에게 맡기죠. 지금 이 시간에 유령을 무서워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두려워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누구든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

는 법이니까요. 저는 적어도 그 존재를 믿기에, 이 일에 대해 더 듣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보셨습니까, 홈 씨?"

"그곳은 무너지는 절벽 끝자락이었소. 그가 떨어뜨려졌던 바로 그 지점 근처에는 틈이나 균열 같은 것이 하나 있거든.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앞서 나갔고, 나는 절벽을 따라 이어진 길로 가기 위해 황야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소. 나는 자주 그 길을 이용했지. 높은 파도가 절벽에 부딪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거든.

오늘 밤은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갔어. 다만, 이렇게 맑고 달빛이 환한 밤에 왜 파도가 이렇게 거칠게 일렁이는지 의아할 따름이었지. 거대한 파도가 곶을 향해 치솟을 때마다, 희미한 거품의 정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

달빛에 반짝이는 거품이 세 번 번쩍이는 것을 본 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했지. 네 번째로 빛나는 은빛 거품은 마치 하늘에 고정된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떨어지지 않았어. 나는 미친 듯이 간절하게 그 거품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지. 내가 미쳐버린 것 같았고, 시간이 나만을 위해 신비롭게 멈췄거나 늘어났다고 생각했어.

그때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고, 아마도 나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른 것 같소. 그 공중에 멈춰 선 거품이, 떨어지지 않는 눈송이들처럼 서로 맞춰져 하나의 얼굴과 형상을 이루고 있었거든. 전설 속의 빛나는 나병 환자처럼 하얗고, 고정된 번개처럼 끔찍했지."

"그리고 그이가 기디언 와이즈라, 그러시군요?"

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이 깨진 것은, 나레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였다. 너무 급하게 일어난 나머지 그는 의자를 넘어뜨리고 말았다.

"이건 다 헛소리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홈이 갑자기 격분하며 말했다. "그 길을 다시는 걷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제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저는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나는……." 홈이 외쳤다. "하나님, 너희 모두 나를 얼마나 조르는지!" 그의 눈이 이상하게 굴러갔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어났지만, 문 쪽으로 움직이려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홈 씨," 나레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경찰관입니다. 이 집은 당신이 알지 못하시겠지만, 이미 경찰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태도로 조사해 보려 했지만, 나는 모든 것을 조사해야 합니다. 유령처럼 어리석은 것조차도요."

"그러니 말씀하신 그 장소로 저를 모셔가 주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홈은 알 수 없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훨씬 차분해졌다.

"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실 테니까요. 제가 그를 죽였어요."

순간, 천둥번개에 맞은 집처럼 정적이 흘렀고, 시체들로 가득 찬 듯했다. 그러자 브라운 신부의 목소리가 그 거대한 고요 속에서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묘하게도 작았다. 마치 쥐가 내는 작은 소리처럼.

"그분을 고의로 죽이셨나요?" 그가 물었다.

"어떻게 그런 물음에 답할 수 있겠습니까?" 의자에 앉은 남자가 손가락을 씹으며 우울하게 말했다. "저는 아마 미쳤었겠죠. 그 남자는 참을 수 없이 거만하고 무례했습니다. 저는 그의 땅에 있었고, 그가 저를 쳤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몸싸움을 했고, 그는 절벽 너머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장면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물러났을 때,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인간 사회에서 단절시키는 범죄였습니다. 가인의 형벌이 이마와 뇌리를 타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로 한 남자를 죽였음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음모나 공범자에 대한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레스가 말했다.

"다른 살인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그 다툼이 완전히 계획 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당신을 그곳으로 보냈을 테니까요."

홈은 당당하게 말했다.

"내가 함께 일했던 누구에게도 악담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살인자일지언정, 배신자는 아닙니다."

나레스가 남자와 문 사이에 서서 밖으로 나가 있는 사람에게 공식적인 어조로 소리쳤다.

“어쨌든 우리는 모두 그 장소로 갈 겁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비서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감시하에 가야 합니다.”

사내들은 일반적으로, 살인자가 자백한 뒤에 해안 절벽에서 귀신 사냥을 나서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반전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나레스는 모두 가운데서 가장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인물임에도, 돌 하나 놓치지 않겠노라 생각했다. 말하자면, 무덤비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었

다. 어쨌든 그 무너져 내리는 절벽은 가엾은 기디언 와이즈의 수중 무덤 위에 세워진 유일한 무덤비였기 때문이다.

나레스는 마지막까지 집에 남아 문을 잠그고, 나머지 일행과 함께 황무지를 가로질러 절벽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젊은 포터, 즉 비서가 그들을 향해 빠르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초승달 빛 아래 그의 얼굴은 달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세상에, 신부님." 그가 밤중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거기에 정말 무언가가 있어요. 그건…… 그분과 똑같아요."

"제정신이 아니군요." 형사가 헐떡이며 말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보자마자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서는 특이할 정도로 쓴웃음을 지으며 외쳤다. "그를 아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형사가 날카롭게 말했다. "할케트가 말한 것처럼, 그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 중 한 명인가?"

"아마도요." 비서가 말했다. "어쨌든, 저는 그를 잘 압니다. 장담하건대, 저 지옥 같은 달빛 아래 그가 거기 서 있는 게 보입니다. 얼어붙은 듯, 경직된 채로."

그가 절벽의 균열 쪽을 가리켰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미 무언가를 볼 수 있었다. 달빛일 수도 있고, 거품 자국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무언가는 조금 더 단단해 보이는 기색이었다.

그들은 백 야드쯤 더 가까이 다가갔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은색 동상처럼 보였다.

네어스 자신도 얼굴이 약간 창백해 보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듯 서 있었다. 포터는 솔직히 홈 자신만큼이나 두려워했고, 산전수전 다 겪은 기자 바른조차 가능하면 더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유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유일한 남자가, 오히려 자신이 유령일지도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이라는 점이 묘하게 느껴졌다.

브라운 신부는 안내판을 확인하듯 차분히, 그리고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다.

"신부님, 그걸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요." 바른이 신부에게 말했다. "저는 신부님이 귀신 같은 걸 믿는 유일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된다면요," 브라운 신부가 답했다. "전 당신이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분인 줄 알았소. 하지만 유령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과, 특정 유령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니까."

바른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차가운 달빛 아래 무너져 가는 절벽들을 거의 숨기듯 힐끔거렸다. 그곳은 그가 본 환상, 혹은 미혹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었다.

"저도 믿지 않았어요. 직접 보고 나서야 믿게 됐죠."

"저도 그걸 믿었어요. 직접 보기 전까지는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기자는 신부가 거대한 황야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신부는 마치 반으로 잘린 언덕처럼 쪼개진 곳을 향해, 경사면을 오르는 듯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변색한 달빛 아래, 풀잎은 바람에 한쪽으로 쓸린 긴 회색 머리카락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풀들은 모두 한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절벽이 무너진 곳, 회녹색의 지면에서 하얀 백악의 희미한 빛이 비치는 곳, 그리고 아직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희미한 형체, 혹은 빛나는 그림자가 서 있는 곳이었다.

아직 그 희미한 형체는 황량한 풍경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그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검은 사각형의 뒷모습과, 사무적이고 실무적인 사제의 모습이었다.

그때, 죄수 홈이 갑자기 호송관들을 뿌리치고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앞질러 나갔다. 그는 신부보다 먼저 달려가, 그 유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저는 자백했습니다." 그들이 들은 그의 외침이었다. "왜 내가 당신을 죽였다고 그들에게 말하러 온 거죠?"

"내가 당신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하러 왔소." 유령이 말하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무릎 꿇고 있던 남자가 새롭고도 기이한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손이 살과 뼈로 된 손임을 깨달았다.

경험 많은 형사와 그 못지않게 노련한 기자가 입을 모아 말했다. 최근 기록상 가장 놀라운 죽음의 탈출이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단순한 일이었다. 절벽의 파편과 조각들이 끊임없이 떨어져 나갔고, 그중 일부가 거대한 균열에 끼어 있었다. 그것은 어둠 속 바다로 이어진 수직 절벽이라 여겨졌던 곳에, 실은 작은 턱이나 주머니 같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튼튼하고 질긴 노인이었다. 그 노인은 바위의 아래쪽 어깨 부분에 떨어졌고,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는 절벽을 타고 올라가려다 24시간 동안 극한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결국 무너진 잔해들이 그에게 피난용 사다리 역할을 해 주었다.

홈이 목격했다는 하얀 파도의 환영, 즉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멈춰 선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거기에는 기디언 와이즈가 있었다. 뼈와 근육이 단단한 그 남자는 하얀 머리카락과 먼지 묻은 시골 옷차림,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게 보이는 시골 출신의 거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백만장자에게 영원과의 경계선에서 단 한 발짝 떨어진 바위 턱 위에서 24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교훈이 될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는 범죄자에 대한 악의가 전혀 없음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정황을 설명하며 그 범죄의 성격을 상당히 완화시켰다. 그는 홈이 자신을 던져 죽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땅이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자 그 아래로 꺼져 내려갔을 뿐이며, 홈은 오히려 구출을 시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했다.

"저 아래 그 신의가 내려주신 바위에서, 저는 주님께 원수들을 용서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작은 사고조차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참으로 옹졸한 짓이라 여기실 것입니다."

물론 홈은 경찰의 감시 하에 떠나야 했다. 하지만 형사는 속으로 알고 있었다. 이 죄수의 구금 기간은 짧을 것이며, 만약 형을 받는다 해도 그 정도는 미미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살인자가 그런 것은 아니다. 피살자를 증인석에 세워 자신에게 증언을 받게 할 수 있는 살인자는 드물다.

"참으로 이상한 사건이군."

형사와 다른 이들이 절벽 길을 따라 마을 쪽으로 서둘러 걸어가자, 바른이 그렇게 말했다.

"맞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우리가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잠시 머물며 함께 이야기해 보시겠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바른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당신이 누군가가 가진 지식을 다 말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이미 홈을 염두에 두고 계셨군요."

"그 말을 할 때, 저는 침묵이 많기로 소문난 포터 씨를 염두에 뒀습니다. 더 이상 고인(故人)이 아닌, 혹은 (말하자면) 애도받던 기디언 와이즈 씨의 비서 말입니다."

"포터가 내게 말을 건넨 건 딱 한 번뿐이었지." 바른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그때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가 범인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이어서 말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 모든 일이 '냉장고'와 관련이 있다는 거였지."

"예, 그분이 그 일에 대해 무언가 알고 계리라 생각했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그분이 그 일에 연루되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노인 와이즈가 그 구렁텅이에서 기어 나올 만큼 체력이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놀란 기자가 물었다. "아, 물론 그 절벽에서 벗어났죠. 저기 보이잖아요."

신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갑자기 물었다.

"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를 정확히 말해 범죄자라고 부르기는 어렵군요." 바른이 대답했다. "그는 내가 알던 그 어떤 범죄자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저는 그쪽 일을 꽤 해봤습니다. 물론 네어스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쌓았죠. 우리는 그를 완전히 범죄자라고는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다른 면에 대해서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제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죄인에 대해 더 잘 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나, 더구나 네어스조차도 저만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들을 꽤 많이 알아봤고, 그들의 사소한 습관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란 말이오?" 바른이 의아한 듯 되물었다. "도대체 어떤 부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참회자들이죠,"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바른이 이의를 제기했다. "그의 죄를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고해의 내용을 믿을 수 없소."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나는 수많은 고해성사를 들어봤지만, 저것처럼 가짜인 고해는 처음이었소. 그건 너무 낭만적이었소. 책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지.

카인의 형벌에 관해 그가 말한 방식을 보시오. 그것도 책에서나 쓰는 표현이요. 본인이 저지른 짓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절감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소.

만약 당신이 정직한 점원이나 가게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처음으로 돈을 훔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때 바로 바라바스의 행위와 자신을 동일시하겠소? 만약 어떤 끔찍한 분노로 아이를 죽였다면,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 '헤롯'이라는 이름의 이두메아 권력자와 자신의 행위를 동일시하겠소?

내 말에 귀 기울이시오. 우리의 죄는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사적이고 평범해서, 비록 적절한 비교라 할지라도 첫 번째 생각은 역사적 유사성으로 향하지 않소.

게다가 그는 왜 굳이 동료들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나섰소?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는 이미 그들을 배신한 것이요. 지금까지 그에게 무언가나 누군가를 배신하라고 묻는 이는 없었소.

아니, 나는 그가 진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오. 그러니 나는 그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겠소.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용서를 받는다면, 세상은 어떤 꼴이 되겠소?"

브라운 신부는 고개를 돌린 채 바다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요." 바른이 외쳤다. "그가 사면을 받았는데, 무슨 의심으로 그를 쫓아다니는 게 소용이 있단 말인가? 어쨌든 그는 이미 사건에서 벗어났소. 그는 전혀 안전하니까."

브라운 신부는 팽이처럼 몸을 번쩍 돌리며 친구의 외투를 잡았다. 그의 눈에는 뜻밖이고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흥분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거야!" 그가 단호하게 외쳤다. "그 점을 꼭 기억해라! 그는 완전히 안전해. 이미 그 일과는 동떨어져 있지. 바로 그 덕분에, 그가 이 수수께끼의 핵심 열쇠야."

"도와주세요." 바른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제 말은," 작은 신부가 고집스럽게 덧붙였다. "그가 빠져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빠져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

"아주 명쾌한 설명이군요." 기자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들은 잠시 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브라운 신부가 명쾌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이제 다시 그 냉장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잘못한 점은, 많은 신문과 공직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와 같습니다. 바로 현대 사회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 볼셰비즘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볼셰비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쩌면 볼셰비즘은 그저 눈속임에 불과했을 뿐이죠."

"그건 이해가 안 가요." 번이 반박했다. "저 세 명의 부자가 같은 사업에 몸담았다가 살해당했는데 말입니다."

"아니요!" 신부는 날카롭고도 맑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살해당한 백만장자는 세 명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살해당한 백만장자는 두 명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백만장자는 여전히 살아있고, 기운차게 활개 치고 있으며, 오히려 발로 차고 싶어 할 만큼 건강합니다.

당신은 그 세 번째 백만장자를 영원히 위협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바로 당신의 눈앞에서, 장난기 어린 정중한 어조로, 그리고 당신이 호텔에서의 대화라고 설명했던 그 자리에서 그의 머리 위로 던져졌던 위협으로부터 말입니다.

갈럽과 스타인은 더 구식이고 독립적인 그 늙은 장사꾼이 자신들의 조합에 합류하지 않으면 냉대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냉장고가 등장한 것입니다."

잠시 멈춘 뒤, 그는 말을 이었다.

"현대 세계에 볼셰비즘 운동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운동에 저항해야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비록 제가 여러분이 그 저항을 하는 방식을 크게 신뢰하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또 다른, 똑같이 현대적이고 똑같이 격렬한 운동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독점, 혹은 모든 산업을 독점 조합으로 몰아넣으려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 또한 한 차례의 혁명입니다. 모든 혁명이 그러하듯, 이 흐름 역시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들은 볼셰비즘을 위해, 그리고 그

에 반대해 죽음을 맞이하듯, 이 독점의 흐름을 위해, 그리고 그 흐름에 맞서 죽음을 택합니다.

이 독점 거인들 역시 자신들의 최후 통첩을 내걸고, 침략을 감행하며, 처형을 단행합니다. 이들은 왕처럼 자신들의 궁정을 거느리고, 친위대와 무장 용병을 거느립니다. 적진 깊숙이 정탐꾼을 파견하기도 하지요.

홈은 과거 기드온 영감의 적진 중 한 곳에 파견된 정탐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다른 적, 즉 그를 견제하며 무너뜨리려던 경쟁자들을 상대하는 데 이용되었을 뿐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용됐는지, 또 그걸로 무슨 소용이 있었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소." 번이 말했다.

"보시지 않습니까?" 브라운 신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들이 서로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번의 눈에는 여전히 약간의 의구심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해의 빛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게 내가 말하려는 거야." 다른 한 사람이 이어 말했다. "내가 '그들은 이 일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에 끼어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할 때의 뜻이지. 보통 사람이라면, 이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다른 두 사건과는 무관할 거라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정반대야. 이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두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던 거지. 아주 기묘하고 믿기 어려운 알리바이야. 당연히 믿기 어렵지만,

그래서 오히려 파고들 수 없는 거지. 보통 사람은 살인을 자백한 사람은 진심일 거라 믿고, 살해자를 용서한 사람 역시 진심일 거라 생각해. 하지만 아무도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으니, 한 사람은 용서할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은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는 발상을 하지 못해.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허위 증언 때문에 그날 밤 이곳에 고정되어 있었던 거야.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여기에 없었지. 홈은 숲에서 노년 갈럽을 살해하고 있었고, 와이즈는 로마식 목욕탕에서 그 작은 유대인을 목 졸랐으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거야. 와이즈가 정말로 등반 모험을 감행할 만큼 힘이 있었는지 말이지."

"정말 훌륭한 모험이었죠." 번이 아쉽게 말했다. "풍경에 잘 어울렸고, 정말로 설득력 있었어요."

"너무나 설득력 있어 오히려 믿을 수 없다." 브라운 신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달빛 아래 일렁이던 거품이 유령으로 변하는 그 장면, 얼마나 생생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문학적이지 않은가. 홈은 비겁한 도둑이자 하찮은 존재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역사 속 다른 많은 도둑과 하찮은 자들처럼, 그에게도 시인이라는 면이 있다는 것을."